

2013학년도 통일교육시범학교 운영보고서

학교 통일교육을 위한 다양한 통일교육·체험활동 방안 모색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정 통일교육시범학교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

차 례

I. 서론

- 1. 운영의 필요성 1
- 2. 운영의 범위 및 제한 1
- 3. 실행목표 1

II. 이론적 배경

- 1. 통일교육의 목표 2
- 2. 학교 통일교육의 필요성 2
- 3. 학교 통일교육의 과제 3
- 4. 통일교육의 기본 방향 3
- 5. 학교 통일교육의 주안점 3

III. 운영의 설계

- 1. 운영 기간 및 대상 6
- 2. 운영 방법 6
- 3. 운영 절차 6
- 4. 운영 기구 8
- 5. 실태분석 9
- 6. 실행목표 9

IV. 세부 실행 내용

- 1. 통일교육 특강 및 수업연계 지도활동 11
- 2. 올바른 국가관·안보관 확립을 위한 교육활동 12
- 3. 통일관심도 고취를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 13
- 4. 균형 있는 통일관 함양을 위한 체험활동 및 각종 대회 17
- 5. 통일교육을 위한 환경 조성 20
- 6. 서울통일관 운영을 통한 통일교육 22

V. 운영의 결과 및 분석

- 1. 검증 방법 및 내용 24
- 2. 통일의식 수준의 변화 24

VI. 요약 및 결론

- 1. 요약 28
- 2. 결론 30
- 3. 문제점 및 제언 30

■ 부록

- 1. 학생 통일의식 조사 설문지 33
- 2. 남북한 언어비교 35
- 3. 통일퀴즈 문제 및 정답 38
- 4. 남북한 통일관련 기초상식 39
- 5. 통일퍼즐 문제 및 정답 41
- 6. 월별 도전 통일벨 61
- 7. 통일관련 형성평가(서서울 퀴즈왕 선발대회) 72
- 8. 월별 주제별 통일교육 74
- 9. 2013년 및 1996년 이후 통일성금 모금 현황 83
- 10. 2013년 통일교육 및 행사 현황 84
- 11. 2013년 및 1996년 이후 서울통일관 방문 및 견학 현황 85

■ 2013년 언론속의 서서울 통일교육 86~109

■ 2013년 사진 모음 110~132

■ 서서울 통일교육 17년 133~135

■ 서울통일관 소개 136~140

■ 서서울이 개발한 통일교육 교재(4종) 표지 141~142

I. 서론

1. 운영의 필요성

2010년 3월 26일 천안함폭침사건, 2010년 13월 29일 연평도무력도발사건은 우리의 분단아픔을 대변할 수 있다고 하겠다. 이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분단은 우리에게 고통과 불편함을 주고, 우리의 자존심과 국가의 위상이 분단으로 영예스럽지 못하다. 분단이 길어질수록 민족의 이질성이 심화되어 통일은 더욱 힘들게 된다. 설령 통일이 된다 해도 동질성을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더 이상 통일은 미룰 수가 없다. 이러한 시기에 통일한국을 이끌어 나갈 우리 청소년들에게 북한을 이해하며 통일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켜 통일 역군으로서의 역량을 준비하고 배양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민족 분단의 현실과 북한에 대해, 또 민족공동체의식함양과 통일대비를 위해 바람직한 태도와 자세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나아가 같은 민족으로서 통일 이후 다함께 사는 능력을 길러 통일한국의 주인공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다.

2. 운영의 범위와 제한

- 운영의 대상은 본교학생, 교사, 학부모로 한다.
- 현행 교육과정에서 실행 가능한 것을 선정하였다.
- 북한 핵문제와 계층 간의 갈등, 가치관의 혼돈, 국내 경제 등의 사회분위기의 어려움으로 인해 통일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 및 참여가 부족하였다.
- 올바른 국가관, 건전한 안보관, 균형 있는 대북관, 미래적인 통일관을 갖는데 기본 역점을 두었다.

3. 실행목표

- 첫째, 학생들의 통일관심 및 의지 고취와 역량배양을 위하여 교사들의 통일 및 북한관련 지식을 높인다.
- 둘째, 학생들에게 올바른 국가관과 안보관을 확립하게 한다.
- 셋째, 학생들의 통일의 관심도 고취와 통일당위성 교육을 위하여 다양한 통일교육 활동을 전개한다.
- 넷째, 다양한 체험활동(안보현장 체험)과 행사를 통하여 통일대비 역량배양과 민족공동체의식을 함양하게 한다.
- 다섯째, 통일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교내 통일교육 환경을 조성토록 한다.
- 여섯째, 서울통일관 운영을 통하여 학생 및 학부모 및 주민들에게도 통일교육 및 견학을 실시함으로써 통일의지와 통일분위기를 조성, 활성화하는 역할을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통일교육의 목표

통일교육은 모든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평화적 통일에 대한 공통의 인식과 태도를 형성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통일교육지원법 제2조)

우리나라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기본법 제2조는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교육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정신을 바탕으로 1999년에 제정된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는 “통일교육이라 함은 국민으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탈냉전의 국제질서 속에서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통일교육은 이러한 법체계의 토대 위에서 추진되는 것으로서 그 목표를 한다.

2. 학교통일교육의 필요성

최근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이 양적, 질적으로 모두 확대 발전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통일은 역사적 당위성을 넘어 실현가능한 현실로 다가 오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분단의 문제를 체험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통일문제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도 기성세대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교통일교육은 통일시대를 이끌어 나갈 주역으로서 학생들의 통일의식을 일깨우고, 객관적 판단능력을 신장시키며, 평화와 통일을 일구어갈 수 있는 실천의지와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 통일에 대한 부정적 시각 극복
- 통일의 당위성 인식과 통일의지 확립
- 통일시대 대비 역량강화

3. 학교통일교육의 과제

통일한국의 주역이 될 세대에 대한 학교통일교육은 다음과 같은 과제를 안고 있다.

-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제고
- 평화의식 함양과 상호존중의 자세 확립
-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신 및 민주시민의식 함양
-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

4. 통일교육의 기본방향

통일 환경의 변화와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주민의 생활상을 사실에 기초하여 객관적으로 이해시키고, 확고한 안보태세를 확립한다. 아울러 자유민주주의와 민족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오랜 분단과 체제, 이념의 차이에 인한 이질화를 극복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확대하여 적극적인 통일의를 확고히 한다.

- 건전한 안보관을 확립한다.
-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대북관을 갖게 한다.
- 미래지향적인 통일관을 갖게 한다.

5. 통일교육의 주안점

가.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제고 및 통일 의지 확립

- 1)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통일에 대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갖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 통일교육을 실시한다.
- 2) 학생들에게 분단의 장기화에서 오는 여러 가지 고통과 폐해를 환기시키고, 통일이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이득과 혜택을 국가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통일이 분단 상황보다 더 나은 삶을 보장해 준다는 확신을 갖도록 해준다.
- 3) 민족사적 당위성에 더하여 통일이 어떤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인지를 잘 설명해 줄 때 학생들은 통일의 필요성을 보다 잘 이해하도록 한다.

- 4) 평화적인 방법과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우리민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통일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겠다는 사명의식을 고취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실시한다.

나. 자유민주의 가치에 대한 확신 및 민주시민의식 함양

우리가 구상하는 통일의 미래상은 민족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고 구성원 개개인의 자유와 복지, 존엄성이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은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보편적 가치와 질서를 폭넓게 다룬다.

따라서 단순히 정부형태를 비교하는 수준을 넘어 학생들에게 생활방식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깨닫게 하고, 이를 기초로 민주적 의사결정과 문제해결 능력, 그리고 민주적 원리와 절차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합적으로 갖도록 한다.

다.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

통일은 단순히 분단이전상황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의 삶을 창조하기 위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존중 등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통일교육은 북한주민을 동정심이나 우월적 시각에서 바로 보지 않고, 같은 민족이자 상생, 공영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토록 한다. 이와 함께 민족지상주의와 같은 편협한 민족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한다. 우리가 지향하는 민족공동체는 단순히 혈연에 기초한 패쇄적인 민족주의가 아니라, 다른 민족과 그들의 문화도 존중하는 열린 민족주의에 바탕을 두도록 한다.

라. 국가안보의 중요성 인식

한반도에서 국제적인 안보환경의 변화,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 북한의 핵문제 등 안보를 위협하는 여러 요소가 항시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한반도의 안보현실을 정확히 이해시키고 여러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가를 유지, 보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시킨다.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이 되어야만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이를 토대로 남북 관계가 발전되어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킨다.

마. 북한실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

분단을 해소하고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이해토록 한다.

북한은 우리와 함께 통일을 만들어 가야 할 상생과 공영의 대상이며, 동시에 분단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경계의 대상이다.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은 학생들이 이 같은 이중적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균형 있게 인식하도록 한다.

한편, 북한당국의 퇴행적 행태와 비민주적 요소에 대해서는 비판의식을 길러주되, 북한주민은 동포애와 인도주의 차원에서 민족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바. 통일대비 역량 강화

다가올 통일시대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통일 미래를 대비 할 수 있는 교육을 행해야 한다. 통일의지와 통일정책이 아무리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해도 통일을 실천해 나갈 역량이 없으면 통일기회가 왔을 때 이를 놓칠 수 있다. 통일교육은 통일과정에 대한 대비만아니라 통일 후 남북 간 통합 과정 등에도 초점을 두어야 한다. 통일은 단순히 제도적인 통합만이 아닌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통합까지 의미한다. 그러므로 통일을 완성하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을 인지시킨다.

Ⅲ. 운영의 설계

1. 운영 기간 및 대상

- 기 간 : 2013년 3월 - 2014년 2월
- 대 상 : 교사 · 전교생 및 학부모

2. 운영 방법

학생들의 기존 통일교육 활동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보다 심화된 통일 교육을 실시하고, 본교생 뿐만 아니라 학부모, 주민들과 연계하여 민족공동체 의식을 함양케 하는 선도적 역할을 한다.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통일교육 활동을 시도함으로써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과 통일대비교육을 위한 교육활동으로 다음과 같은 방침을 설정하여 운영한다.

- 첫째, 학생들의 통일관심 및 의지 고취와 역량배양을 위하여 교사들의 통일 및 북한관련 지식을 높인다.
- 둘째, 학생들에게 올바른 국가관과 안보관을 확립하게 한다.
- 셋째, 학생들의 통일의 관심도 고취와 통일당위성 교육을 위하여 다양한 통일 교육 활동을 전개한다.
- 넷째, 다양한 체험활동(안보현장 체험)과 행사를 통하여 통일대비 역량배양과 민족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게 한다.
- 다섯째, 통일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교내 통일교육 환경을 조성토록 한다.
- 여섯째, 서울통일관을 운영을 통하여 학생 및 학부모 및 주민들에게도 통일 교육 및 견학을 실시하여 통일의지와 통일 분위기를 조성, 활성화 하는 역할을 한다.

3. 운영절차

가. 계획 활동

- (1) 계획수립 (2)실태분석 (3) 운영 계획 검토 및 확정

나. 탐구활동

지도방법 및 프로그램 개발

다. 실행

(1) 수업활동 (2) 교육 및 체험·행사 활동

라. 심화활동

활동점검 및 통일교육 프로그램 보완

마. 평가활동

(1) 교육활동에 대한 평가 및 분석 (2) 중간보고

바. 보고활동

최종보고(시범학교 운영보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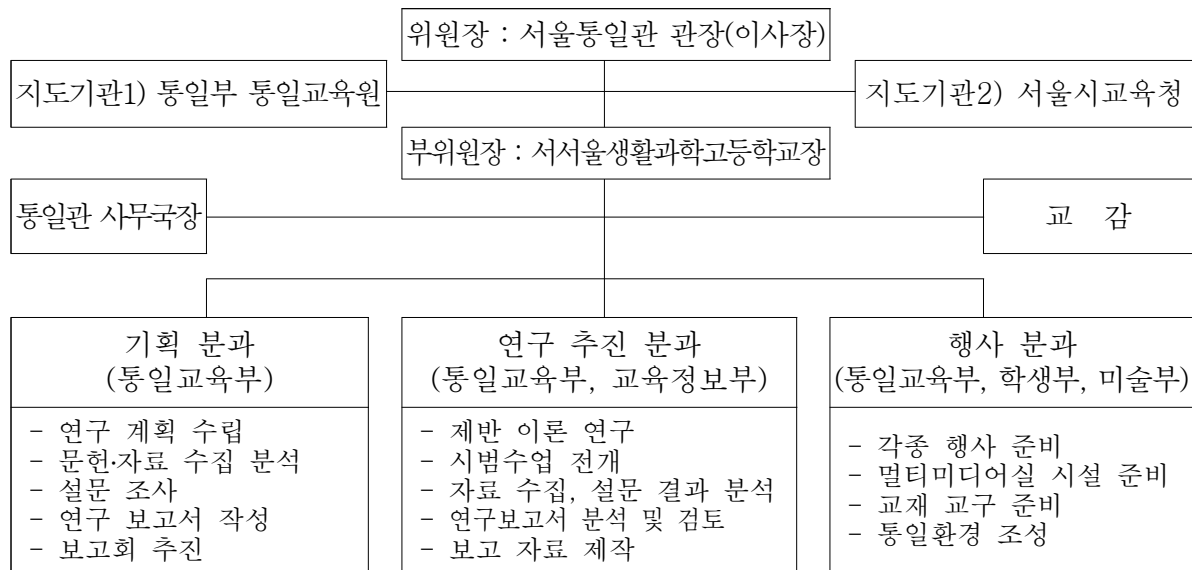
사. 일반화

(1) 후속 지도활동 (2) 인터넷 탑재 및 정보 공유

단계	운영과제	운영 내용	기간
계획	계획 수립	- 연구 위원회 조직: 주제 설정, 일정 협의, 계획서 작성	3월
	실태 분석	- 설문 조사(교사, 학생, 학부모 통일 의식 분석)	3월
	운영 계획 검토 및 확정	- 운영 계획서 검토분석 및 보완 - 운영 계획서 확정	3월
탐구	지도 방법 및 프로그램개발	- 관련 지도 내용 추출 및 분석 - 지도 방법 연구 - 평가서 작성, 분석 - 자료 수집 - 프로그램 개발	3월
실행	수업활동	- 관련 교과 지도	2013년 3월- 2014년 2월
	교육 및 체험, 행사 활동	- 모바일을 통한 통일교육 실시 - 통일글짓기 대회 - 서울시 초중고 학생 대상 - 교사통일교육 역량 배양 - 사이버 통일 교육(통일교육 홈페이지 운영) - 서울통일관 운영 (1일 통일 학교 '프로그램 운영-타교학생 및 학부모등 기타) - 제7회 통일 박람회개최 - 안보현장 견학(판문점,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전방견학 등)	2013년 3월- 2014년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 환경 조성(서울통일관 등) - 통일동아리 활동(통일연구반)활성화 - 남북한 언어 비교, 통일 명상, 통일 퀴즈 및 퍼즐, 통일4행시, 통일 상식, 월별 통일교육 - 북한 학생 돕기 사랑나누기 성금모금활동 - 평화통일염원 수련회 - 학년별 체험활동실시 - 북한이해교육(북한영화감상 등) - 통일사행시 짓기 -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활동 - 통일노트작성 	
심화	평가 및 중간보고	- 활동점검 및 통일교육 프로그램 계획 보완	- 7,9월
평가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 조사 분석 - 운영 결과 분석 검토 - 우수 요인, 부진 요인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월 - 6월 - 9월
보고	최종보고 (2013년10월)	- 종합운영보고서 작성	10월
일반화	후속 운영	- 후속 지도 활동	2013년 10월 2014년 02월
	일반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화 자료 추출 - 학교 운영 계획 반영 및 홍보 	2013년 13월 2014년 02월

4. 운영 기구(평화통일교육 연구위원회) - 통일교육부 중심



5. 실태분석(학생)

실시일	인원	통일 관심도	통일의 필요성 여부	학교 통일교육 만족도
2013년 4월	1,438명	58.5%	63.0%	88.1%
2013년 9월	1,299명	59.6%	68.0%	86.0%

학기 초에(2013년 4월) 실시한 설문조사(통일관심도, 통일의 필요성, 학교통일교육 만족도 등)내용에 있어서 “통일관심도”와 “통일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반수를 넘었고 2차 조사에서 약간 상승했다. 학교통일교육 만족도 또한 상당히 높았으나 2차 조사에선 다소 떨어졌다.

6. 실행목표

우리학생들에게 건전한 안보관,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인식, 미래지향적인 통일관을 갖게 하여 통일을 대비하여 우리 청소년들의 통일의식고취를 위하여 해야 할 다양한 프로그램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 지 그 영역에 따라 실행목표별 실천과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 통일교육 특강 및 수업연계 지도활동

- 목표 : 학생들의 통일관심 및 의지 고취와 역량배양을 위하여 교사들의 통일 및 북한관련 지식을 높인다.

[실천 과제]	
가. 학생 및 교사 통일교육 특강	
나. 수업과 연계지도	
다. 통일 및 북한관련 형성평가 실시 지도	
라. 통일 혼화 - 주제별 통일교육	

나. 올바른 국가관, 안보관 확립을 위한 교육활동

- 목표 : 학생들에게 올바른 국가관과 안보관을 확립하게 한다.

[실천 과제]	
가. 대한민국 상징물 바로알기	나. 대한민국 정통성 알기
다. 안보현장 체험	

다. 통일관심도 고취를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

- 목표 : 학생들의 통일관심도 고취와 통일당위성 교육을 위하여 다양한 통일 교육활동을 전개한다.

[실천 과제]

- | | |
|-------------------|--------------|
| 가. 남북한 언어비교 | 나. 통일퀴즈 |
| 다. 통일 및 북한관련 기초지식 | 라. 주제별 통일교육 |
| 마. 통일동아리반 운영 | 바. 통일4행시 짓기 |
| 사. 통일성금모금 | 아. 통일교육 형성평가 |
| 자. 통일교육 교재 개발 | |

라. 균형 있는 통일관 함양을 위한 체험활동 및 각종 대회

- 목표 : 다양한 체험활동과 행사를 통하여 통일대비 및 역량배양, 민족공동체의식을 함양하게 한다.

[실천 과제]

- 가. 제17회 평화통일염원 청소년 야영수련회
- 나. 2013 서서울 평화통일염원 나의 주장 발표 대회
- 다. 제18회 서울학생 통일글짓기 대회
- 라. 제7회 전국 청소년 통일퀴즈왕 선발대회
- 마. 2013 나라사랑 병영체험(1박2일)
- 바. 서울통일관 통일보물찾기
- 사. 통일연구반 활동
- 아. 서울통일관 견학

마. 통일교육을 위한 환경 조성

- 목표 : 통일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한 통일교육 환경을 조성토록 한다.

[실천 과제]

- | | |
|------------------|---------------|
| 가. 통일동산 | 나. 통일교육 연구실 |
| 다. 서울통일관 통일안보전시관 | 라. 통일우체통 |
| 마. 통일게시판 | 바. 통일한마디 코너 |
| 사. 통일영상실 | 아. 각 학급 통일게시판 |

바. 서울통일관 운영을 통한 통일교육

- 목표 : 서울통일관 운영을 통하여 학생 및 학부모, 주민들에게도 통일교육 및 견학을 실시하여 통일의지와 통일 분위기를 조성, 활성화하는 역할을 한다.

[실천 과제]

- | | |
|-------------|--------------------|
| 가. 서울통일관 운영 | 나. 사이버 통일교육 실시 |
| 다. 학부모 통일교육 | 라. 1일 통일학교 프로그램 운영 |

IV. 세부 실행 내용

1. 통일교육 특강 및 수업연계 지도활동

- 목표 : 첫째, 학생들의 통일관심 및 의지 고취와 역량배양을 위하여 교사들의 통일 및 북한관련 지식을 높인다.

[교육 내용]
가. 학생 및 교사 통일교육 특강
나. 수업과 연계지도
다. 통일 및 북한관련 형성평가 실시 지도
라. 통일 훈화 - 주제별 통일교육

가. 교사 연수

교사들의 통일의식과 북한에 대한 관심 고취 및 지식 배양을 위해 외부 강사 특강을 실시한다.

- (1) 실시 : 연중 수시
- (2) 장소 : 통일전시관 및 통일세미나실
- (3) 연수 방법 : 외부강사 초빙 강사 특강
- (4) 연수 실시 내용

날짜	강사명	직책	대상	주 제
2013.05.30	류길재	통일부장관	학생,교사	분단 현실과 통일교육의 전망
2013.05.30	이미경	통일교육원교수	교사	서울학교 통일교육발전 워크숍
2-13.06.20	나경원	평창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장	학생,교사	올림픽과 국력, 그리고 통일전망
2013.06.30	김영희	탈북강사	학생,교사	북한실상과 이해

나. 수업과 연계지도(학습지도안 작성 시 통일 관련 내용 기재)

- (1) 대상 : 전교사
- (2) 방법 : 학습지도안 작성 시 교과수업내용과 관련해서 통일 및 북한에 대해 2-3분 분량 지도할 내용을 준비한다.
- (3) 내용 : 남북한 언어비교, 통일관련 상식, 교과와 관련한 내용 등

다. 통일관련 형성 평가(서서울 통일퀴즈 예선) 실시

- (1) 대상 : 전교생

- (2) 방법 : 남북한 언어 및 북한관련 상식을 내용으로 형성 평가 실시
- (3) 형성평가 출제범위 : 통일로 가는 길목(통일노트)
- (4) 내용 : 별첨

라. 통일문화- 월 주제별 통일교육

- (1) 실시 ; 매월 첫째 주 월요일 및 수시 실시
- (2) 방법 : 담임교사가 학교에서 배부한 매월 주제별 통일교육내용을 훈화 및 설명 혹은 게시 교육을 통하여 실시함
- (3) 내용 : 별첨

2. 올바른 국가관, 안보관 확립을 위한 교육활동

- 목표 : 학생들에게 올바른 국가관과 안보관을 확립하게 한다.

[교육내용]	
가. 대한민국 상징물 바로알기	나. 대한민국 정통성 알기
다. 안보현장 체험	

가. 대한민국 상징물 바로 알기

- (1) 대상 : 전교생
- (2) 내용 : 태극기, 애국가, 무궁화, 한반도 지도 그리기
- (3) 방법
 - 통일노트를 통해 대한민국의 상징물인 태극기, 애국가, 무궁화, 한반도 지도 그리기, 특히 독도표시하기 등에 대해서 정확하고 바른 지식을 갖게 한다.
 - 태극기그리기, 대한민국 한반도 지도그리기, 특히 독도 표시하기 등은 매월 통일노트 말미에 반드시 그리게 되어 있어 학생들로 하여금 올바른 국가관을 갖게 한다.
 - 애국가 4절은 통일노트에 매주 혹은 매월 통일노트에 말미에 작성하여 애국가 4절을 완전히 알게 함으로써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

나. 대한민국 정통성 알기

- (1) 대상 : 전교생
- (2) 내용 : 역사적 정통성, 정치적 정통성, 국제적 정통성, 문화적 정통성
- (3) 방법
 - 통일노트에 수록된 내용을 잘 인지하게 한다.
 - 창의적 체험학습 수업(통일교육)을 통해 알게 한다.

- 월 주제별 통일교육을 통해 알게 한다.

다. 안보현장 및 6.25 음식 체험

날짜	장소	대상	비고
2013.05.30	인천상륙작전 기념관 및 평택 해군 제2함대 사령부 안보공원	학생	희망자
2013.06.13	평택 해군 제2함대 사령부 안보공원	"	"
2013.06.20	철원 및 휴전선 지역 안보현장	"	"
2013.06.20	임진각 평화공원	"	"
2013.06.25	6.25 음식체험(자유총연맹주최)	전교생	학교 교정
2013.06.27	과학화 전투훈련단(인제)	교사	박경준
2013.07.30~31	나라사랑 병영체험(전방 6사단),1박2일	학생	희망자
2013.10.01	건국 65주년 국군의 날 행사 참여	학생,교사	1학년

3. 통일관심도 고취를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

- 목표 : 학생들의 통일관심도 고취와 통일당위성 교육을 위하여 다양한 통일 교육활동을 전개한다.

[교육내용]	
가. 남북한 언어비교	나. 통일퀴즈
다. 통일 및 북한관련 기초지식	라. 주제별 통일교육
마. 통일동아리반 운영	바. 통일4행시 짓기
사. 통일성금모금	아. 통일교육 형성평가
자. 통일교육 교재 개발	

가. 남북한 언어비교

- (1) 대상 : 교사 및 전교생
- (2) 실시 방법
- (3) 모바일통일교육 및 게시교육
 - 매주 월요일 남북한 2단어씩 비교하여 통일게시판 및 출입구에 게시
 - 남북한 언어 비교 내용을 학급 통일란에 게시
 - 매주 월요일 및 특별한 날짜에 모바일 전송을 통하여 전교사, 전교생에게 교육한다.

- 내용물 : 별첨

나. 통일퀴즈

통일 및 북한 관련 내용을 퀴즈형식으로 풀어 관심을 갖고 알게 한다.

- (1) 대 상 : 전교생
- (2) 실 시 : 매월 1회 혹은 통일 관련 행사시
- (3) 방 법 : 통일퀴즈 문제를 매월 1일 각 게시판에 게시하고 방송을 통해 문제를 고지한 후 애국조회 시간에 응모자 중 정답자를 추첨, 시상한다.
- (4) 내 용

월별	통일퀴즈	정답
03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무엇이라 할까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04월	NLL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북방한계선
05월	금강산의 계절별 명칭은?	봄 - 금강산 여름 - 봉래산 가을 - 풍악산 겨울 - 개골산
06월	6.25 전쟁 UN 군지원참전국 16개국과 의료지원국가 5개국은 각각 어느 국가일까요?	참전국-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콜롬비아, 그리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터키, 벨기에,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에티오피아 의료지원국-이탈리아, 인도,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07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이 있다. 6자회담 참여국가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남·북한
09월	남북한 통일방안은 각각 무엇일까요?	남한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북한 :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10월	1991년 12월에 남북한 총리간 합의한 문서는 무엇일까요?	남북기본합의서
11월	남북한 9도는 각각 어떻게 될까요?	남:강원도, 경기도,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제주도/북: 함경남북도, 자강도, 양강도, 평안남북도, 황해남북도, 강원도
12월	경의선, 경원선은 각각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말합니까?	서울 ~ 신의주 , 서울 ~ 원산 ,
02월	대한민국 해방년도와 휴전년도는 각각 어떻게 될까요?	해방년도: 1945년, 휴전년도: 1953년

다. 통일 및 북한관련 기초지식

통일 및 안보, 북한관련 내용, 남북한 비교 등에 관한 상식을 매주 월요일 교내에 게시하여 통일 및 북한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 (1) 대상 : 전교생
- (2) 시기 : 매주 월요일
- (3) 방법 : 매주 월요일 상식내용을 출입구 및 게시판에 게시한다
- (4) 내용 : 별첨

라. 주제별 통일교육

- (1) 통일 및 북한에 대해 알아야 할 내용을 연간 계획을 세워 교육 한다.
- (2) 실시 : 매월 1일
- (3) 방법 : 학급별 교육. 담임교사가 월별 통일교육 내용을 조종례시간을 통해 교육하고 통일노트에 기록하도록 한다.
- (4) 2013학년도 연간 통일 교육 주제는 다음과 같다.

월별	주 제
3월	대한민국 국가상장(1) : 태극기
4월	대한민국 국가상징(2) : 애국가
5월	대한민국 국가장신(3) : 무궁화
6월	6.25 한국전쟁의 교훈
7,8월	통일의 의미와 필요성
9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
10월	분단국 통일사례의 교훈
11월	북한의 교육제도
13/12,14/2	북한 학생들의 학교 생활

마. 통일 동아리반 운영

학생들 스스로 통일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평화통일연구반을 조직,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평화통일연구반 동아리의 구성원, 지도 교사, 프로그램 등이 중요하며, 특히 학생들이 수시로 모여 토론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 (1) 구성 : 지도교사 2명, 1, 2, 3학년 학생 60명
- (2) 활동 내용
 - 통일 관련 자료 수집 및 정리
 - 통일 관련 행사 활동 및 홍보 : 북한 학생 사랑나누기 동전 모으기 활동, 각종 게시물 부착 등
 - 현장 체험학습 : 땅굴견학, 통일 전망대, 전쟁 기념관, 북한 전시관,
 - 서울시교육청 을지훈련 참관, 건군 65주년 국군의 날 행사 참여
 - 환경 조성 : 게시판 정리, 패널 및 조형물 제작, 전시실 관리

바. 통일 4행시 짓기

- (1) 대상 : 전교생
- (2) 실시 : 매월 실시
- (3) 실시방법
- (4) 매월 미리 선정된 주제에 의해서 개인 및 학급별로 제출한다.
- (5) 우수학생 및 학급에 대해서 시상 및 전시한다.
- (6) 통일 4행시 주제어

일 별	주 제	일 별	주 제
'13년3월	국 가 안 보	9월	신뢰한국
4월	평 화 정 착	10월	평 화 통 일
5월	통 일 한 국	13월	주 인 정 신
6월	호 국 보 훈	12월	조 국 사 랑
7월, 8월	자 유 민 주	'14년2월	국 력 배 양

사. 북한학생 사랑나누기 성금모금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해하고 북한 학생들을 도와주는 데 동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1997년 5월부터 매월 1회 총169회 (2013년 9월 현재) 실시하였으며 총모금액은 23,004,648원이다. 통일관련 기관 및 탈북학생장학금등을 위해 성금을 기탁하고 현재 남은 금액은 6,162,108원이다. (상세한 내용 : 부록참조)

- (1) 대 상 : 교직원 및 전교생
- (2) 실시일 : 매월 15일 '평화통일염원의 날'로 지정 운영
- (3) 방법 : 등교 시 평화통일연구반 학생들이 모금 활동 실시

아. 통일교육 형성평가(서서울 통일퀴즈왕 선발대회)

- (1) 대상 : 전교생
- (2) 실시 : 9월중
- (3) 방법
 - 남북한 언어, 통일 및 북한관련상식에 대해서 통일노트에 있는 내용 중에서 출제한다.
 - 학급별로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통일교육의 자료로 삼는다.
 - 문제 : 별첨

자. 통일교육 교재 개발 : 통일노트, 통일상식, 남북한 언어비교

- (1) 대상 : 전교생
- (2) 실시방법 : 학생들의 통일교육을 위하여 통일노트, 통일상식, 남북한 언어비교 등 자체적으로 교재를 개발한다. 특히 통일노트는 북한관련 내용(남북한

언어비교, 통일상식, 통일퍼즐, 통일퀴즈, 매월 통일교육내용, 통일명상, 통일 관련 기타내용 등)을 기록, 담임교사의 확인을 거친 후 통일연구실에 제출한다. 우수학생은 시상 및 전시한다.

(3) 통일노트 내용 : 별첨)

4. 균형 있는 통일관 함양을 위한 체험활동 및 각종 대회

- 목표 : 다양한 체험활동과 행사를 통하여 통일대비 및 역량배양, 민족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게 한다.

[교육내용]
가. 제17회 평화통일염원 청소년 야영수련회
나. 평화통일염원 나의 주장 발표 대회
다. 평화통일염원 합장대회
라. 제18회 서울학생 통일글짓기 대회
마. 제7회 전국 청소년 통일퀴즈왕 선발대회
바. 나라사랑 병영체험(1박2일)
사. 건국 65주년 국군의 날 행사 참가
아. 서울통일관 통일보물찾기
자. 통일연구반 활동
차. 서울통일관 견학

가. 제17회 평화통일염원 청소년 야영수련회

- (1) 일시 : 2013년 6월 20-6월 21일(1박 2일)
- (2) 대상 : 1학년
- (3) 장소 : 교정, 서울통일관, 임진각
- (4) 내용 : 통일명상, 통일포스터그리기, 통일퀴즈, 통일퍼즐, 통일 분임토의
- (5) 특강
 - 탈북강사 김명희 북한학 박사
 - 특별초빙강사 나경원(2013 평창동계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 (6) 교육일정표

제1일 : 2013.6.20(목)		제2일 : 2013.6.21(금)	
통일역량 배양을 위한 만남의 날		평화통일을 위한 다짐의 날	
07:30	집합	06:00	기상 아침 체조, 명상
08:00	설영	06:30	아침 산행
09:00	개영식	07:00	취사 및 조식
09:30	통일교육 초청특강	09:00	통일교육특강 : 강사 나경원

	주제 : 북한의 실상과 이해 강사 : 김영희(女, 탈북강사, 북한학 박사)		2013 평창동계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대상 : 전교생
11:00	중식	10:30	소감문 작성, 지도교사와의 시간
12:00	임진각 안보현장 체험학습 임진각에서 통일○× 퀴즈대회	11:00	촬영
18:00	취사 및 석식	11:30	폐영식
19:00	평화통일염원 축제의 밤	12:00	종례 및 점심식사 후 귀가
21:40	점호 및 취침		

나. 2013 서서울 평화통일염원 나의주장 발표 대회

- (1) 일시 : 2013년 6월 24일
- (2) 장소 : 서울통일관 대강당
- (3) 참가 : 예선 통과자 6명

다. 2013 서서울 평화통일염원 합창 대회

- (1) 일시 : 2013년 7월 19일
- (2) 장소 : 서울통일관 대강당
- (3) 대상 : 예선 통과 학급

라. 제18회 서울학생 통일글짓기 대회

- (1) 일시 : 2013년 5월 28일
- (2) 주최 : 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교육협의회
- (3) 주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 서울통일관
- (4) 참가자 현황

분야	참가자 수				비고
	초	중	고	계	
산 문	230	120	93	443	

(5) 시상내용

구 분	시상내역	인 원
통일부장관상(대상)	초·중·고 각1명	3명
서울특별시교육감상(최우수)	초·중·고 각1명	3명
통일교육협의회 상임의장상(우수)	초·중·고 각1명	3명
서울통일관장상(장려)	초·중·고 각2명	6명
계		15명

마. 제7회 전국청소년 통일퀴즈왕 선발대회

- (1) 주최 : 통일부 통일교육원
- (2) 주관 : 서울통일관·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
- (3) 일시 : 2013.10.24(목) 14:00~16:00
- (4) 장소 :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 대강당
- (5) 참가자격 : 전국 고등학교 재학생
- (6) 참가인원 및 선발방법
 - 참가인원 : 100명
 - 학교별 참가인원 2명 이하로 제한
 - 선발방법 : 선착순 100명
- (7) 시상계획

등위	구분	시상훈격	시상내용	시상인원
1등	대상	통일부장관상	상장/메달/상품	1
2등	금상	통일교육원장상	상장/메달/상품	1
3등	은상	통일교육협의회 의장상	상장/메달/상품	1
4등	동상	서울통일관장상	상장/메달/상품	1
5-7등	노력상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장상	상장/메달/상품	3
8-10등	통일상	남북청소년통일교육진흥원이사장상	상장/메달/상품	3
합 계				10명

바. 2013 나라사랑 병영체험

- (1) 일시 : 2013. 7월 30일 ~ 31일 (1박2일)
- (2) 주최 : 한국자유총연맹
- (3) 장소 : 전방 ○○사단
- (4) 대상 : 본교 학생 희망자 40명

일 자	시간	교육내용	비 고
1일차	11:00 ~ 12:30	○ 부대도착/환복(전투복)/입소식 준비	
	12:30 ~ 13:30	○ 점심식사	
	13:30 ~ 14:30	○ 입소식 및 제식훈련	
	14:30 ~ 17:00	○ 군 최신장비 소개 및 무기조작 체험 ○ 부대 시설견학 ○ 마일즈 장비활용 쌍방교전 체험 ○ 모의사격 및 화생방체험	
	17:00 ~ 17:50	○ 저녁식사	부대식당
	17:50 ~ 18:00	○ 강당이동	강당 및 교회
	18:00 ~ 19:20	○ 연맹 홍보영상, ○ 안보교육	탈북강사

	19:20~20:10	○ 질의응답 등	
	20:10~20:20	○ 내무반 이동	
	20:20~21:00	○ 자유시간(다과 및 음료)	
	21:00~22:00	○ 청소, 세면 및 점호준비	
	이 후	○ 취침 및 불침번	내무반
2일차	07:00~08:00	○ 기상 및 아침식사	
	08:00~12:00	○ 안보현장 견학(땅굴, 전망대, OP 등)	버스이동
	12:00~13:00	○ 부대도착 및 점심식사	부대식당
	13:00~13:30	○ 퇴소식 연습 및 퇴소식	
	13:30~14:00	○ 환복(사복) 및 설문지 작성	

사. 건군 65주년 국군의 날 행사 참가

- (1) 일시 : 2013. 10. 01
- (2) 장소 : 성남 비행장
- (3) 대상 : 1학년 전체, 교사

아. 서울통일관 통일보물찾기

- (4) 방법 : 주어진 통일관련 문제의 답을 전시내용 중에서 찾도록 하여 서울통일관을 자세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 정답 중에서 추첨하여 시상
- (5) 대상 : 전교생
- (6) 일시 : 2013.10.25(금) 13:00~14:00
- (7) 시상 : 정답 중에서 20명을 추첨하여 시상.
- (8) 부상 : 상품권 각 1만원

자. 통일연구반 활동

- (1) 매월 1회 “북한학생 사랑나누기 성금모금” 활동
- (2) 다양한 학교 통일교육활동 계획 및 실행
- (3) 서울통일관 견학생 안내 활동

차. 서울통일관 견학(상세내용:부록참조)

- (1) 대상 : 본교 전교생 및 전국 초·중·고·대학생, 일반단체
- (2) 방법 : 수시 견학
- (3) 현재 견학자 수
 - 1996년 이후 총인원 : 79,530명
 - 2013년 10월 8일 현재 견학자 수 : 5,297명

5. 통일교육을 위한 환경 조성

- 목표 : 통일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한 통일교육 환경을 조성토록 한다.

[환경 조성 내용]	
가. 통일동산	
나. 통일교육 연구실	
다. 서울통일관 통일안보전시관	
라. 통일우체통	
마. 통일게시판	
바. 통일한마디 코너	
사. 통일영상실	
아. 각 학급 통일게시판	

■ 통일관련 환경조성 내용

위치	조성물	내용
정문	서울통일관	안보, 통일, 북한관련 자료
교문	통일의지 게시물	‘우리는 하루 세 번 통일을 생각 한다’
통일 동산	분단 상징 조형물	‘아! 금강산 통탄의 휴전선아’
	통일 우편함	남북한 서신 교환을 할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기대하면서 ‘북한 학생에게 편지 쓰기’ 를 할 때 이용한다.
	통일 시계탑	통일의 열쇠는 시간과 노력임을 나타내는 상징물
복도	한반도기	통일 염원 상징 강화 한반도기 제작 계양
통일관	분단한반도대형지도 모형 경의선 철도 복원 모형	‘남북 화해 협력 교류 통일’ 21세기 철의 실크로드(만주, 시베리아, 몽골, 중국 횡단 철도)
운동장	대형 패널	‘통일’
통일연구실	각종 통일관련 자료	서적, 사진, 북한용품, 통일포스터 입상작, 학급별 통일노트, 스크랩북 관리함
도서관	통일도서관	통일 및 북한관련 서적 비치
세미나1실	통일영상실	통일관련 영상물 상영함
관장실	북한방송 설치	북한방송을 직접 시청할 수 있음
강당	통일강당	통일관련 각종 행사 진행
출입구	통일게시물 설치	출입구 등에 통일관련 게시물 부착
각 학급	통일게시판	각 학급별 통일 및 북한교육자료 게시

가. 통일 동산

통일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교정 잔디밭과 주변을 아름답게 조성하고 경의선, 동해선

을 복원하여 통일철로 ‘세계로 미래로’ 벽화 제작 설치함. 이 외에도 통일동산에는 한반도 지도모형, 통일우체통, 통일시계탑, 통일퍼포먼스 등이 설치되어 있다.

나. 통일교육 연구실

평화통일연구반 학생들의 활동 및 평화통일교육연구위원들의 협의 장소로 이용하며 각종 통일교육을 위한 자료와 그동안 실시한 교육내용 등을 전시하고 있다.

다. 서울통일관(통일안보교육전시장) / 상세한 내용 : 부록참고

- (1) 제1주제 - 대한민국 통일방안과 남북한 비교
- (2) 제2주제 - 6.25전쟁과 전후 대남도발
- (3) 제3주제 - 남북정상회담
- (4) 제4주제 - 이산가족 상봉
- (5) 제5주제 - 북한의 이해
- (6) 제6주제 - 통일로 가는 길목: 해방이후 남북화해와 협력의 역사
- (7) 제7주제 - 북한물품전시
- (8) 제8주제 - 북한체험실(통일영상실, 북한가정, 북한교실)
- (9) 기타 : 북한주요지역디오라마, 통일희망엽서, 통일탑

라. 통일우체통 운영

- (1) 대상 : 전교생
- (2) 우체통설치 : 1곳
- (3) 방법
 - (평균 연 3-4회) 북한학생에게 편지쓰기, 통일 및 북한관련 질문 등을 적어 우체통에 넣는다.
 - 우수작품은 게시판에 소개, 낭독(방송) 및 전시한다.

마. 통일게시판 설치

- (1) 학급별로 통일게시판을 설치하여 통일 및 북한관련내용을 게시한다.
- (2) 교내 1곳 설치, 매주 내용물 교체

바. 통일한마디 코너 설치

- (1) 장소 : 통일안보전시관
- (2) 대상 : 학생 및 본교방문자
- (3) 실시 : 입간판에 통일염원의 한마디를 쓰게 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인다.

사. 통일영상실 및 통일교육실

- (1) 장소 : 통일교육관 1층
- (2) 내용 : 통일행사, 워크숍, 비디오상영, 통일특강 등

아. 각 학급 통일게시판

- (1) 장소 : 각 학급 교실
- (2) 내용 : 연간 - 통일교육계획표
 - 매주 : 남북한 언어비교, 통일관련상식
 - 매월 : 통일퀴즈, 통일퍼즐, 통일4행시, 주제별 통일교육, 도전통일벨 등

6. 서울통일관 운영을 통한 통일교육

- 목표 : 서울통일관 운영을 통하여 학생 및 학부모, 주민들에게도 통일교육 및 견학을 실시하여 통일의지와 통일분위기를 조성, 활성화하는 역할을 한다.

[교육내용]

- 가. 서울통일관 운영
- 나. 사이버 통일교육 실시
- 다. 학부모 통일교육
- 라. 1일 통일학교 프로그램 운영

가. 본교 서울통일관 운영 (상세한 내용 : 부록참고)

■ 전시 내용

- 남북한 통일방안 : 남북한 통일방안의 변천, 통일한국의 미래상, 남북한 비교 등
- 북한관 : 북한의 이해와 실상 : 북한의 체제, 의식주 등 주민생활, 문화예술, 북한의 실상, 북한의 지리지역 등 소개
- 남북정상회담 등 통일을 위한 만남 : 남북정상회담, 이산가족 상봉 등 소개
- 안보관 : 6.25 전쟁의 실상, 전후 대남도발사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안보의식 함양
- 북한물품관 : 북한주민들이 사용하는 각종 생활용품, 북한교과서 등
- 새터민 장길수의 북한생활 그림일기 : 본교 졸업생 새터민 장길수가 북한에서 생활했던 기억을 되살려 그린 그림 일기전
- 통일로 가는 길목 : 해방과 6.25전쟁을 기점으로 지난 반세기 동안 통일노력의 발자취를 사진을 통해 설명
- 통일교육 영상실 : 청소년들의 통일교육에 도움이 되는 각종 영상자료를 감상할 수 있는 공간
- 북한가정 체험실 : 북한의 중산층 가정을 재현, 북한주민의 가정생활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공간

- 북한교실 체험실 : 북한의 시골 중학교 교실을 축소 재현. 북한의 교육현실을 직접 체험 수 있는 공간
- 북한의 주요지역(북한지도 디오라마) : 요덕정치범수용소, 영변원자력연구소, 평양직할시, 나선특별시, 신의주, 개성, 청진, 금강산, 백두산 및 관문점 등 위치 안내 및 설명
- 통일희망엽서전 : 서울통일관 견학자들을 대상으로 통일희망엽서를 작성 전시.
- 북한방송시청 : 특수자료 취급허가에 따른 북한방송 시설 설치. 오후 5~13시 방송.

나. 사이버 통일교육 실시

- (1) 서울통일관 홈페이지 : <http://www.seoultongil.com>
- (2) 내용 : 통일퍼즐, 통일퀴즈, 통일 4행시 짓기, 남북한 언어비교, 통일상식, 통일명상 등 본교에서 실시하는 통일교육 활동을 통일교육 홈페이지에 올린다.

다. 학부모 통일교육

- (1) 대상 : 학부모
- (2) 장소 : 서울통일관 세미나실
- (3) 일시 : 년1회(3월중)

라. 1일 통일학교 프로그램 운영

- (1) 대상 : 전국 초·중·고·대학생 및 일반단체
- (2) 장소 : 본교 서울통일관 및 세미나실
- (3) 내용 : 특강, 통일교육체험, 서울통일관 견학

V. 운영의 결과 및 분석

1. 검증 방법 및 내용

설문내용은 본교 실정에 맞게 2013년 자체 제작하였으며, 학생들의 통일의식 변화를 알고자 설문내용을 2013년 1차, 2차 설문을 동일한 내용으로 조사하여 변화수준을 알고자 하였다.

설문내용은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도, 통일 및 북한관련소식을 접하는 통로, 통일의 장애요인, 북한에 대한 인식, 북한주민생활상 인지정도, 학교통일교육 만족도 등의 기초적인 통일의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학생들이 아직은 나름대로의 통일관 및 북한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기는 부족한 연령이므로 남북한 관계, 국내외정세 등 분위기에 많이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얼마나 통일에 관심을 갖게 하고, 통일역량을 배양하느냐에 역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한편 학부모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여 학부모에 대한 통일의식도 조사하여 참고 삼았다. 설문 대상 및 실시 시기, 설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013학년도 설문대상, 시기 및 내용 >

학년도	대상	구분	실시시기	주요 설문내용
2013년도	전교생	1차(1,190명)	4월	- 통일에 대한 관심도 - 통일 및 북한관련소식을 접하는 통로
		2차(1,143명)	9월	- 통일의 장애요인 - 북한에 대한 인식 - 북한주민생활상 인지정도 - 학교통일교육 만족도

2. 설문조사를 통한 통일의식 수준의 변화

학생들의 통일의식 수준이 어떠한가를 학년 전반기와 후반기에 2회 실시하고, 설문내용으로 조사하여 그 변화를 알아보았다.

■ 1, 2차 설문조사 분석 결과

- (1) 통일의 관심도는 1,2차 모두 ‘관심이 있는 편이다’가 가장 높았으며 1차(58.5%)에 비해 2차(59.6%)에서 관심도가 다소 높아졌다.
- (2)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1차(63%), 2차(68%)로 전체적으로 과반수이상 필요하다고 느꼈으며 1차에 비해서 2차 비율

이 약 5% 높아졌다.

(2-1)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1차에서 ‘전쟁의 불안감 감소’가 40%로 가장 높았으며 2차에서는 ‘군사비 등 분단에 따른 비용감소’가 29%로 가장 높았고 ‘전쟁의 불안감 감소’가 24%로 그 뒤를 이었다.

(2-2)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1차에선 사회혼란우려(44%)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2차에서도 역시 같은 항목이 39%로 가장 높았다.

(3) 학생들이 통일 및 북한 관련 정보를 얻는 방법은 1,2차 모두 학교수업에서 얻는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1차(38%)에 비해 2차(56%)때 약 18% 상승한 것으로 보아 학교통일교육에서 많은 정보를 얻음을 알 수 있었다.

(4) 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1,2차 모두 ‘핵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라고 생각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1차(58%)에 비해 2차(45%)때에 약 13%정도가 감소했다.

(5) 북한에 대한 인식은 1,2차 모두 ‘대체로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긍정적이라는 의견은 1차 때 27.3%, 2차 때 30.0%로 학생들은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임을 알 수 있었다.

(6) 북한주민의 현재 생활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2차 모두 과반수를 넘었으며 1차(61.6%), 2차(61.1%)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7) 학교에서 받은 통일 및 북한 관련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보통이다’ 이상의 비율이 1차(88.1%), 2차(86.0%)의 만족도를 보였다.

■ 세부 항목 분석결과

(1) 통일에 대한 관심도는?

구분	매우 관심이 있다		관심이 있는 편이다		관심이 없는 편이다		전혀 관심이 없다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전교생	9.6%	9.2%	48.9%	50.4%	33.3%	31.5%	8.2%	8.8%

결과 : 통일의 관심도는 1,2차 모두 ‘관심이 있는 편이다’가 가장 높았으며 1차(58.5%)에 비해 2차(59.6%)에서 관심도가 다소 높아졌다. 반면, 전혀 관심이 없는 비율도 2차에서 약간(0.6%)늘어났다.

(2)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매우 필요하다		대체로 필요하다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전교생	15.0%	15.0%	48.0%	53.0%	30.0%	24.0%	6.7%	7.0%

결과 :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1차(63%), 2차(68%)로 전체적으로 과반수 이상이 필요하다고 느꼈으며 1차에 비해서 2차 비율이 약 5% 높아졌다.

(2-1)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분	군사비 등 분단에 따른 비용감소		역사적으로 한민족이었으므로		전쟁의 불안감 감소		이산가족 문제해결		국력 강화		북한관광 자원		일자리증가		기타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전교생	16%	29%	13%	16%	40%	24%	9%	11%	15%	13%	1.6%	2.1%	2.3%	2.1%	3.2%	2.2%

결과 : 2번 항목에서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에게 통일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를 물어보니 1차에서 '전쟁의 불안감 감소'가 40%로 가장 높았고, 2차에서는 '군사비 등 분단에 따른 비용감소'가 29%로 가장 높았고 '전쟁의 불안감 감소'가 24%로 뒤를 이었다. 또한 1차에 비해 '군사비 등 분단에 따른 비용감소' 때문에 통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2차에서 약 13% 증가했다.

(2-2)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구분	통일비용 등 경제적부담		언어,문화적차이		공산주의 체제의 거부감		사회혼란 우려		기타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전교생	9.1%	13%	13%	19%	25%	24%	44%	39%	8.2%	4.7%

결과 : 2번 항목에서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니 1차에선 사회혼란우려(44%)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2차에서도 역시 같은 항목이 39%로 가장 높았다.

3. 통일 및 북한 관련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얻으십니까?

구분	학교수업		교과서/참고서적		TV/라디오		인터넷		신문/잡지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전교생	38%	56%	3.2%	4.0%	30%	20%	25%	15%	2.1%	2.3%

구분	부모/친구/주변인		정부홍보물		시민,종교단체홍보		기타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전교생	1%	0.8%	0.4%	1%	0.2%	0.7%	0.8%	0.3%

결과 : 학생들이 통일 및 북한 관련 정보를 얻는 방법은 1,2차 모두 학교수업에서 얻는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1차(38%)에 비해 2차(56%)때 약 18% 상승한 것으로 보아 학교통일교육에서 많은 정보를 얻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뒤로 1,2차 모두 TV나 라디오를 통해 얻는다는 비율이 높았다.

4. 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핵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		통일비용 등 경제적부담		남북한 문화적 차이/갈등		주변 국가들의 경계		국민들의 통일필요성 의식부족		기타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전교생	58.0%	45.0%	7.6%	11.0%	18.0%	23.0%	5.5%	6.5%	8.4%	14.0%	2.3%	1.7%

결과 : 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1,2차 모두 ‘핵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라고 생각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1차(58%)에 비해 2차(45%)때에 약 13%정도가 감소했다. 또한 통일비용 등의 경제적 부담 그리고 남북한의 문화적 차이, 갈등 등이 통일의 장애요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차에 비해 2차 때에 약간 올라갔다.

5. 북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구분	매우 긍정적으로		대체로 긍정적으로		대체로 부정적으로		매우 부정적으로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학년	7.3%	6.0%	20.0%	24.0%	56.0%	56.0%	17.3%	14.3%

결과 : 북한에 대한 인식은 1,2차 모두 ‘대체로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긍정적이라는 의견은 1차 때 27.3%, 2차 때 30.0%로 학생들은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임을 알 수 있었다.

6. 북한주민의 현재 생활상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구분	매우 잘 알고 있다		대체로 알고 있는 편이다		대체로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전교생	6.6%	7.1%	55.0%	54.0%	34.0%	33.0%	4.8%	6.3%

결과 : 북한주민의 현재 생활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2차 모두 과반수를 넘었으며 1차(61.6%), 2차(61.1%)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7. 학교에서 받은 통일 및 북한 관련 교육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구분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이다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학년	7.1%	11.0%	24.0%	24.0%	57.0%	51.0%	8.4%	9.2%	3.6%	4.8%

결과 : 학교에서 받은 통일 및 북한 관련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보통이다’이상의 비율이 1차(88.1%), 2차(86.0%) 의 만족도를 보였다.

VI. 요약 및 결론

1. 요약

통일준비를 위한 관심도고취와 통일역량배양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교육활동)을 통한 방안을 모색하여 왔다. 이를 위한 과제 6가지 영역을 설정하여 과제별 실천을 통하여 노력하여 왔다.

- 첫째, 학생들의 통일관심 및 의지 고취와 통일역량배양을 위하여 교사들의 통일 및 북한관련 지식을 높인다.
- 둘째, 학생들에게 올바른 국가관과 안보관을 확립하게 한다.
- 셋째, 학생들의 통일관심도 고취와 통일당위성 교육을 위하여 다양한 통일교육 활동을 전개한다.
- 넷째, 다양한 체험활동과 행사를 통하여 통일대비 및 역량배양, 민족공동체의식을 함양하게 한다.
- 다섯째, 통일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교내 통일교육 환경을 조성토록 한다.
- 여섯째, 서울통일관운영을 통하여 학생 및 학부모, 주민들에게도 통일교육 및 견학을 실시하여 통일의지와 통일 분위기를 조성, 활성화하는 역할을 한다.

상기 실천과제 중에서 학생들에게 통일관심도 고취와 통일역량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사들의 역할이 지대하므로 교사들에 대한 통일과 북한관련 지식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었다. 특히 강사초빙특강을 실시하였으며, 전교사의 전교과목을 통하여 수업 지도 시 통일관련 내용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학습지도안에 통일관련 내용을 작성토록 하였으며, 학생들의 모든 통일교육 활동에 교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도가 동반되었다.

우리학생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올바른 국가관과 안보관을 확립시키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상징물(태극기, 애국가, 무궁화)과 정통성을 올바로 알게 지도하였으며, 특히 수시 안보현장견학 및 체험의 기회를 통하여 올바른 국가관 및 안보관을 갖도록 하였다.

학생들에게 통일관심도 고취와 통일당위성 교육을 위하여 다양한 통일교육을 전개하였는데 특히 그중에서 전교생이 통일노트작성을 통하여 통일관심도 고취와 통일 및 북한관련 지식을 배양시켰으며, 아울러 통일기금조성활동을 통하여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데 관심을 고취시키기도 하였다.

통일교육의 가장 효과 있는 프로그램은 현장체험견학이므로 정부, 통일단체, 교육청에서의 실시하는 현장체험교육에 적극적인 참여와 아울러 본교자체 계획에 의하여서도 다양한 현장체험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통일관심과 의지를 고양시켰다. 뿐만 아니라 탈북주민들의 만남을 통한 눈높이 통일교육, 서울지역 통일 글짓기, 전국통일퀴즈왕 선발대회, 통일 박람회등 다양한 통일행사를 통해서 교육적인 효과를 배가시키고 있다.

학교통일교육은 학교에서의 통일교육 환경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본교는 통일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서울통일관의 상설 통일안보전시관을 운영함으로써 수시로 통일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있으며 교내의 통일교육 환경을 다양하게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통일관심도 고취와 통일필요성, 통일역량을 배양시키고 있다.

학교 통일 홈페이지와 서울통일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학교 뿐만 아니라 타학교, 학생, 일반시민들을 위하여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본교 학부모에게는 수시로 통일교육과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통일교육을 연계하고 있으며, 특히 본교가 운영주체인 서울통일관을 통해 많은 학교 학생들이 견학 방문하여 다양한 통일교육을 실시, 통일교육의 분위기와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실시하게 된 통일교육의 특징적인 프로그램 중 하나는 ‘모바일 통일교육’이다. 현대사회에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가까이 접하고 있는 소지품인 스마트폰을 통해 보다 손쉽게 통일 및 북한관련 상식을 익히게 함으로써 일상생활 속에서 통일교육이 녹아들 수 있도록 교육하였다. 또한 본교의 이러한 통일교육이 바탕으로 되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전국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확대 보급되었으면 한다.

통일준비를 위한 관심도 고취와 통일역량배양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교육활동)을 실시하여 왔고, 전체적으로 학년 초보다 학년말에서의 교육을 통하여 많은 상승의 폭은 아니지만 교육적인 효과(통일관심도 등)가 있었다. 또한 학교 통일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학교에서의 다양한 통일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고 관심도 및 통일의 당위성을 알리는 교육의 지속이 요구되는 바이다.

2. 결론

통일은 언제 올지 모른다. 따라서 언제 올지 모르는 통일에 대해서 항상 준비와 대비를 해야 한다는 취지와 목적에서 본교에서는 통일교육 실행목표를 ‘통일준비를 위한 관심도 고취와 통일역량배양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교육활동)방안모색’이라는 주제를 선정하여 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6가지 영역을 가지고 운영, 활동하여 왔다.

본교는 1996년부터 다양한 통일교육 방안을 실시하여 왔던 바, 상당한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확인되어 지금까지 실시하여 왔고,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 보완하여 지금까지 통일교육 활동의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고 운영하여왔다.

그런데 오늘날의 통일교육은 전체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침체기에 있다. 더욱이 북한핵문제 등 국제적, 정치적 남북관계 등의 요인들에 의하여 통일교육 시범 학교를 제외하고는 학교통일교육은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학생들도 이러한 국제, 국내외적 통일 환경에 영향을 받아 통일에 관심이 없고 통일이 안 되었으면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오늘날 학생들은 본인에 관계되는 일이 아니면 특히 대학수능시험과 수행평가 등의 대학진학과 관련된 일이 아니면 아예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통일관심도 고취, 통일의지배양과 통일준비를 위한 역량배양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올바른 국가관, 튼튼한 안보관, 객관적인 북한관, 미래지향적인 통일관을 갖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본교는 학생들에게 통일에 관심을 갖게 하고 통일역량을 배양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개발을 위하여 연구하고 개발하여 본교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선도적인 역할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통일교육은 학교, 학생, 학부모, 사회, 국가 모두의 관심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문제점 및 제언

가. 운영상의 문제점

- (1) 북한 핵문제, 천안함 폭침사건, 연평도무력도발 사태, 최근 김정은의 도발 발언 등으로 국내외적 사회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 및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학생들에게도 통일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는 것과 통일의 당위성을 교육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

- (2) 대내외적인 주변 정세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통일교육의 방향 설정 등에 애로 사항이 있다.
- (3) 전반적인 학교통일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 한 학교통일 교육 활성화는 어려움이 있다. (학생들 무관심-수능시험에만 관심).
- (4) 통일관심도 고취와 통일교육 활성화 및 확산, 분위기조성을 위한 통일교육을 위한 적극적인 행·재정적인 지원(행사 및 체험활동, 시설확보 등)이 필요하다.
- (5) 전교사의 통일에 관한 관심도 고취와 적극적인 참여, 범교과적인 연계지도가 필요하다.

나. 제언

- (1) 통일교육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 통일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행·재정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 (2)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정보 교환을 위해 지금 보다는 더 많은 학교를 순번으로 통일시범학교로 지정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지역별 초,중,고 2곳 이상)
- (3) 통일교육시범학교 실시에 대한 배려 등이 있었으면 한다. (해외탐방-독일, 베트남 등)
- (4) 매스컴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프로그램 편성과 방송, 정부 주최의 통일행사를 수시 개최하여 학생들에게 통일관심도 고취와 통일분위기 확산에 힘써야 할 것이다.
- (5) 통일교육 전문교사 배출하여 일선현장에 활용한다.
- (6) 통일교육 우수학교를 선정하여 표창하고 많은 홍보를 통해 알려 타 학교에서 관심을 갖고 실시하도록 한다.
- (7)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에 대한 메리트 제도 (특히 사립고)가 절실히 필요하다.

부 록

부록1) 학생 통일의식조사 설문지(1차, 2차 동일)

통일교육시범학교 설문지

본 설문은 학생들의 통일과 북한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고 그 결과를 연구(시범)학교 운영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학생 여러분은 솔직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 및 북한관련 관심도(선택형)

번호	설문 문항	답변
1	통일에 및 북한문제에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갖고 계신지요?	① 매우 관심이 있다. ② 관심이 있는 편이다. ③ 관심이 없는 편이다. ④ 전혀 관심이 없다.
2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하다. ☞ 문2-1번으로 ② 대체로 필요하다. ☞ 문2-1번으로 ③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 문2-2번으로 ④ 전혀 필요하지 않다. ☞ 문2-2번으로
2-1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2번에서 ①②번 응답자만)	① 군사비 등 분단에 따른 비용을 줄일수 있기 때문에 ② 역사적으로 한민족이었기 때문에 ③ 전쟁위협 등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④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⑤ 우리나라의 국력이 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⑥ 북한의 여러 관광지들을 가 볼 수 있어서 ⑦ 일자리가 늘어나 나의 취업 기회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⑧ 기타()
2-2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2번에서 ③④번 응답자만)	① 통일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커서 ② 언어, 문화적 차이 등 하나의 민족이란 느낌이 들지 않아서 ③ 공산주의 체제에 대한 거부감이 커서 ④ 사회가 혼란스러워 질 것 같아서 ⑤ 기타()
3	통일 및 북한과 관련한 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얻으십니까?	① 학교 수업 ② 교과서/참고서적 ③ TV/라디오

번호	설문 문항	답변
	④ 인터넷 ⑤ 신문/잡지 ⑥ 부모/친구 등 주변사람 ⑦ 정부의 홍보물(책자, 포스터 등) ⑧ 시민단체, 종교단체의 홍보 ⑨ 기타()	
4	통일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① 핵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 ② 통일비용 등 경제적 부담 ③ 남북한 문화적 차이/갈등 ④ 주변 국가들의 경계 ⑤ 국민들 사이에 통일이 필요하다는 의식부족 ⑥ 기타()	
5	북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요? ① 매우 긍정적으로 ② 대체로 긍정적으로 ③ 대체로 부정적으로 ④ 매우 부정적으로	
6	북한주민의 현재 생활 상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② 대체로 알고 있는 편이다. ③ 대체로 모르는 편이다. ④ 전혀 모른다.	
7	학교에서 받은 통일 및 북한 관련 교육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대체로 만족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통일 관련 수업을 계속 받는다면 어떤 내용을 알고 싶나요?(서술형)

통일교육을 받고 난 후 소감(느낌)을 적어주세요.(서술형)

-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2) 남북한 언어비교

월별	주	남북한 언어비교			
		남한(표준어)	북한(문화어)	남한(표준어)	북한(문화어)
3월	1주	가감법	더덜기법	각색	옮겨지음
		가사	집안거두매	가위바위보	가위주먹
	2주	감미료	단맛감	거북	거부기
		거위	게시니	검산	셈따지기
	3주	경보	걸기경기	경사각	비탈각
		계란	닭알	고물	보숭이
	4주	녹차	푸른차	되넘기	되거리
		로터리	도는네거리	벼락부자	갑작부자
	5주	에피소드	결이야기	구석구석	고삐고삐
		아파트	고층살림집	낮선사람	난데손님
4월	1주	볼펜	원주필	수제비	뜨더국
		수화	손가락말	애연가	담배질꾼
	2주	천막	풍막	최대공약수	연속나눔셈
		캠페인	깜빠니아	트랙터	뜨락또르
	3주	공무원	정무원	튜브	뜯주머니
		공휴일	휴식날	교환법칙	바꿈법칙
	4주	군인가족	후방가족	국도	나라길
		근사값	가까운값	근호	뿌리기호
	5주	대각	맞은각	단비	꿀비
		입구	고입	도시락	곽밥
5월	1주	대각	맞은각	단비	꿀비
		양계장	닭공장	압정	납작못
	2주	도착하다	가닿다	등식	같기식
		라디오	라지오	마구잡이	마구다지
	3주	마찰음	스침소리	드문드문	도간도간
		맛별이가정	직장세대	만만하다	만문하다
	4주	명령문	시킴문	무선호출기	주머니종
		문맹자	글장님	물구나무서기	꺼꾸로서기
6월	1주	물컵	물고뿌	몽게구름	더미구름
		미역국을 먹다	락제국을먹다	밑도끝도없이	머리꼬리없이
	2주	방청소	방거두매	배우자	짝씨
		백미러	후시창	버튼	자동단추
	3주	별집	별둥지	베란다	내밈대
		부등호	안같기부호	부종	붓기

월별	주	남북한 언어비교			
		남한(표준어)	북한(문화어)	남한(표준어)	북한(문화어)
	4주	분유	가루젓	분풀이	뺨풀이
		블로킹	막기	빠기	덜기
	5주	사례발표회	경험교환회	사무직근로자	근로인테리
		사인	수표	산책로	거님길
7월	1주	새참	일참	새치기	사이치기
		세탁소	빨래집	소괄호	작은묶음표
	2주	소매치기	따기군	소수	씨수
		손가방	들가방	수면제	잠약
	3주	숙달	익달	복습	퇴익힘
		숨바꼭질	숨을내기	스위치	전기여닫개
	4주	천연기념물	자연기념물	지방	기름
		언덕	잔매	소수	씨수
8월	3주	스커트	양복치마	스크랩북	오림책
		스타플레이어	기동선수	슬리퍼	끝신
	4주	시비걸다	걸고들다	시신경	보는신경
		식목일	식수절	실격	자격잃기
	5주	쓸개	열주머니	아가리	아구리
		아니꼽다	야시꼽다	아리송하다	새리새리하다
9월	1주	아찔하다	아질하다	안쓰럽다	안슬프다
		알다	료해하다	소등	등불
	2주	유모차	애기차	애니메이션	그림영화
		앵무새	팔팔아	야외무대	바깥무대
	3주	잔소리	진소리	양배추	가두배추
		양성모음	밝음모음	어긋나기	어기나기
	4주	어림짐작	어방치기	환기	공기같이
		에스컬레이터	계단승단기	에필로그	맺음이야기
	5주	역산	거꿀셈법	연애결혼	맞혼인
		염색	물들이기	영락없다	락자없다
	10월	1주	예방	미리막이	오전
오후			낮뒤	외래어	들어온 말
2주		우울증	슬픔증	우유	소젖
		운행표	다님표	위통	위아픔
3주		과거	어제날	은닉죄	숨긴죄
		은유법	말바꿈법	음지	능쪽
4주		이제	인차	인상	끌어올리기

월별	주	남북한 언어비교			
		남한(표준어)	북한(문화어)	남한(표준어)	북한(문화어)
	5주	인수인계	넘겨주고받기	인용어	들임말
		입장표	나들표	입주권	입사권
		수양	자체수양	자수	수놓이
11월	1주	자신감	자신심	장신구	치레거리
		전기밥솥	전기밥가마	접두사	앞붙이
	2주	접속사	이음말	정수	옴근수
		조마조마하다	오마조마하다	중착역	마감역
	3주	주스	과일단물	주차장	차마당
		주택	살림집	줄자	도래자
	4주	증인	증견자	지수	어깨수
		지혈제	피땀이약	진열대	벌림대
5주	집합	모임	창의	창발	
	창자	뱀	챙피하다	열스럽다	
12월	1주	틀림없다	거의없다	표절	도적글
		과지	헌종이	판정승	점수이
	2주	페이지	폐지	종종	두간두간
		폴장	물공원	꽃내기	생둥이
	3주	책상다리	올방자	커튼	창가림막
		치통	이썬기	탁상일기	탁상일력
4주	탄성	툼성	탄젠트	탕겐스	
	탈구	빠어김	태엽	태공	
2월	1주	터널	차굴	툽밥	나무밥
		퇴비	물거름	튀김	튀기
	2주	필통	필갑통	한약	동약
		합성어	합친말	혈액형	피형
3주	효과를 내다	은(을)내다	후광	빛너울	
	회전의자	둥글의자	활용형	풀이형	

부록3) 통일퀴즈 문제 및 정답

월	통일퀴즈	정답
3월	1991년 12월에 남북한 총리간 합의한 문서는 무엇일까요?	남북기본합의서
4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무엇이라 할까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5월	남북한 9도는 각각 어떻게 될까요?	남:강원도, 경기도,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제주도/북: 함경남북도, 자강도, 양강도, 평안남북도, 황해남북도, 강원도
6월	6.25 전쟁 UN 군지원참전국 16개국과 의료지원국가 5개국가는 각각 어느 국가일까요?	참전국-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콜롬비아, 그리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터키, 벨기에,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에티오피아 의료지원국-이탈리아, 인도,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7월	남북한 최초로 합의된 문서는 무엇일까요?	7.4 남북공동성명
9월	금강산의 계절별 명칭은?	봄 - 금강산 여름 - 봉래산 가을 - 풍악산 겨울 - 개골산
10월	NLL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북방한계선
11월	경의선, 경원선은 각각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말합니까?	서울 ~ 신의주, 서울 ~ 원산
12월	남북한 통일방안은 각각 무엇일까요?	남한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북한 :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2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 회담이 있다. 6자회담 참여국가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남·북한

부록4) 남북한 통일관련 기초상식

월	주	내 용
3월	1주	남북한 학년 시작 : 남한 - 3월 2일 북한 - 4월 1일
	2주	남북한 행정구역 남한 : 강원도, 경기도,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제주도 북한 : 함경남북도, 평안남북도, 황해남북도, 자강도, 양강도, 강원도
	3주	남북한 경제제도 남한 : 자본주의 시장경제제도 북한 : 중앙명령계획경제제도
	4주	남북한 국회관련 남한 : 국회 - 임기 - 4년, 30 - 70만 명에 1명 선출 - 299명 북한 : 최고인민회의 - 임기 - 5년, 3만 명에 1명 선출 - 687명
	5주	남북한 지하철 남한 : 10 - 30m 깊이 지하철 북한 : 100 - 150m 깊이 지하철
4월	1주	남북한은 1991년 9월 17일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다.
	2주	남북한 애국가: 남북한 애국가 각각 따로 있다. 남한 - 안익태작곡 북한 - 김원균작곡, 박세영작사
	3주	남북한 통일방안 남한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북한 :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4주	남북한 면적 남한 - 99,392 km^2 북한 - 122,762 km^2
	5주	남북한정부수립일 남한 : 1948년 8월 15일 북한 : 1948년 9월 9일
5월	1주	남북한 명절 남한 : 민속명절 북한 : 민속명절, 사회주의명절이 있다.
	2주	남북한주민이 갖는 신분증 - 남한 : 주민 등록증, 북한 : 공민증
	3주	1990년 10월 3일 동서독이 통일되었다(서독이 동독을 흡수통일)
	4주	남북한 영아 사망률 남한 : 7 (1,000명당 5세 이하 사망자수) 북한 : 39
6월	1주	남북한 선거권 남한 : 만 19세 이상 북한 : 만 17세 이상
	2주	북한의 탁아소 : 3개월 - 2년사이(약 27,000개)
	3주	남북한 언어 남한 : 서울표준어 북한 : 문화어 - 평양말에 함경도 사투리 가미
	4주	1953년 7월 27일- 남한 : 휴전일, 북한 :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일
	5주	유엔 기구 중 안전보장이사회 상임 이사국은 5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7월	1주	남북한 선거구기준 남한 :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감안 북한 : 단순히 인구만으로 설정
	2주	남북한 수도면적 및 인구 남한 - 서울 면적 : 605 km^2 , 인구 : 989만명 북한 - 평양 면적 : 2,100 km^2 , 인구 : 330만명
	3주	남북한 국보 1호 남한 : 남대문, 북한 : 평양성

월	주	내 용
	4주	북한의 화폐개혁 - 5차 개혁(2009.1.30)
8월	3주	북한이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만든법 : 합영법(1984년 9월)
	4주	남북한 발전량 : 남한 - 4031억kwh, 북한 - 237억kwh
	5주	경의선 : 서울 - 신의주, 경원선 : 서울 - 원산
9월	1주	남북한 대외적인 국가공식명칭 : 남한 - 대한민국(ROK) 북한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
	2주	남북한 족보 남한 : 있다, 북한 : 없다
	3주	남북한 국가기구 - 남한: 회/ 정부/ 법원/, 북한: 최고인민회의/ 내각/ 중앙재판소
	4주	남북한 국기 남한 : 태극기 북한 : 인공기(홍람오각별기)
	5주	남북한 장성계급 : 남한 : 대장-중장-소장-준장 북한 : 대장-상장-중장-소장
10월	1주	남북한국화(나라꽃) 남한 : 무궁화 북한 : 목란
	2주	북한에서 경사진 곳에 조성한 경작지를 '다락밭'이라고 한다.
	3주	NPT - 핵 확산 금지 조약기구
	4주	IAEA - 국제 원자력 기구
	5주	NLL - 1953년 8월 30일에 정한 사실상의 해상분계선을 말한다.
11월	1주	남북한정부수립일 남한 : 1948년 8월 15일 북한 : 1948년 9월 9일
	2주	남북한헌법공포일 남한 : 1948년 7월 17일 (제헌절) 북한 : 1948년 12월 17일 (헌법절)
	3주	남북한 연호사용 남한 : 서기 사용 북한 : 주체연호 사용
	4주	남북한 최고지도자 명칭 : 남한 - 대통령 북한 - 국방위원장, 총비서, 최고사령관
	5주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 요덕수용소에 20만명이 강제 수용되어 있다.
12월	1주	남북한 군사력 남한 : 현역 67만5천명, 예비역 304만명 북한 : 현역 139만명, 예비역 770만명
	2주	남북한 실업계 고등학교 남한 : 전문계 고등학교 있다 북한 : 없다
	3주	북한의 주민 성분 :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
	4주	남북한 정당 남한 : 복수정당제 (다당제) 북한 : 일당제(공산당)

부록5) 통일퍼즐문제 및 정답

■ 3월 통일퍼즐 문제 ■

1	2				3	
				4		
5		6				7
8				9	10	
			13			
	12		13			14
15					16	

가로 열쇠		세로 열쇠	
1	우리나라 대외공식명칭	2	서울에 흐르는 강
3	북한의 직할시 중의 하나로 인삼이 유명함	4	남한 냉장고의 북한말은
8	우리조상대대로 슬픈 사연이 깃든 노래	5	북한에서 3세까지 아이들을 맡기는 곳
9	우리나라 볶음밥의 북한말	6	부여, 고구려, 삼한 때 있었던 나라
13	땅속에 묻어 두었다가 폭발시키는 폭약	7	남한 도시락의 북한말
15	북한에서 주민들이 갖고 싶은 물건을 말한다.	10	생김새나 태도가 어엿하고 당당함
16	남한말 슬리퍼의 북한말	12	우리나라 군 계급중 중장 위의 계급
		13	케어 알아내는 기계
		14	서로 주고받는 편지를 말한다.

■ 3월 통일퍼즐 정답 ■

대	한	민	국		개	성
	강			냉		
탁		낙		동		곽
아	리	랑		기	름	밥
소			탐		눔	
	대		지	뢰		서
오	장	육	기		끝	신

가로 열쇠		세로 열쇠	
1	우리나라 대외공식명칭	2	서울에 흐르는 강
3	북한의 직할시 중의 하나로 인삼이 유명함	4	남한 냉장고의 북한말은
8	우리조상대대로 슬픈 사연이 깃든 노래	5	북한에서 3세까지 아이들을 맡기는 곳
9	우리나라 볶음밥의 북한말	6	부여, 고구려, 삼한 때 있었던 나라
13	땅속에 묻어 두었다가 폭발시키는 폭약	7	남한 도시락의 북한말
15	북한에서 주민들이 갖고 싶은 물건을 말한다	10	생김새나 태도가 어엿하고 당당함
16	남한말 슬리퍼의 북한말	12	우리나라 군 계급중 중장 위의 계급
		13	케어 알아내는 기계
		14	서로 주고받는 편지를 말한다.

■ 4월 통일퍼즐 문제 ■

1		2		3		4
5	6		7			
					8	
9			10			13
		12				
				13		

가로 열쇠		세로 열쇠	
1	우리나라 가장 유명한 명산	1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
3	남한 진돗개에 비견한 북한개	2	소풍의 북한말
5	가계의 북한말	3	손으로 바람을 내어 소리 내는 건반 악기
9	짠맛을 내는 물질	4	금강산의 겨울을 일컫는 산
10	북한의 정치사상	6	상여금의 북한말
12	한방의 북한말	7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주의
13	먼 친척의 북한말	8	북한말 갑작죽음의 남한 말
		9	레코드의 북한말
		12	북한말 석전의 남한 말
		13	북한 계급 중 대장 밑의 계급

■ 4월 통일퍼즐 정답 ■

금	강	산		풍	산	개
연		보		금		골
가	가		민			산
	급		주		급	
소	금		주	체	사	상
리		동	의			장
판		전		결	찌	

가로 열쇠		세로 열쇠	
1	우리나라 가장 유명한 명산	1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
3	남한 진돗개에 비견한 북한개	2	소풍의 북한말
5	가계의 북한말	3	손으로 바람을 내어 소리 내는 건반 악기
9	짠맛을 내는 물질	4	금강산의 겨울을 일컫는 산
10	북한의 정치사상	6	상여금의 북한말
12	한방의 북한말	7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주의
13	먼 친척의 북한말	8	북한말 갑작죽음의 남한 말
		9	레코드의 북한말
		12	북한말 석전의 남한 말
		13	북한 계급 중 대장 밑의 계급

■ 5월 통일퍼즐 문제 ■

1				2		3	
			4				
5					6		7
8		9			10	13	
				12			
	14		14				15
16						17	

가로열쇠		세로열쇠	
1	이란 옆에 있는 테러 지원 국가	1	이산가족의 만남
2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정책	2	동해시에 있는 시
4	왕의 무덤	3	발해를 세운 사람
5	가정주부의 북한말	4	한창 성함
6	환영하는 식	7	의식주의 북한말
8	등교시간의 북한말	9	명령의 북한말
10	경의선은 서울에서 어디까지	12	북한의 주민들이 갖는 증명서
14	북한의 화폐이름	13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일어나는 민병
16	북한의 언어를 말하기도 한다	14	전쟁의 반대말
17	북한말 공기 식힘의 남한 말	15	남한의 정부에 해당하는 북한정 치기구

■ 5월 통일퍼즐 정답 ■

이	라	크		강	성	대	국
산			왕	릉		조	
가	두	녀	성		환	영	식
족							의
상	학	시	간		신	의	주
봉		킴		공		병	
	평		인	민	폐		내
문	화	어		증		냉	각

가로열쇠		세로열쇠	
1	이란 옆에 있는 데려 지원 국가	1	이산가족의 만남
2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정책	2	동해시에 있는 시
4	왕의 무덤	3	발해를 세운 사람
5	가정주부의 북한말	4	한창 성함
6	환영하는 식	7	의식주의 북한말
8	등교시간의 북한말	9	명령의 북한말
10	경의선은 서울에서 어디까지	12	북한의 주민들이 갖는 증명서
14	북한의 화폐이름	13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일어나는 민병
16	북한의 언어를 말하기도 한다	14	전쟁의 반대말
17	북한말 공기 식힘의 남한 말	15	남한의 정부에 해당하는 북한정치기구

■ 6월 통일퍼즐 문제 ■

1		2		3			4
						5	
	6		7				
8						9	
			10		13		
		12					
	13				14	15	
		16				17	

가로 열쇠		세로 열쇠	
1	남북정상회담의 만남	2	전쟁을 잠시 중지하는 것
5	열등의 반대어	3	함경북도에 있는 지역이름
8	공산주의와 비슷한 용어	4	우리의 중고등학교에 해당되는 북한 학교
9	퇴학의 북한말	6	뉘우치는 것
10	북한말 차마당의 남한 말	7	경의선은 서울에서 이곳까지
13	고려시대의 문헌공도로 대학자임	8	북한에서의 사회주의 노동청년동맹의 약칭
14	북한에서 노동당의 일원	12	우리나라 6월 6일을 말한다.
16	괜찮다의 북한말	13	농민시장이라고 함
17	김일성을 지칭하기도 한다	15	북한에서의 대원수 다음 계급

■ 6월 통일퍼즐 정답 ■

남	북	정	상	회	담		고
포		전		령		우	등
	후		신				중
사	회	주	의			출	학
로			주	차	장		교
청		현			마		
	최	충			당	원	
		일	없	다		수	령

가로 열쇠		세로 열쇠	
1	남북정상의 만남	2	전쟁을 잠시 정지하는 것
5	열등의 반대어	3	함경북도에 있는 지역이름
8	공산주의와 비슷한 용어	4	우리의 중고등학교에 해당되는 북한 학교
9	퇴학의 북한말	6	뉘우치는 것
10	북한말 차마당의 남한 말	7	경의선은 서울에서 이곳까지
13	고려시대의 문헌공도로 대학자임	8	북한에서의 사회주의 노동청년동맹의 약칭
14	북한에서 노동당의 일원	12	우리나라 6월 6일을 말한다
16	괜찮다의 북한말	13	농민시장이라고 함
17	김일성을 지칭하기도 한다.	15	북한에서의 대원수 다음 계급

■ 7월 통일퍼즐 문제 ■

1	2		3				4
						5	
				6	7		
8		9			10		
							13
12			14			14	
					15		
16					17		

가로 열쇠		세로 열쇠	
1	7.4남북공동성명 원칙에는 평화, 민족대단결, 그리고 이것임	2	북한의 유일한 사상(김일성사상)
3	전쟁의 반대어	3	북한의 수도
5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일	4	금강산이 있는 도
6	달을 옮기어 넘기는 것을 말한다	7	세계축구대회를 말한다
8	정상들이 만나는 회담	9	예순살을 말하기도 한다
10	서양음악을 연주하는데 쓰이는 북	12	지수의 북한말(수학용어)
12	다 자란 사람을 말한다	13	관광버스의 북한말
13	코로나 말을 수 있는 기운	14	배웅하다의 북한말
14	운동, 영화 등을 구경하는 것	15	책을 읽는 것
16	서명하다의 북한말		
17	마음에 드는 행동으로 접대하는 것		

■ 7월 통일퍼즐 정답 ■

자	주		평	화			강
	체		양			소	원
	사			이	월		도
정	상	회	담		드	럼	
		갑			컵		유
어	른		냄	새		관	람
깨			내		독		빠
수	표	하	다		서	비	스

가로 열쇠		세로 열쇠	
1	7.4남북공동성명 원칙에는 평화, 민족대단결, 그리고 이것임	2	북한의 유일한 사상(김일성사상)
3	전쟁의 반대어	3	북한의 수도
5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일	4	금강산이 있는 도
6	달을 옮기어 넘기는 것을 말한다.	7	세계축구대회를 말한다.
8	정상들이 만나는 회담	9	예순살을 말하기도 한다.
10	서양음악을 연주하는데 쓰이는 북	12	지수의 북한말(수학용어)
12	다 자란 사람을 말한다	13	관광버스의 북한말
13	코로 말을 수 있는 기운	14	배웅하다의 북한말
14	운동, 영화 등을 구경하는 것	15	책을 읽는 것
16	서명하다의 북한말		
17	마음에 드는 행동으로 접대하는 것		

■ 9월 통일퍼즐 문제 ■

1	2		3		4		
							5
		6		7			
8		9				10	
				13	12		
		13			14		
	15			16			17
18				19			

가로열쇠		세로열쇠	
1	9월중 부산에서 열리는 아시아 경기	2	소풍의 북한말
7	분필로서 필기할 때 사용하는 판	3	명령의 북한말
8	남한초등학교에 해당되는 북한 학교	4	알림판의 남한 말
9	전기로 가는 열차	5	코너키의 북한말
10	북한 따져 읽기의 남한 말	6	등교시간의 북한말
12	지난달의 북한말	8	북한의 국기
13	품삯의 북한말	13	1990년 10월 3일 통일한 나라
17	1975년 4월 30일 무력통일된 나라	14	북한의 학습장의 남한 말(영어)
18	북한의 명절은 사회주의 명절과 또 다른 명절은?	15	국가 구성요소중의 하나
		16	관계를 끊음

■ 9월 통일퍼즐 정답 ■

부	산	아	시	안	계	임	
	책		김		시		구
		상		칠	판		석
인	민	학	교			전	차
공		시		정	독		기
기		간	달		일	품	
	노			국			단
베	트	남		민	속	명	절

가로열쇠		세로열쇠	
1	9월중 부산에서 열리는 아시아 경기	2	소풍의 북한말
7	분필로서 필기할 때 사용하는 판	3	명령의 북한말
8	남한초등학교에 해당되는 북한 학교	4	알림판의 남한 말
9	전기로 가는 열차	5	코너킥의 북한말
10	북한 따져 읽기의 남한 말	6	등교시간의 북한말
12	지난달의 북한말	8	북한의 국기
13	품삯의 북한말	13	1990년 10월 3일 통일한 나라
17	1975년 4월 30일 무력통일된 나라	14	북한의 학습장의 남한 말(영어)
18	북한의 명절은 사회주의 명절과 또 다른 명절은?	15	국가 구성요소중의 하나
		16	관계를 끊음

■ 10월 통일퍼즐 문제 ■

1	2			3		4	
			5			6	7
	8	9			10		
					13	12	
13			14	15		16	17
		18					
19					20		

가로열쇠		세로열쇠	
1	9월21일 홍콩식 경제특구로 지정 한 북한 지역	2	북한말 식의주의 남한 말은
3	서울에서 신의주까지의 철도이름	4	학문을 닦는 사람
6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묘한 방법	5	성적이 뛰어남. 열등의 반대말
8	북한 공민증에 해당되는 남한의 신분증	7	먼 친척의 북한말
13	북한 군 계급의 일종으로 김정일 을 부르기도 하는 계급이다	9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
13	남한 말 합성의 북한말은	10	사람을 늘임
14	문제나 물음을 냄	12	남한 말 서명의 북한말은
16	남한 뜻대의 북한말은	13	1984년 북한이 외국자본을 유치 하기 위하여 만든 법
18	금강산의 또 다른 가을이름	14	강원도에 있는 이름 있는 산
19	언제 어디서나 통할 수 있는 변함 없는 이치를 말한다	15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지역
20	북한의 국기이름	17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변기

■ 10월 통일퍼즐 정답 ■

신	의	주		경	의	선	
	식		우			비	결
	주	민	등	록	증		찌
		주			원	수	
합	침		설	문		표	대
영		풍	악	산			변
법	칙		산		인	공	기

가로열쇠		세로열쇠	
1	9월21일 홍콩식 경제특구로 지정 한 북한 지역	2	북한말 식의주의 남한 말
3	서울에서 신의주까지의 철도이름	4	학문을 닦는 사람
6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묘한 방법	5	성적이 뛰어난. 열등의 반대말
8	북한 공민증에 해당되는 남한의 신분증	7	면 친척의 북한말
13	북한 군 계급의 일종으로 김정일 을 부르기도 하는 계급이다	9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
13	남한 말 합성의 북한말은	10	사람을 늘임
14	문제나 물음을 냄	12	남한 말 서명의 북한말은
16	남한 뜻대의 북한말은	13	1984년 북한이 외국자본을 유치 하기 위하여 만든 법
18	금강산의 또 다른 가을이름	14	강원도에 있는 이름 있는 산
19	언제 어디서나 통할 수 있는 변함 없는 이치를 말한다	15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지역
20	북한의 국기이름	17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변기

■ 11월 통일퍼즐 문제 ■

1	2		3			4
					5	
6			7			
		8			9	
10				13		
			12		13	14
15						

가로열쇠		세로열쇠	
1	전방155마일 지대 DMZ라고도 한다	2	물매의 북한말
5	잘잘못을 스스로 돌이켜 생각함	3	코치의 북한말
6	구매자가 여럿일 때 값을 가장 많이 부르는 사람에게 파는 일	4	1998년부터 내세우는 구호 (사상,정치,군사,경제대국)
7	경원선은 서울에서 어디까지	8	진찰 및 검사의 북한말
9	부시대통령은 어느 나라 지도자	9	장거리 공격무기
13	계급이 낮은 군인(사병)	10	2002. 10월에 북한에서 지정한 특별행정구
13	품삯의 북한말	12	산의 맨 꼭대기
15	북한에서 내세우는 유일사상	14	물품의 종류

■ 11월 통일퍼즐 정답 ■

비	무	장	지	대		강
	리		도		반	성
경	매		원	산		대
		검			미	국
신		병		병	사	
의			정		일	품
주	체	사	상			종

가로열쇠		세로열쇠	
1	전방155마일 지대 DMZ라고도 한다	2	몰매의 북한말
5	잘잘못을 스스로 돌이켜 생각함	3	코치의 북한말
6	구매자가 여럿일 때 값을 가장 많이 부르는 사람에게 파는 일	4	1998년부터 내세우는 구호(사상, 정치, 군사, 경제대국)
7	경원선은 서울에서 어디까지	8	진찰 및 검사의 북한말
9	부시대통령은 어느 나라 지도자	9	장거리 공격무기
13	계급이 낮은 군인(사병)	10	2002. 10월에 북한에서 지정한 특별행정구
13	품삯의 북한말	12	산의 맨 꼭대기
15	북한에서 내세우는 유일 사상	14	물품의 종류

■ 12월 통일퍼즐 문제 ■

1		2		3		4	
		5	6		7		8
9	10		13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가로열쇠		세로열쇠	
1	목도리의 북한말	1	북한의 나라꽃
3	사회주의국가의 경제제도	2	횡단보도의 북한말
5	좋은 일이 있는 징조	3	북한말 후어머니의 남한 말
7	북한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 동맹의 약칭	4	북한금호지역에 건설되고 있는 공사
9	물건을 사는데 드는 돈	6	북한국가명의 약칭
13	대표자를 뽑는 행위	8	함경북도 위치한 항구
13	핵으로 만든 무기	9	핵무기가 없는 것
15	북한의 금강산에서 온갖 형상을 나타내는 산	10	해야 할 일
17	학교에서의 규칙	12	남을 업신여기고 잘난체 함
18	포스터의 북한말	14	스타플레이어의 북한말
20	늘 푸른나무	16	등교시간의 북한말
21	지난달의 북한말	19	돈의 다른 말

■ 12월 통일퍼즐 정답 ■

목	수	건		계	획	경	제
란		능		모		수	
		길	조		사	로	청
비	용		선	거			진
핵	무	기		만	물	상	
화		등				학	칙
		선	전	화		시	
상	록	수		폐		간	달

가로열쇠		세로열쇠	
1	목도리의 북한말	1	북한의 나라꽃
3	사회주의국가의 경제제도	2	횡단보도의 북한말
5	좋은 일이 있는 징조	3	북한말 후어머니의 남한 말
7	북한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 동맹의 약칭	4	북한금호지역에 건설되고 있는 공사
9	물건을 사는데 드는 돈	6	북한국가명의 약칭
13	대표자를 뽑는 행위	8	함경북도 위치한 항구
13	핵으로 만든 무기	9	핵무기가 없는 것
15	북한의 금강산에서 온갖 형상을 나타내는 산	10	해야 할 일
17	학교에서의 규칙	12	남을 업신여기고 잘난체 함
18	포스터의 북한말	14	스타플레이어의 북한말
20	늘 푸른나무	16	등교시간의 북한말
21	지난달의 북한말	19	돈의 다른 말

■ 2월 통일퍼즐 문제 ■

1				2		3
4		5		6	7	
		8			9	10
	13			12		
13			14			
15				16		

가로열쇠		세로열쇠	
1	1991년 12월 13일 남북 총리간의 합의문서	1	미국노예전쟁을 말함
4	전쟁에 대한 기념비	2	북한에서 외국자본유치를 위한 법
6	재판을 하는 기관	3	북한말 수표, 남한 말
8	북한의 군 계급으로 대좌 (대령) 아래 계급	5	비상탈출구를 말함
9	북한의 우두머리, 너수라고도 한다	7	북한 김정일을 지칭하는 계급이기도 하다
13	2002년 월드컵경기	10	국가의 3요소 중 하나(국민, 주권)
14	그리는 것을 말함	12	게시판의 북한말
15	북한 고등중학교에서 대학으로 바로 가는 학생을 말함	13	거짓의 반대어
16	판가름의 북한말		

■ 2월 통일퍼즐 정답 ■

남	북	기	본	합	의	서
북				영		명
전	적	비		법	원	
쟁		상	좌		수	령
	축	구		알		토
정			그	림		
직	통	생		관	가	리

가로열쇠		세로열쇠	
1	1991년 12월 13일 남북 총리간의 합의문서	1	미국노예전쟁을 말함
4	전쟁에 대한 기념비	2	북한에서 외국자본유치를 위한 법
6	재판을 하는 기관	3	북한말 수표, 남한 말
8	북한의 군 계급으로 대좌(대령) 아래 계급	5	비상탈출구를 말함
9	북한의 우두머리, 뇌수라고도 한다	7	북한 김정일을 지칭하는 계급이기도 하다
13	2002년 월드컵경기	10	국가의 3요소 중 하나(국민, 주권)
14	그리는 것을 말함	12	게시판의 북한말
15	북한 고등중학교에서 대학으로 바로 가는 학생을 말함	13	거짓의 반대어
16	판가름의 북한말		

부록6) 월별 도전 통일벨 문제

★ 3월 도전 통일벨 문제 ★

1. 북한의 지하자원으로 세계 2위의 매장량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자원은?
① 갈탄
② 마그네사이트
③ 은
④ 구리
2. 우리나라 국토면적은 전체가 222,154km²입니다. 남북한 면적을 비교해 볼 때 북한이 남한면적보다 1.25배 넓습니다.
(맞다. 틀리다)
3. 판문점내에 군사정전위원회 본부지역 회담장을 중심으로 한 지름 800m의 원형지대를 말하는데 JSA라고도 한다. 무엇일까요?
()
4. 북한에서 400명이상으로 성인주민들이 살고 있고 이들의 65%이상이 노동자들로 이루어진 공장, 광산, 임산마을과 이촌 등에 조직되는 말단행정단위를 무엇이라 할까요?
① 구역
② 지역
③ 노동자구
④ 리
5. 북한이 1998년 9월 5일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으로 재추대하고 김정일 시대의 개막에 즈음하여 사상강국, 군사강국을 통해 경제강국으로 가자는 선전구호(정치구호)를 무엇이라 하는가?
()
6. 우리나라는 입법기관이 국회입니다. 북한도 입법기관이 있는데요. 북한인민의 의사를 대변하여 입법권을 행사한다는 북한의 공식적 최고주권기관은?
① 최고인민회의
② 국방위원회
③ 인민무력부
④ 국가안전보위부

★ 4월 도전통일벨 문제 ★

7. 남북한 국가 공식명칭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남한은 대한민국(ROK)입니다. 그러면 북한의 대외적인 공식명칭은 무엇일까요?
()

8. 다음 내용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 ① 1948년 2월 8일 조선인민군과 함께 북한정권이 탄생되었다.
- ② 1948년 4월 29일 북조선인민회의는 특별회의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초안을 승인했다.
- ③ 1949년 9월 30일 남로당과 북로당이 합당, 조선로동당이 공식적으로 창당 되었으며, 위원장에는 김일성이 선출되었다.
- ④ 1945년 9월 13일 서울에는 박헌영을 중심으로 조선공산당이 조직되었다.

9. 김일성이 항일무장시기인 1938년 말부터 1939년 봄에 걸쳐 100여일간 이른바 조선혁명군을 이끌고 갖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일본군의 공격을 격파하여 중국 몽간현으로 부터 조선의 북부국경일대로 진출했다고 선전하는 전투행군을 무엇이라 할까요?
()

10. 북한의 문예정책에서 “주체의 문예이론”은 김일성의 무슨 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을까요?
()

11. 남한의 국화(나라꽃)는 무궁화입니다. 북한의 국화는 무엇일까요? 1991년부터 함박꽃 종류인 이 꽃을 나라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 5월 도전 통일벨 문제 ★

12. 다음 중 북한의 대외무력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 일까요?

- ① 중국
- ② 미국
- ③ 일본
- ④ 남한

13. 조선문학예술총동맹에 소속된 각 장르별 예술가들은 문학예술 창조의 주인공으로서 그들이 지니고 있는 공훈과 역량에 따라 여러 등급으로 구분된다. 1급에서 8급까지 구분되며 급의 등급을 합쳐 모두 13등급으로 나뉘어 있다. 이중에서 국기훈장 1급으로서 최고명예인으로 인정받는 국가영웅을 무엇이라 부르는가?

()

14. 북한에서 1966년 김일성의 교시를 계기로 한자어뿐만 아니라 외래어 단어를 찾아내고 정리하고 우리의 옛말이나 방언 중에서 좋은 말을 골라 문화어로 만들면서 “혁명적 문풍”을 따르는 문장체와 구어체를 일반대중에게 교육시키는 운동을 무슨 운동이라 하였는가?

()

15. 북한은 성분계층을 계층 51부류를 하는데 여기에는 핵심계층(핵심군중), 동요계층(기본군중), 그리고 복잡군중이라하는 무슨 계층으로 분류하고 있습니까?

()

16. 남한말로 검산을 북한말로 뒤셈이라고 하고 남한말로 화장실을 북한에서는 위생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남한에서 노-크를 북한에서는 어떻게 사용할까요?

()

★ 7월 도전 통일벨 문제 ★

22. 북한에서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 ① 농민
- ② 노동자
- ③ 상인
- ④ 근로인테리(사무원)

23. 북한 사회주의노동법에 하루 “8시간 노동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 ① 맞다
- ② 틀리다

24. 북한의 개성시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만든 공업 단지로, 약 330만㎡(100만평) 규모인 이곳은?

- ① 개성공단
- ② 나주공단
- ③ 평양공단
- ④ 신의주

25. 다음 내용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은?

- ① 국회 - 최고인민회의
- ② 정부 - 정무원
- ③ 법원 - 중앙재판소
- ④ 남한 정당 - 다당제, 북한정당 - 일당제

26. 분단이후 최초의 남북한 합의문서는 7.4남북공동성명입니다. 여기서 통일의 3대원칙이 있습니다. 자주, 평화, 그리고 ()입니다.

★ 8월 도전 통일벨 문제 ★

27. 북한은 1977년부터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조직된 것으로서 사법, 검찰기관과 별도로 사회에 대한 법적통제와 준법교양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각급 당 책임 비서, 인민위원장, 사회안전부장 등 해당지역 지도급 간부들로 구성되는 준사법기관적 성격을 가진 협의체기구를 무엇이라 합니까?

()

28. 북한의 3대혁명역량의 내용이 아닌 것은 ?

- ①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혁명 역량강화
- ② 북반부에서의 사상혁명 역량강화
- ③ 남조선 혁명역량 강화
- ④ 국제혁명역량과의 단결, 강화

29. 1946년 2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라는 중앙기구를 설립하여 가장 처음 실시한 무상몰수 무상배분에 의한 정책은 무엇일까요?

()

30. 1953년 8월 30일에 정한 사실상의 해상분계선을 무엇이라 할까요? 북한이 서해상에서 꽃게잡이로 이유로 많이 월선 하여 문제가 되기도 한 선이기도 합니다.

()

31. 남한의 통일방안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입니다. 그러면 북한의 통일방안은 1민족1국가 2체제 2정부에 기초한 무슨 통일방안일까요?

()

★ 9월 도전 통일벨 문제 ★

32.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기본노선이 아닌 것은 고르시오?

- ① 자립적 민족경제 발전노선
- ② 중공업 우선 불균형 경제 성장 정책
- ③ 경공업우선 정책
- ④ 군사, 경제 병진노선

33.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의 3원칙은 무엇인가?

자주의 원칙, 평화의 원칙, ()원칙이다.

34. 북한의 경제난은 모든 경제부문에서 동시에 애로현상이 발생할 정도로 구조적이고 총체적인 공급부족현상이다. 북한의 경제난의 형태이다. 해당되지 않은 것은?

- ① 식량난
- ② 에너지난
- ③ 외화난
- ④ 인력난

35. 북한에서 경사진 곳에 조성한 경작지를 무슨 밭이라 합니까?

()

36. 다음은 북한의 4대군사노선의 내용이다. ()속에 들어갈 용어는?

북한 군사정책기조는 4대군사 .노선으로서 북한헌법(1998.9.5) 제60조에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위에서 전군의 간부화, 전군의 현대화, 전인민의 무장화, 전국의()를 기본으로 하는 자위적 군사노선을 관철한다”고 이를 명문화 하고 있다.

★ 10월 도전 통일벨 문제 ★

37. 남한 말 혈액형을 북한은 피형, 상호간을 북한에서는 호상간, 그러면 남한에서
의 창의성을 북한에서는 어떻게 부를까요?
()

38. 북한군사전략이다. 해당되지 않은 것은?

- ① 게릴라 전략
- ② 선제기습전략
- ③ 속전속결전략
- ④ 배합전략(정규전,비정규전)

39. 북한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은 어떤 것인가?

- ① 당중앙군사위원회
- ② 국방위원회
- ③ 인민무력부
- ④ 국가안전보위부

40. 북한에서는 지역별로 특구를 지정하였다.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신의주 - 행정특구
- ② 금강산 - 관광특구
- ③ 개성 - 공업특구
- ④ 남포 - 해운특구

41. 금강산을 계절별로 명칭을 달리 부르고 있다. 풍악산을 어느 계절에 해당되는가?

- ① 봄
- ② 여름
- ③ 가을
- ④ 겨울

★ 11월 도전 통일벨 문제 ★

42. 중국과 대만과의 관계이다. 내용이 틀린 것을 고르시오?

- ① 중국은 일국양제의 통일정책을 추진했다
- ② 통상, 통우, 통항으로 표현되는 3통정책을 추진했다
- ③ 친척방문 및 경제, 문화, 과학기술, 체육교류로 대표되는 4류 통한 적극적인 양안 정책을 추진했다.
- ④ 중국은 대만에 대해서 고립과 포용 양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43. 우리나라 예비군과 민방위대 성격을 지닌 북한의 예비전력은 무엇이라 하는가?

- ① 교도대
- ② 붉은청년근위대
- ③ 노농적위대
- ④ 사회안전원

44. 괄호 속에 들어갈 용어는 ?

북한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공산주의적 새인간을 양성하는데 있고 이와 같은 교육을 ()개조라 지칭한다.

45. 각국의 통일형태이다. 해당되지 않은 것은?

- ① 베트남 - 무력통일
- ② 예멘 - 합의평화통일
- ③ 독일 - 흡수통일
- ④ 오스트리아 - 영세중립국

46. 북한이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1984년 9월 만든 법을 무슨법이라고 하는가?

()

★ 12월 도전 통일벨 문제 ★

47. 북한의 교육기본원리이다. 해당되지 않은 것은?

- ① 혁명화
- ② 로동계급화
- ③ 공산주의화
- ④ 새로운 인간상

48. 우리의 현재 통일방안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다. 여기에는 3단계를 설정해 두었는데, 1단계- 화해협력단계, 2단계 -(), 3단계- 최종통일단계이다. 2단계는 무엇일까요?

49. 4월 15일은 김일성생일로 이날은 북한의 최대국가적 명절이라고 하는데 무슨 절이라고 명명하고 있는가?
()

50. 북한은 1977년 9월 5일에 교육에 관한 내용을 발표하였는데 학교교육내용을 정치사상교육, 과학기술교육, 체육교육으로 대별하고 있다. 이것을 규정한 내용을 무엇이라 하는가?
()

51. 1993년 북한이 이 조약에서 탈퇴하기도 하였다. 해당되는 내용은?

- ① 핵확산금지조약
- ② 북,미제네바 회담
- ③ 6자회담
- ④ 국제원자력기구

★ 2월 도전 통일벨 문제 ★

52.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화해협력 → 남북연합 → 통일국가」라는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통일을 이루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중 ‘남북연합’단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 ① 교류와 협력을 통해 남북 간의 적대와 불신을 줄여나간다.
- ②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이 제도화되면서 평화정착과 민족의 동질화를 촉진시켜 나간다.
- ③ 두 체제와 정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분단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한다.
- ④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를 이룬다.

53. 다음 중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당국간 합의 문서인 ‘7· 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하고 있는 조국통일3대원칙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 ① 자주 ② 평화 ③ 민주 ④ 민족대단결

54. 다음은 북한이 주장해온 통일방안의 변천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사실과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 ① 1960년 김일성은 UN감시하의 총선거를 통한 통일을 주장하였다.
- ② 1980년 북한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제시하면서 주한미군의 조속한 철수 등을 선결조건으로 내세웠다.
- ③ 1991년에는 ‘1민족1국가2체제2정부’형태의 통일국가를 주장하면서 제도통은 후대에 일임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 ④ 2000년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남한의 연합제안과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55. 경제 · 사회 · 문화 등 비정치적 부문의 교류를 장기적으로 추진하여 상이한 체제의 통합을 추구하는 방식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 ① 연방주의 ② 구성주의 ③ 제도주의 ④ 기능주의 ⑤ 신기능주의

56. 다음 중 독일통일을 달성하는 데 기여한 서독정부의 노력을 잘못 기술한 것은 무엇일까요?

- ① 브란트정부 이후 관계증진을 위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전개
- ② 20여년에 걸친 원칙 있는 교류협력과 지원
- ③ 독일통일에 거부감을 지니는 주변국들의 설득
- ④ 동독을 일관되게 ‘국가’로 승인하고 대등한 협력을 추진

부록7) 통일관련 형성평가(서서울 통일퀴즈왕 선발대회)

○ 서서울통일퀴즈 예선문제 ○

■ 2013 서서울통일퀴즈왕 선발대회 ■											
문제지	과목코드 01 계열: 전공별 제 학년 반 번 성명										
<p>※ 다음 글을 읽고 알맞은 답을 OMR카드에 표기하시오. <배 점 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문항 번호</th> <th style="text-align: center;">배점</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10</td> <td style="text-align: center;">3.1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1~15</td> <td style="text-align: center;">3.5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6~25</td> <td style="text-align: center;">3.7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6~30</td> <td style="text-align: center;">2.9점</td> </tr> </tbody> </table> <p>1. 다음 중 북한의 국화(나라꽃)는 무엇인가? ① 수국 ② 진달래 ③ 목란 ④ 무궁화</p> <p>2. 1972년에 남북한 최초로 합의한 문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 6·15남북 공동선언 ② 조국통일 5대 강령 ③ 7·4 남북공동성명 ④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p> <p>3. 북한에서 노동당원 가입이 가능한 나이는? ① 만16세 ② 만18세 ③ 만19세 ④ 만20세</p> <p>4. 남북한 정부수립일이 맞는 것은? (남한)-(북한) ① 1945. 8. 15 - 1945. 9. 9 ② 1945. 8. 15 - 1950. 9. 9 ③ 1948. 8. 15 - 1948. 9. 9 ④ 1950. 8. 15 - 1950. 9. 9</p> <p>5.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점진적, 단계적으로 통일을 이룩해 나가는 방안이다. 3단계중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남북연합단계 ② 화해, 협력단계 ③ 통일국가 완성 ④ 남북공동정부 수립</p> <p>6. 다음 중 내용이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현재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은 총 5개국이다. ② 남한의 모심기 운동을 북한에선 모내기 전투라 한다. ③ 남한의 국방부를 북한에선 인민전위부라 한다. ④ 통일교육을 촉진하기 위해 우리정부에서는 1999년 통일 교육 지원법을 만들었다.</p> <p>7.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하여 6자회담에 참가하는 국가가 아닌 것은? ① 독일 ② 일본 ③ 중국 ④ 러시아</p> <p>8. 다음 중 사실과 다른 것은? ① 남북한의 애국가가는 가사가 서로 다르다. ② 남한면적이 북한면적보다 1.25배 넓다. ③ 북한의 대외적인 국가공식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④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나</p>	문항 번호	배점	1~10	3.1점	11~15	3.5점	16~25	3.7점	26~30	2.9점	<p>9. 1974년 8월 15일에 제안한 것으로 남북간 평화공존과 평화통일을 위한 기본원칙을 제안하였다. 이것은 무엇인가? ① 7·7선언 ② 평화통일 3대기본원칙 ③ 남북기본 합의서 ④ 민족공동체 통일방안</p> <p>10. 판문점내에 군사정전위원회 본부지역 회담장을 중심으로 한 지름 800m의 원형지대를 무엇이라 하는가? ① JSA ② DMZ ③ 북방한계선 ④ 남방한계선</p> <p>11. 북한에서 토요일을 부르는 명칭은? ① 노동일 ② 문화일 ③ 인민일 ④ 민족일</p> <p>12. 북한의 9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자강도 ② 양강도 ③ 강원도 ④ 경기도</p> <p>13. 다음 내용 중 사실에 해당되는 것은? ① 북한에서는 담임선생님이 해마다 바뀐다. ② 북한에서 중학교 졸업후 곧바로 군대 가는 학생을 직통생이라 한다. ③ 북한 학교에는 우리의 특별활동과 비슷한 소조활동이 있다. ④ 북한 학생들은 우리처럼 학교 급식을 통해 점심을 해결한다.</p> <p>14.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핵시설이 설치된 지역은? ① 영변 ② 원산 ③ 평양 ④ 신의주</p> <p>15. 정부가 실용과 생산성을 바탕으로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천명한 경험 4원칙이 아닌 것은? ① 북핵문제의 진전 ② 국제적 합의 ③ 경제적 타당성 ④ 국민적합의</p> <p>16. 북한에서 학년시작일은 언제인가? ① 3월 2일 ② 9월 1일 ③ 4월 1일 ④ 2월 15일</p> <p>17. 1982년 1월 22일 제시한 것으로 통일은 민족자결의 원칙에 의거하여 거래전체의 의사가 골고루 반영되는 민주적 절차와 평화적 방법으로 성취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통일방안을 무엇이라 하는가? ①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②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③ 평화통일 기본 방안 ④ 비핵과 공동방안</p>
문항 번호	배점										
1~10	3.1점										
11~15	3.5점										
16~25	3.7점										
26~30	2.9점										
☞ 뒷면에 계속											

라는 중국이다.

18. 다음 북한의 도발이 발생한 연도와 맞지 않는 것은?

- ①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사건
- ② 1982년- KAL기 폭파사건
- ③ 1983년- 미얀마 아웅산 묘소 폭파사건
- ④ 2010년- 천안함 폭침사건

19. 남한-북한 언어비교가 잘못 된 것은?

- ① 횡단보도-건늬길 ② 냉장고-냉동기
- ③ 장인-처가아버지 ④ 개고기-단고기

20. 북한에서는 지역별로 특구를 지정하였다. 해당 되지 않는 것은?

- ① 신의주-행정특구 ② 금강산-관광특구
- ③ 개성-공업특구 ④ 나진-농업특구

21. 대한민국을 식민지에서 독립시키자는 논의가 최초로 이루어진 국제회의는?

- ① 카이로회담 ② 얄타회담
- ③ 제네바회담 ④ 포츠담회담

22. 북한에서 5장6기중 5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신발장 ② 재봉장 ③ 책장 ④ 찬장

23. 북한의 명절에는 민속명절과 사회주의명절(국가명절)이 있다. 사회주의명절 (국가명절)에 해당되는 것은?

- ① 추석 ② 단오 ③ 북한정권 창권일 ④ 설날

24. 다음 중 국제원자력기구를 뜻하는 말은 ?

- ① IAEA ② UNICEF
- ③ WHO ④ NATO

25.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지원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주거지원 ② 결혼(배우자알선)
- ③ 직업훈련 ④ 정착금지급

26. 남북한 수학적용어가 잘못 연결된 것은?

- ① 가감법-더덜기법 ② 부피- 체적
- ③ 부등호-안갈기식 ④ 진분수-데립분수

27. 북한의 예술단체 중 방송을 주 무대로 하면서 생활가요를 부르는 단체이름은?

- ① 보천보 전자악단 ② 평양 예술단
- ③ 만수대 예술단 ④ 은하수 관현악단

28. 우리의 교도소에 해당되는 곳은?

- ① 재판소 ② 교화소
- ③ 검찰소 ④ 정치범수용소

29. 북한이 1980년대 말부터 어린이의 지능을 높여주고 노인들의 노쇠현상을 없애주는 뇌수경기(두뇌스포츠)로 선전하면서 국가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것은?


- ① 배드민턴 ② 체스
- ③ 검도 ④ 바둑

30. 북한의 대외정책을 담당하는 단체가 잘못 연결된 것은?

- ① 정부간 외교- 외무성
- ② 의회외교- 최고인민회의
- ③ 민간외교-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 ④ 정당외교- 인민무력부

** 수고 하셨습니다. **

부록8) 월별 주제별 통일교육

	2013년 3월	주제별 통일교육 대한민국 국가 상징(1) - 태극기	교훈	노력 협동 창조
---	-------------	---------------------------------	----	----------------

1. 태극기의 내력

1882년 9월 박영효(朴泳孝)는 고종(高宗)의 명을 받아 특명전권대신(特命全權大臣) 겸 수신사(修信使)로 일본으로 가던 중 선상에서 태극 문양과 그 둘레에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를 그려 넣은 ‘태극·4괘 도안’의 기를 만들어 바로 그 달 25일부터 사용하였다. 10월 3일 본국에 이 사실을 보고하자, 고종은 다음 해인 1883년 3월 6일 왕명으로 이 ‘태극·4괘 도안’의 ‘태극기’(太極旗)를 국기(國旗)로 제정·공포하였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태극기의 제작법을 통일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1949년 1월 「국기시정위원회」(國旗是正委員會)를 구성하여 그 해 10월 15일에 오늘날의 「국기제작법」을 확정·발표하였다.

대한민국 정부가 태극기를 국기로 계속 사용해 오고 있는 것은 태극기가 지닌 이러한 민족사적 정통성을 이어받기 위함이다.

2. 태극기에 담긴 뜻


우리나라 국기(國旗)인 ‘태극기’(太極旗)는 흰색 바탕에 가운데 태극 문양과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四卦)로 구성되어 있다.

태극기의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전통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고 있다. 가운데의 태극 문양은 음(陰:파랑)과 양(陽:빨강)의 조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주 만물이 음양의 상호 작용에 의해 생성하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형상화한 것이다.


네 모서리의 4괘는 음과 양이 서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효(爻 : 음 --, 양 -)의 조합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들 4괘는 태극을 중심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생활 속에서 즐겨 사용하던 태극 문양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태극기는 우주와 더불어 끝없이 창조와 변형을 희구하는 한민족(韓民族)의 이상을 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태극기에 담긴 이러한 정신과 뜻을 이어받아 민족 화합과 통일을 이룩하고, 인류의 행복과 평화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2013년 4월	주제별 통일교육 대한민국 국가 상징(2) - 애국가	교훈	노력 협동 창조
---	-------------	---------------------------------	----	----------------

<p>1. 애국가의 내력</p> <p>애국가라는 이름으로 노랫말과 곡조가 붙여져 나타난 것은 조선 말 개화기 이후부터이다. 1896년 ‘독립신문’ 창간을 계기로 여러 가지의 애국가 가사가 신문에 게재되기 시작했는데, 이 노래들을 어떤 곡조로 불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p> <p>오늘날 불리고 있는 애국가의 노랫말은 외세의 침략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던 1907년을 전후하여 조국애와 충성심, 그리고 자주 의식을 북돋우기 위하여 만든 것으로 보인다. 그 후 여러 선각자의 손을 거쳐 오늘날과 같은 내용을 담게 되었는데, 이 노랫말에 붙여진 곡조는 스코틀랜드 민요 ‘올드 랭 사인’(Auld Lang Syne) 이었다.</p> <p>해외에서 활동 중이던 안익태(安益泰)는 애국가에 남의 나라 곡을 붙여 부르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1935년에 오늘날 우리가 부르고 있는 애국가를 작곡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 곡을 애국가로 채택해 사용했으나 이는 해외에서만 퍼져 나갔을 뿐, 국내에서는 광복 이후 정부 수립 무렵까지 여전히 스코틀랜드 민요에 맞춰 부르고 있었다.</p> <p>그러다가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현재의 노랫말과 함께 안익태가 작곡한 곡조의 애국가가 정부의 공식 행사에 사용되고 각 급 학교의 교과서에도 실리면서 전국적으로 애창되기 시작하였다.</p> <p>그 후 해외에도 이 애국가가 널리 전파되어 실질적인 국가(國歌)로 자리 잡게 되었다.</p> <p>한 세기 가까운 세월 동안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우리 겨레와 운명을 같이해 온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우리는 선조들의 나라 사랑 정신을 새롭게 되새겨야 할 것이다.</p>				
<p>2. 애국가 노랫말</p> <table border="0"> <tr> <td data-bbox="193 1377 766 1736"> <p>1절</p> <p>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p> </td> <td data-bbox="766 1377 1399 1736"> <p>2절</p> <p>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서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p> </td> </tr> <tr> <td data-bbox="193 1736 766 2027"> <p>3절</p> <p>가을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없이 밝은 달은 우리가슴 일편단심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p> </td> <td data-bbox="766 1736 1399 2027"> <p>4절</p> <p>이 기상과 이 맘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p> </td> </tr> </table>	<p>1절</p> <p>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p>	<p>2절</p> <p>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서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p>	<p>3절</p> <p>가을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없이 밝은 달은 우리가슴 일편단심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p>	<p>4절</p> <p>이 기상과 이 맘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p>
<p>1절</p> <p>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p>	<p>2절</p> <p>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서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p>			
<p>3절</p> <p>가을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없이 밝은 달은 우리가슴 일편단심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p>	<p>4절</p> <p>이 기상과 이 맘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p>			

	2013년 5월	주제별 통일교육 대한민국 국가 상징(3) - 무궁화	교훈	노력 협동 창조
---	-------------	---------------------------------	----	----------------

1. 무궁화의 내력

예로부터 우리 민족의 사랑을 받아온 무궁화(無窮花)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으로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 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옛 기록을 보면 우리 민족은 무궁화를 고조선(古朝鮮) 이전부터 하늘나라의 꽃으로 귀하게 여겼고, 신라(新羅)는 스스로를 근화향(槿花鄉 : 무궁화 나라)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중국(中國)에서도 우리나라를 오래 전부터 “무궁화가 피고 지는 군자의 나라” 라고 칭송했다. 이처럼 오랜 세월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 해온 무궁화는 조선말 개화기를 거치면서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이란 노랫말이 애국가에 삽입된 이후 더욱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이와 같은 무궁화에 대한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사랑은 일제(日帝)강점기에도 계속 되었고, 광복 후에 무궁화를 자연스럽게 나라꽃[國花]으로 자리 잡게 하였다.


우리나라에는 1백여 품종의 무궁화가 자라고 있는데, 꽃 색깔에 따라 단심계, 배달계, 아사달계 등으로 크게 분류된다. 정부는 이들 가운데서 꽃잎 중앙에 붉은 꽃심이 있는 단심(丹心系) 홑꽃을 보급 품종으로 지정하였다.

무궁화는 7월 초순에서 10월 하순까지 매일 꽃을 피워 보통 한그루에 2천~3천여 송이가 피며, 옮겨 심거나 꺾꽂이를 해도 잘 자라고 공해에도 강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민족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하는 마음을 잘 나타내 주기도 한다.

우리는 민족과 함께 영광과 수난을 같이해 온 나라꽃 무궁화를 더욱 사랑하고 잘 가꾸어 그 고귀한 정신을 길이 선양해야 할 것이다.

2. 세계의 대표적인 나라꽃[國花]

- ① 무궁화 ;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미국 하와이의 주화(洲花) 등
- ② 장미 ; 영국, 미국, 이란, 이라크 등
- ③ 난 ; 브라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콜롬비아 등
- ④ 튜립 ; 네덜란드, 키르기스스탄, 터키 등
- ⑤ 재스민 ; 필리핀, 튀니지 등
- ⑥ 해바라기 ;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

	2013년 6월	주제별 통일교육 6.25 한국전쟁의 교훈	교훈	노력 협동 창조
---	-------------	---------------------------	----	----------------

1. 자유 민주주의 수호에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가. 세계 공산화 전략의 일환으로 시작된 북한 공산 정권의 불법적인 기습 남침 공격을 대한민국과 UN군이 함께 물리친 전쟁으로 공산주의자들의 세계 적화 야욕을 저지하였다.

나. 세계 자유 진영의 단결된 힘으로 민주주의가 승리한 전쟁으로 자유 수호의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UN의 동맹 조직이 평화 유지에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2. 공산 진영과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한 정체 인식 및 재평가가 이루어졌다.

가. 공산주의자들은 평화 공존의 대상이 아니라 인륜을 저버리고 힘이 강하면 침략 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나. 북한 공산 집단은 적화 통일의 야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동족의 살육도 거리낌 없이 자행하는 범죄 집단이라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실감하게 되었다.

3. 북한 공산 집단의 이중성, 양면성을 실증하였다.


가. 북한의 위장 평화 공세는 오히려 전쟁의 심호탄임을 입증하게 되었다.

나. 북한은 국내외의 정세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침략적 저의를 은폐시키는 교활한 계략으로 위장 평화 공세를 하였다.

4. 유비무환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가. 6.25 한국전쟁은 우리 민족이 겪은 크고도 불행한 사건으로 국가의 안보와국민의 안녕을 위하여 군사력 강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나. 안보는 스스로 지키지 않는 한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으며 평소 전쟁에 이길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만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터득하게 되었다.

	2013년 7, 8 월	주제별 통일교육 통일의 의미와 필요성	교훈	노력 협동 창조
---	-----------------	-------------------------	----	----------------

1. 통일의 의미

가. 통일은 우리 민족 구성원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조화롭게 살아가는 상태를 말한다.

통일의 의미는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규정할 수 있으나 “우리민족이 나뉘어 서로 다른 체제에 속해 살면서 형성된 적대적인 관계를 극복하고,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이루어 조화롭게 살아가는 상태”라고 규정하고자 한다. 통일은 분단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역사의 길을 걷고 있는 남북의 민족구성원이 현재의 조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다시 새로운 하나의 공동체사회로 발전해 나아가는 창조적 과정을 의미한다.

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모든 면에서의 발전된 통합을 의미한다.

궁극적으로 통일은 남북한 주민이 “우리는 한민족, 하나의 국민”이라고 느끼게 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통일은 모든 방면에서 남북의 주민이 다양성에 기초하여 동질적인 삶의 양식과 정신문화를 공유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다. 통일은 지속적인 발전과정이다.

통일은 실현과 미실현의 이분법 개념으로 규정하기 보다 “지금은 통일이 몇% 이루어진 상태”라는 식의 지속적인 발전과정으로 파악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사고일 것이다.

라. 통일은 남북의 평화정착노력을 통해 이루어가는 점진적, 단계적인 과정이다.

통일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민족이 자주적, 평화적, 민주적으로 이룩하는 것이다. 또한 통일은 남북이 평화를 정착해 가는 과정에서 점진적, 단계적으로 달성해 나가는 것이다.

2. 통일의 필요성

가. 통일은 분단으로 굴절된 역사를 바로잡고, 민족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조화로운 민족공동체를 구현시킨다.


우리 민족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속에서 조화로운 민족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60여 년간 분단은 민족 구성원간 상호불신, 반목 및 갈등을 부추키며 민족통합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되어 왔다. 통일국가의 실현은 우리 민족의 총체적 역량을 재결집시키며 민족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원동력을 제공할 것이다.

나. 통일은 남북 이산가족 등 분단으로 인해 생이별을 하고 있는 이들의 고통을 해소한다.

분단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는 남북으로 갈려 있는 이산가족들이다. 남북간 분단 상황에서 장기간 교류와 왕래가 두절된 채 고통 받고 있는 이산가족들에게 함께 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인도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중대한 과제이다.

다. 통일은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창출하고 한반도를 동북아 번영의 중심국가로 이끈다.

통일은 한반도에 단일경제권을 형성시킴으로써 내수시장의 확대를 도모하고 남북한 인적·물적 자원의 상호보완성을 높여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남북이 통합된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교량의 역할을 수행하며 동북아시아의 번영을 주도할 것이다.

	2013년 9 월	주제별 통일교육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	교훈	노력 협동 창조
---	--------------	----------------------------	----	----------------

1.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하여, 자유, 평등, 복지의 가치를 정치, 경제, 사회의 각 분야에 최대한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정치 이념이며 실천적 제도이다.

19세기 마르크스(Marx, K.)의 ‘공산당선언(1848년)’ 이후 인류는 공산주의의 도전으로 큰 시련을 겪었으나, 20세기 말에 이르러 자유 민주주의가 체제 경쟁에서 승리하고 공산주의는 몰락(베를린 장벽 붕괴, 1989년 11월)하게 되었다. 이로서 체제 경쟁은 끝나고 자유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 복지라는 보편적 가치의 실현에 가장 이상적인 이념이라는 사실이 분명히 입증되었다.

2. 자유 민주주의 체제와 공산주의 체제의 특징 비교

1) 자유 민주주의 체제

가. 이념적, 윤리적 측면

- ① 가치 추구 ; 정신적 가치 추구
- ② 자연 법칙 ; 자연 법칙에 순응
- ③ 휴머니즘 ; 인권, 복지, 번영 추구
- ④ 사회 특성 ; 다원화된 개방 사회

나. 현실적, 제도적 측면

- ① 문제 해결 ; 평화적 방법으로 문제 해결
- ② 정치 특성 ; 다양한 가치 공존, 자율과 공정한 경쟁

2) 북한 공산주의 체제

가. 이념적, 윤리적 측면

- ① 가치 추구 ; 물질적 가치 추구
- ② 자연 법칙 ; 자연 법칙 무시 또는 말살
- ③ 휴머니즘 ; 인권 유린, 인간 소외 현상
- ④ 사회 특성 ; 폐쇄적 통제 사회

나. 현실적, 제도적 측면

- ① 문제 해결 ; 군사적 방법으로 문제 해결
- ② 정치 특성 ; 단일 사회와 단일 세력 강조, 1인에 권력 집중



2013년
10 월

주제별 통일교육
분단국 통일사례의 교훈

교훈

노력
협동
창조

1. 분단국 통일사례의 교훈

가. 통일 이전에 기존의 분단 상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예멘의 경우 북예멘과 남예멘 사이에 분열과 갈등이 있었지만, 이미 1981년 12월에 “남북예멘협력 및 조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호 작용하는 협상 과정을 지속하였다. 독일은 통일 이전 이산가족문제 해결, 정치범 석방거래 등 분단으로 인한 인간적 고통의 해소와 더불어 대내외적인 안보 위협에 슬기롭게 대처하여 평화적 분단 관리에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1972년 12월 양측은 “동서독 기본조약”을 체결하여 쌍무적 관계를 조정, 관리하는 한편 1973년 유엔 가입 이후 서로 다방면에 걸친 통신, 교류, 협력 등을 확대하여 체제 동질화를 추진하였다.

나. 통일 과정에서 화해와 협력, 민족 동질성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주변국가의 이해와 협조를 도모하였다.

첫째, 분단기간 중에 대립과 갈등요소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화해와 협력 관계에 기초하여 꾸준히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야 이념 대립으로 훼손됐던 민족 공동체의 회복이 가능하고, 동질성을 보존 확대할 수 있으며, 통일을 이루려는 의지도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된다.


둘째, 분단국가의 통일은 기본적으로 민족 내부의 자결권 문제였지만, 주변국가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노력했다. 주변국 입장에서는 분단국의 통일을 두 국가가 하나로 합쳐져 더 강력한 국가가 새롭게 탄생되는 것으로 여길 수 있다. 따라서 통일 국가 주체는 새로운 국가의 탄생이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도움이 되는 것임을 설득할 수 있는 외교적 지혜와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두 국가의 통일이 평화적이고 주변국의 국익과 상응하는 것 일수록, 그리고 양측 주민의 확고한 동의에 기반을 둘수록 주변국에 대한 설득은 용이해진다.

2. 통일의 과정

가. 통일은 남북간 상호 이해, 대화와 협상 등 평화 정착 노력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과정이다.

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화해협력의 지평을 넓힘으로써 남북간 평화 공존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 통일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고, 이와 함께 주변국의 지지와 협력을 확보해야 한다.

	2013년 11 월	주제별 통일교육 북한의 교육제도	교훈	노력 협동 창조
---	---------------	----------------------	----	----------------

1. 북한의 교육과정

가. 북한의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 의하면, 학교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내용은 ①정치사상교육 ②과학기술교육 ③체육교육으로 구분된다. 정치사상교육은 김일성, 김정일의 혁명역사와 혁명활동을, 과학기술교육은 일반과학과 전문기술을, 체육교육은 노동과 국방에 임하는 체력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나. 초등의 경우에는, 소학교 재학 4년 동안 국어 등 총 11개과목을 교육하도록 편성되어있다. 초등교육과정의 교육내용은 크게 정치사상교육, 과학기술교육, 체육교육, 예능교육, 국방교육의 다섯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주당 수업시간을 보면 국어, 수학, 자연, 체육, 음악, 도화공작의 순이다. 국어가 전체 수업시간의 1/3을, 수학이 1/4정도의 비중을 차지하여 두과목의 시간배당이 전체의 57%나 되고 자연과목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다.

다. 중등교육의 경우에는 중학교 6년 동안 모두 23과목을 교육하도록 되어있다. 중학교 교과목 역시 과목들이 보다 세분화되어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유사한 내용을 가르친다. 최근 북한에서는 사상교육을 강화함과 동시에 실리적인 교육을 강조하면서 두 측면의 교육의 균형을 유지하는 한편, 세계화와 정보화의 급진전에 따라 외국어 교육과 첨단과학 기술교육 등 실용적 차원의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2. 북한의 교육과 학교생활

1. 북한 교육의 목표는 공산주의적 새 인간형, 즉 주체형의 인간육성이다.

북한의 교육목표는 ‘건전한 사상의식과 깊은 과학기술지식, 튼튼한 체력을 지닌 공산주의적 새 인간형’, 즉 ‘주체형의 인간’을 육성하는 것이다. 주체형의 인간은 북한체제가 필요로 하는 구성원으로서 지도자에 대한 충성과 효성을 제 1의 덕목으로 삼고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로 무장되어 집단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질 수 있는 영웅이다.

2. 북한 교육과정의 특징은 교육과 정치의 결합, 교육과 생산의 결합, 교육내용의 선택권 부재에서 찾을 수 있다.

북한에서 교육은 사상혁명의 핵심적 수단으로 여겨지므로 학교에서도 정치사상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교육과정에 노동이 포함되어 있어 학생들은 생산에 필요한 실제 기술기능을 훈련하고 생산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2013년 12월
2014년 2월

주제별 통일교육
북한 학생들의 학교 생활

교훈

노력
협동
창조

(1) 등교

북한의 경우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의 수업이 오전 8시에 시작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대부분 오전 7시에서 7시 30분 사이에 등교한다. 인민학생은 흰색 상의에 검정색 바지를 입고 고등중학생은 교복을 입으며, 동네의 일정한 장소에 모여 학생간부의 지휘로 줄지어 합창을 하면서 집단 등교를 하는데, 만약 개인 행동을 하면 상급생이나 담임 교원에게 벌을 받는다. 평양과 같은 도시지역 학생들의 등교 시간은 대부분 20-30분 정도 걸리고, 일부 농촌 지역 학생들은 학교가 멀어서 때로는 1시간씩 걸어서 등교를 하기도 한다.

(2) 수업

학교 수업은 인민학교가 하루에 4-5시간, 고등중학교의 중등반(1-4년)은 6-7시간, 고등반(5-6년)은 6-8시간 정도이다. 수업시간은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 중등반의 경우 45분 수업에 15분간 휴식을 취하며, 고등반은 50분 수업에 10분간 휴식을 취한다.

오전 수업이 끝나면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가 점심 시간인데, 집에서 준비해 온 광밥(도시락)을 먹는다. 집이 가까운 학생들은 집에 가서 먹고 오기도 한다.

수업이 끝나는 오후 3-4시 이후에는 담임 교원의 지도하에 하루 또는 일주일 동안의 생활을 반성하고 앞으로의 생활에 대한 결의와 각오를 발표하는 일일 또는 주간 생활총화 시간을 갖는다. 이때 대부분 학급분단위원장(반장)등 학생간부들이 잘못된 학생을 지명하여 비판한다.

생활총화시간 이후에도 과외 활동으로 일별, 주별, 월별 사업계획서에 따라 당 정책 계몽선전 활동과 학교주변 청소와 같은 보건 위생 활동, 그리고 고철 수집 등 외화벌이를 위한 근로 봉사 및 사상 교양을 위한 영화나 시 감상 모임 등에 참석한다.

(3) 하교

보통 저녁 5시가 되어야 이러한 활동이 모두 끝이 나서 집으로 돌아가 저녁 식사를 하게 되며, 집에서도 집안 청소와 빨감 마련 등 집안 일을 도와야 하기 때문에 북한 청소년들은 개인적으로 여가 생활을 즐길 만한 여유가 없다.

* 북한 고등중학생의 일과표

07:00 ~ 07:30	기상 및 아침식사/ 지정된 장소에 집합
07:30 ~ 08:00	등교, 08:00 ~ 09:00 담임교원 교양시간
09:00 ~ 12:30	오전 수업, 12:30 ~ 13:20 점심 시간
13:20 ~ 15:00	오후 수업, 15:00 ~ 16:00 생활총화시간
16:00 ~ 18:00	과외 활동, 18:00 ~ 19:00 저녁식사 및 TV시청
19:00 ~ 21:00	휴식 및 자율학습, 21:00 ~ 취침

부록9) 월별 통일(북한학생 사랑나누기) 성금모금 현황

- (1) 모금일 : 매월 1회
 (2) 대 상 : 전교생 및 전교직원
 (3) 방 법 : 아침 등교시 교문에서 자유 모금

횟수	모금일	2013 월별 모금액	총모금액누계 (1996이후)	지출 (성금)	잔액	비고
		6,778	22,055,763		5,713,223	이자수입
163	2013.03.15	309,110	22,364,873		6,022,333	
164	2013.04.19	102,780	22,467,653		6,125,113	
165	2013.05.24	105,260	22,572,913		6,230,373	
166	2013.06.19	73,870	22,646,783		6,304,243	
		6,535	22,653,318		6,310,778	이자수입
167	2013.07.16	95,700	22,749,018		6,406,478	
168	2013.08.27	64,300	22,813,318		6,470,778	
			22,813,318	500,000	5,970,778	황장엽 추모 2주기 성금
169	2013.09.27	191,330	23,004,648		6,162,108	
170	2013.10.15	70,520				
합 계		2013년 모금 합계	1996년이후 모금 합계	1996년이후 기탁금 합계	현재잔액	성금내용
		1,026,183	23,004,648	16,842,540	6,162,1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용천역폭파사고 돕기 •북한 인터넷스케이트 기증 •북학생 교육기자재 성금 •북한이탈학생 장학금 지급 •북한수혜돕기 성금 등

부록10) 2013년도 통일교육 및 행사 현황

일 자	내 용
2월 27일	문용린 서울특별시 교육감 서울통일관 방문
3월 5일	전경만 통일교육원장 서울통일관 방문
4월 16일	전국 통일교육시범학교 교장,교감단 위커숍
4월 19일	전국 중등 교장,교감단 서울통일관 견학
5월 28일	제18회 서울학생 통일글짓기 대회
5월 30일	류길재 통일부 장관 방문 및 특강
5월 30일	서울지역 학교통일교육발전 워크숍
5월 30일	평택 해군 제2함대사령부 안보공원 견학(희망학생)
6월 8일	민주평통 통일골든벨 본교 학생 참여
6월 11일	구로경찰서 주최 안보현장(천안함) 견학 본교 학생 참여
6월 20일	철원,연평지역 안보현장 체험학습 (희망자)
6월 20일	제17회 평화통일염원 청소년 야영수련회(1박2일,1학년전체)
6월 24일	서서울 평화통일염원 나의 주장 발표대회
6월 25일	자유총연맹 주최 6.25전쟁 음식체험
6월 27일	교사 박경준 안보체험 1박2일 참가(과학화전투훈련단)
7월 30일	자유총연맹 주최 본교학생 나라사랑 병영체험 참가(1박2일, 전방0사단)
8월 30일	2013 서서울 통일퀴즈왕 선발대회
10월 1일	건군 제65주년 국군의 날 행사 참가(1학년)
10월 24일	제7회 전국 청소년 통일퀴즈왕 선발대회
10월 24일	2013년 통일교육 시범학교 운영보고회
10월 25일	서울통일관 통일보물찾기

부록11) 서울통일관 방문 및 견학 현황

월	견학기관 (단체명, 개인명)	2013년 월별 인원	1996년이후 총인원
1	김○○ 외(外)	2	
2	서울특별시 교육감님외 20명 전시관 관람 (外)	991	
3	통일교원장 전○○등 8명 방문 외(外)	501	
4	전국 육.해.공군 정훈장교 외(外)	490	
5	류재길 통일부 장관 외(外)	1,958	
6	통일교육원시범학교 교사반 외(外)	868	
7	교육청 장학사 정○○ 외(外)	227	
8	통일부대학생기자단 김○○ 외(外)	55	
9	국방부 배○○중위 등 간부3명 외(外)	106	
10	서울시립대학교 학군단 학생2명 외(外)	99	
10월 8일 현재 합계		5,297	79,530

■ 언론속의 서서울 통일교육

1 통일신문 보도자료(2013. 3. 20)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page of 'Tongil Shinmun' (The Tongil Shinmun) with a main article titled '통일교육장 개설...“해방 직후 왕성했던 통일염원 그림다”' (Opening of a Unified Education Center... "A Rich Picture of the Strong Yearning for Unification After Liberation"). The article features a photo of Jo Dongrae, the principal of Seosung High School, and text detailing the school's long-term commitment to unified education. The website layout includes a search bar, navigation menu, and various sidebar links.

그 동안 서서울인들이 일궈온 결실은 앞으로 다가올 통일의 밑거름이 되기에 충분했다. 그 선봉에는 늘 서서울생활과학고의 설립자이자 서울통일관 관장인 조동래 이사장이 있었다.

조 이사장은 지난 1996년부터 통일교육진흥에 앞장설 것을 다짐해 통일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학교 교육과 연계활동을 실시해 왔다. 서서울생활과학고가 통일교육장을 개설하고 적극적으로 통일교육과 관련한 행사를 실시한지 18년째가 된다.

강산이 두 번 변하는 세월 동안 조동래 이사장의 열정적인 통일교육철학과 황정숙 교장을 비롯한 모든 서서울생활과학고의 선생님 그리고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에는 변함이 없었다. 조 이사장은 “평화통일 없이는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오지 않는다”며 “평화통일을 위해 가는 길이 우리를 진정한 평화의 길로 안내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튼튼한 국가안보의식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통일역량을 배양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올해도 서서울생활과학고는 학생들에게 투철한 국가관 확립, 대한민국의 상징물 바로 알기,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6.25가 주는 교훈 되새기기, 북한의 실상, 통일의 편익 등에 대한 통일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통일 역량을 배양시키고 통일한국을 위한 역군을 길러내는 데 최선을 다하는 국내 최고의 통일교육시범학교에 걸맞은 서서울생활과학고로 거듭나는 길이다.

이를 위해 조 이사장은 학생 개개인이 소지하고 활용할 수 있는 통일학습장(통일노트)을 어느 때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제작했다. 이것은 조 이사장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서서울생활과학고 선생님들이 오랫동안 연구하고 애쓴 결과물이어서 더욱 소중하다.

조 이사장은 “통일교육은 모든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과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평화적 통일에 대한 공통의 인식과 태도를 형성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통일교육의 목표는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한 정의, 인도, 동포애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확고히 하는 데 있다. 또한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겠다는 헌법 전문과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고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해 이를 추진한다는 헌법 제4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다.

결국 서울생활과학고의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와 민족공동체 의식을 토대로 한 통일관 정립, 평화통일의 의지와 역량의 함양, 통일 환경의 객관적 이해와 건전한 안보관 확립 등의 세부적 목표들을 추구하는 셈이다.

한때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이 양적, 질적으로 모두 확대돼 통일이 역사적 당위성을 넘어 실현 가능한 현실로 다가온 적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한반도에는 6.25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전 세계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대책을 마련 중이이지만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급기야 지난 5일에는 북한이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고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위협했다. 하지만 우리의 청소년들은 지금의 위기와 분단의 문제를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통일문제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도 기성세대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통일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 통일교육은 통일을 이끌어 나갈 주역인 학생들에게 통일의식을 일깨우고 통일을 위한 실천 의지와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

조동래 이사장이 강조하는 학교 통일교육의 필요성은 통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극복하고 통일의 당위성과 통일의지 확립, 통일시대를 대비한 역량 강화에 있다. 더불어 학교 통일교육의 과제에는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신과 민주 시민의식의 함양, 민족공동체 의식, 국가 안보의 중요성 인식,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 등이 해당된다.

통일에 대한 청소년들의 부정적 시각은 분단 체제의 장기화가 빚어낸 남북 간 격차와 이질성 그리고 통일로 인한 비용과 혼란 등 통일에 대한 후유증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남북한의 군사적 경쟁과 대결 국면의 해소와 통일 이후 통일 한국의 위상 제고, 국토와 인구의 증가, 경제적 기회의 증대, 통일로 인한 사회적, 심리적 안정 등에 비하면 작은 것이다. 분단 체제를 극복하고 위축된 우리의 역량을 높일 수 있음을 알리는 것이 학교 통일교육의 필요성과 일맥상통하는 셈이다.

또한 학생들에게 분단 상황보다 통일이 됐을 때 더 나은 삶을 보장해준다는 확신을 갖게 해줌으로써 스스로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갖고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해 통일 시대의 주역으로서 사명감을 갖게 하는 것이 학교 통일교육의 과제에 해당된다.

통일은 남북한 간의 합의를 통한 새로운 민족공동체의 형성을 의미한다.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학교 통일교육은 북한 주민을 동정심이나 우월적 시각에서 바라보지 않고 같은 민족이자 공존공영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여기에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돼야만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이를 토대로 남북 관계가 발전해 평화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

서울생활과학고에는 전국 13개 통일관 중에서 가장 유명한 서울통일관이 있다. 지난 2008년 10월 29일 통일부로부터 공식 인정(8월 6일) 받아 개관됐다. 그 동안 서울통일관은 분단된 조국의 통일을 향한 터전이 됐고 남북 분단의 현실에서 고난을 극복하기 위한 한 알의 밀알이 돼 왔다는 평을 받고 있다.

조 이사장은 “대한민국은 경제의 선진화, 삶의 선진화를 통해 세계에서 인정받는 세계 일류 국가 건설을 국가 비전으로 삼고 있다”며 “하지만 남북 분단이라는 과제를 해결하지 않음

면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서울통일관은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서울인들의 정성으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전국의 통일관 중에서 서울통일관이 으뜸인 이유는 관람 목적이 아닌 통일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350평 규모에 학생들뿐 아니라 군인, 경찰, 일반 단체, 탈북민 등 7천여 명이 이곳을 다녀갔다.

서울통일관은 한국의 근대사를 알 수 있는 역사의 현장이다. 역대 대통령들의 대북 정책을 알 수 있고 역사적 장면이 사진으로 전시돼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실생활을 알 수 있는 장면들이 담겨 있고 그들의 방, 부엌, 교실 등을 복원해 생생한 체험의 공간으로 부족함이 없다.

이는 보통의 열정으로는 불가능한 작업이다. 전시된 사진은 물론 북한 주민들이 사용하는 물품 등도 쉽게 구하기 어려운 것들이어서 서울통일관이 아니면 보기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이다. 21세기 평화통일을 위해 시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통일, 안보교육을 하겠다는 설립 취지에 어울리는 통일관이다.

서울통일관은 서서울생활과학고의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작품으로 꾸며졌다. 그래서 통일교육도 안보교육을 비롯해 통일 5행시, 4행시, 퍼즐, 퀴즈, 태극기 그리기, 한반도 그리기, 엽서 쓰기 등 다양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된다. 일주일에 1시간씩 창의적 재량수업의 형식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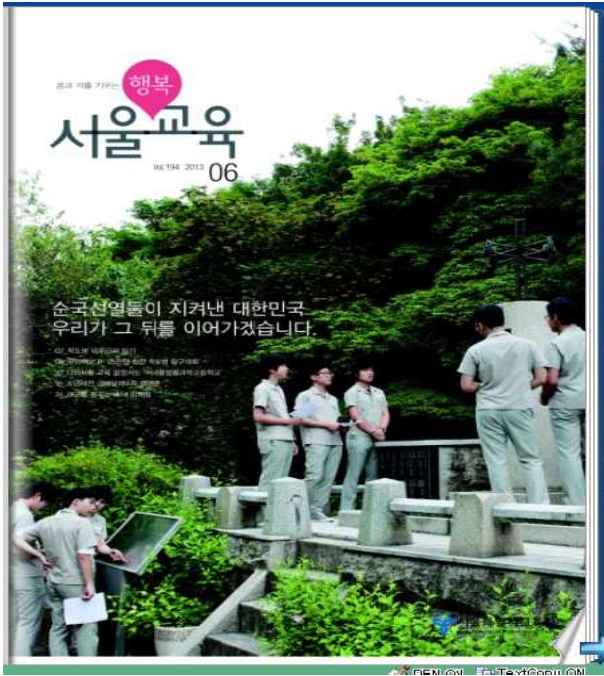
이처럼 한국을 대표하는 서울통일관, 통일교육을 인정받았음에도 조 이사장의 얼굴은 밝지 않았다. 그리고 질문을 던졌다. “통일이 가까워졌다고 생각합니까, 멀어졌다고 생각합니까?” 최근 북한이 ‘정전협정 무효화’에 이어 ‘핵무기로 서울, 워싱턴 불바다’로 전쟁에 버금가는 위협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었다.

이어 “해방 직후 왕성했던 통일에 대한 염원, 기운을 지금 세대에게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 같다”며 “대한민국의 전 학교, 언론이 나서야 할 때”라고 안타까운 심정을 밝혔다.

통일교육은 학교장의 의지에 달려 있다. 또한 어느 포인트에 포커스를 맞추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우리 민족의 지상 목표와 소원은 통일이고 분단 극복이다. 현 상황과 같은 한반도의 위기 속에서도 국민들이 무관심할 수 있다는 것이 조 이사장은 죽기 전에 통일을 볼 수 없을 것 같다는 불안감으로 느끼고 있었다.

조동래 이사장은 “통일은 반드시 온다. 통일교육을 선도하는 서서울생활과학고 학생들이 통일한국을 이룩하는 데 선봉장이 됐으면 한다”며 “이곳의 학생들만큼 통일의지만 있으면 통일교육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강창우 기자 kcwsuk@naver.com





mini interview | 황정숙 서서울생활과학고 교장

인성교육의 출발점은 나라사랑 교육이다.

통일교육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학교설립자인 조동래 이사장의 의지가 크게 작용했다. 조 이사장이 98년 연세대에서 열린 회의에 서 돌아오는 길에 극렬한 한총련 시위를 목도하게 되는 데 당시 주운 유인물에 실린 한 대학생의 글을 보고 청소년들에게 투철한 국가관을 길러줄 교육기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순수한 심정으로 민주항쟁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많이 보고 싶습니다..."라고 시작하는 글이었다. 다음해인 97년 서서울생활과학고에 '서울통일관'이 만들어졌다.

통일교육관이 학생들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
 통일이 다가온다고 했을 때 통일이 무엇이고, 북한의 실정은 어떻고, 우리가 준비할 것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교육자들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20년 전부터 통일교육을 시작했다. 통일교육에 자연스럽게 접근함으로써 통일 역군이 길러질 수 있고, 실제로 통일이 됐을 때 세상을 살아나가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통일준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조그만 전 시판 준비가 리모델링하다보니 이렇게 360평의 큰 전시관으로 성장했다. 북한의 수준을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전국에서 관람객들이 오고 심지어는 군관계자도 찾아와 교육을 받는다.

일반학교 통일교육과 차별화된 점은?
 남북이 쓰는 언어가 다른 점이 문제다. 통일이 되면 소통이 어려워질 것이다. 노크와 문두드리기로 서로 다르게 쓰지 않는가? 2012년 선생님들이 모여 2000개가 넘는 남북의 서로 다른 언어들을 찾아냈다. 언어비교 교육을 한다. 통일 글짓기나 퀴즈를 위해 별도의 교육프로그램 개발에도 힘쓴다. 그 결과물

이 '통일교육 노트'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이 노트를 나눠주고 1년간 나라사랑 교육을 받게 한다. 체계적인 안보통일 교육을 시키는 것이다.

서서울고 졸업생들에 대한 평판은 어떤가?
 은행권을 비롯한 기업들이 좋아한다. 투철한 안보관과 인성교육 효과를 인정하는 것 같다. 통일이라는 이름이 붙여지지만 좋은 인성교육 효과를 보인다. 학생들이 예의 바르고 전문계답지 않게 대학진학률도 높다. 일류대학 진학자도 나온다. 처음엔 해외취업을 위해 만든 유학반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 인기가 좋다. 60여명의 졸업생이 해외로 나가 공부중이고 올해도 16명이 해외로 나갈 예정이다.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이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입학경쟁률도 해마다 오르고 있다. 내신 성적이 38~40%안에 들어야 합격할 수 있다. 인기 학교다. 이렇게 뽑힌 학생들이 해마다 400명 가까이 입학한다. 글로벌 에티켓이 있는 아이들을 길러내기 위해 투철한 국가관에 기반한 인성교육에 치중하고 있다.

건전한 통일교육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좋은 교육 시켜서 좋은 일꾼으로 카우고 통일시대의 미래 인재로 길러내고 싶었다. 정신적으로 민족관이나 협동정신이 잘 확립된 우수한 학생들을 길러내야 한다.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철학이 깔려있는 이유다. 국가관도 그런 것이다. 민족관이 모두 겸비된 인재여야 한다. 그 옛날 충효(忠孝)교육과 다를 것이 없다. 다만 우리 학교는 그것을 체계적으로 강조한 것 뿐이다. 태도를 바꿔주는 생활교육에 나라사랑을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교육은 없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그래야 학생들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자란다. 특별한 지원금도 없이 우리가 서울통일관을 운영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3 통일신문 보도자료(2013. 6. 3)

류길재 통일부장관, 서서울에서 특강



류길재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주간을 맞아 일일통일교사가 돼 통일교육시범학교인 서서울생활과학고를 방문해 청소년들과 통일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류 장관은 특강에서 “통일을 회피하면 우리 민족사와 미래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류 장관은 교육주간 동안 인천남중, 용문고 등 세 곳에서 일일통일교사로 활동했다.

기사입력: 2013/06/03 [14:04] 최종편집: © 통일신문

4 월간 서울교육 보도자료(2013. 6월호)



꿈이 자라는 학교 - '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

나사사랑 교육은 현대판 '중요교육' "글로벌 인재교육 밑바탕에 투철한 국가관 있어야"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이 되면 대부분의 학교는 위문헌을 찾거나 헌충헌을 찾는다. 올 남다른 프로그램을 찾는다면 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를 찾아 통일교육을 경험하기 십상이다. 하지만 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는 좀 다르다. 다른 학교 학생들과 인연 두터운 물론 경찰관과 공무원, 특공부대 군인 이자씨들도 이 학교를 찾는다. 물론 통일교육 교육을 받기 위해서다. 7년간 이머신이 학교만의 나라사랑 통일교육의 비결을 풀어내었다.

서울생활과학고의 아역 풍경

서울시 구로구 구로길 100-1, 지난 12월 오전 자갈 대배계사승과라 한학당 강에 합이오니 학교가 붐비기 시작했다. 차창에 제일 먼저 비친 승려들은 '학문세 세 번 풍년을 생각한다'였다. 좌우 세기 탑을 열고, 좌우 세 번 책을 읽는다니 이야기는 많이 들어 봤지만 학교에선 오기 드문 구호가 열리자부터 30인 것이다. 차에서 내려 이자종길 앞에 붙어 있는 작은 회화실에 들어섰다. 이 학교의 황정수 교장과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였다. 늘상 보는 풍경과는 다른 이색 풍경이 또다시 눈에 들어왔다. 태극기 옆에 나란히 붉은 한반도 풍자그림도, 참 특이한 학교라는 생각이 들었다.

1시간 가까이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야 오해 아닌 오해가 풀릴까만 궁리 복도를 따라 돌아선 교무실에서도 남다른 풍광이 보였다. 중앙 한자문대를 찍어서 자리잡고 있는 부서의 이름이 '통일교육부'였다. 통일교육부라... 앞서 황교장과의 인터뷰에서 그것이 이 학교의 인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라고 이해하지 않았다면 답이 설명하기 힘든 직책 이름은 풍광이었다. 다시 건물 밖으로 나섰다. 학교 상상할 이 학교 아이들이 먼저 인사할 했다. 그리고 앞에 펼쳐진 풍경 인성교육을 전담시키는 '이름통일관' 건물이 기자를 맞이했다. 도대체 이 학교는 어떤 학교일까?

통일교육부의 꽃 심유인 선생님

심유인(28) 선생님은 올해 고3 5년차의 수학 교사다. 그녀는 수 학생일 때도 이 분야에서 통일교육 수업을 했다. 교사는 이 학교 학생들만이 가지고 있다는 통일교과서 '통일교과서'를 집어 들었다. 마침 1학년이었던 학생들이 심교사의 함께 통일관련 퀴즈를 풀고 있었다. 경외심을 갖는 학생들이다. 그녀는 이 수업을 맡기 위해 지난해 등극해 북한학과 대학원에 입학했다. 그녀는 대학원에서 북한이 왜 그러하는지, 왜 온갖 나라들과 통일전쟁을 벌이고 있는지를 배웠다.







꿈이 자라는 학교

특히 개관하면서 커리큘럼 3000여명이 넘는 7만명 교육용으로 만들어진 통일교육 프로그램은 2009-2010, 03-2012-2013에 서울에서 열려왔다.

이 25년째 달마다 치러지는 '나사사랑' 주제를 살피고 있을 때마다 '나사사랑'의 북한 통일 프로그램은 커리큘럼을 엮어, 북한수정 제정권과 북한의 사립학교 교육을 거쳐 '통일교육'이 '나사사랑'의 통일교육과 같은 북한 평화와 영생을 사색하고 나면, 북한 주민들이 생활이 담긴 사본과 각종 생활용품, 북한 교과서를 들어나볼 수 있다. 1시간 남짓 전시관을 방문 할리보다 30분 사본이 학교에 있는 전시관이 있을 정도로 열려 돌아오지 못했다.

통일교육은 또 다른 인성교육

이 학교 인성교육에는 한 가지 남다른 전통이 있다. 통 학생이 1학년 1학년의 야생수련회를 학교에서 갖는 것이다. 올해도 6월 20일부터 다음날까지 행사로 진행됐다. 벌써 17년째다. 학생들은 한



곳의 이해를 끌어내는 과정까지 정해진 내용을 154쪽에 걸쳐 담았다.

최근의 이해를 끌어내는 과정까지 정해진 내용을 154쪽에 걸쳐 담았다.

최근의 이해를 끌어내는 과정까지 정해진 내용을 154쪽에 걸쳐 담았다.

최근의 이해를 끌어내는 과정까지 정해진 내용을 154쪽에 걸쳐 담았다.




<http://enews.sen.go.kr/ebook/ebook.do?bbsSe=1>

서울시교육청 발행 “서울교육 6월호” 표지를 더블 클릭하여 10쪽부터 13쪽을 보시면 우리학교 통일교육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통일 포커스 '제1회 통일교육주간' 현장을 가다

‘통일은 우리의 미래, 우리의 희망’

통일부는 평화통일의 기반 구축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지난 5월 27일부터 31일까지를 '제1회 통일교육 주간'으로 정했다. 당장 통일의 길이 가까워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한발 한발 가야 할 길이기 때문이다. '통일은 우리의 미래, 우리의 희망'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열린 이번 교육주간 동안 국민들에게 통일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워크숍과 포럼, 강연 행사 등이 전국에서 열렸다.

이번 통일교육 주간 행사는 특히 미래의 통일주역인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에 역점을 두었다. 류길재 장관을 비롯한 통일부 간부들이 자신의 모교 등 일선 학교에 일일통일교사로 찾아가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비전을 심어주고, 미래 통일의 주역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전국의 초·중·고교에서는 통일교육원이 제작·배포한 수업자료를 바탕으로 1시간 이상 '계기수업'이 진행됐으며, 통일교육 시범학교로 지정된

전국 64개 학교에서는 문예활동, 현장체험 등 통일관련 특별행사가 마련됐다.

다음에서는 5월 30일과 31일에 열렸던 '2013 학교통일교육발전 워크숍'과 '통일교육발전 전문가 포럼'을 소개한다. 학교통일교육 행사로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 강당에서는 '새롭고 능동적인 통일교육'을 주제로 서울지역 초·중·고교 도덕·사회과 교사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 학교통일교육발전 워크숍'이 열렸다.

워크숍에서는 통일교육원 이미경 교수가 '미래지향적 학교통일교육의 방향'이란 주제로 특강을 했으며, '초등학교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최경자 공덕초 교장), '통일교육의 교수학습 방법론(전송환 서서울생활과학고 교감)' 등의 내용에 대한 주제발제가 있었다. 지정토론에서는 김창기(구일초), 박정미(삼각산중), 김재수(중산고) 등 통일교육 담당교사들이 창의적 체험활동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통일교육 사례를 발표했다. 특히 윤도화 한겨레중고등학교 교감은 탈북 청소년들의 사례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 지난 5월 30일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 강당에서 서울지역 초·중·고교 도덕·사회과 교사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 학교통일교육발전 워크숍이 열렸다.



“단 1시간이라도 신명나게 통일교육 한다면”

최경자 공덕초 교장은 “우리 교사들이 단 1시간만이라도 통일교육을 신명나게 한다면 그것이 학생들의 가슴 속에 자리잡게 되고 곧 성공적인 통일교육의 길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송환 서서울생활과학고 교감은 “통일교육의 성과는 역량있는 교사의 질에 달려 있다.”며 “통일교육을 담당할 모든 교사는 무엇보다 통일문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열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수 중산고 교사는 “최근 학교 현장에서 창의적인 교수학습 방법들이 주목받고 있는데 이러한 분위기에 발맞춰 교사들과 교육기관 및 교육주체들이 더 발 빠르게 적응해 나가야 한다.”면서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유희퀴즈시대가 열린 환경을 감안, 통일교육과 관련한 스마트폰용 학습도구 및 에



플리케이션의 개발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통일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일교육 주간인 피날레로 서울교육대에서는 통일부 통일교육원과 한국윤리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통일교육 발전 전문가 포럼’이 열렸다. 포럼은 현재 학교와 사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통일교육’의 문제점을 짚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통일교육 활성화 방안’과 ‘사회통일교육 활성화 방안’의 2개 세션으로 구성된 전문가 포럼에서는 ‘초등학교 통일교육을 위한 효율적인 자료 활용 방안’(김택신 송파초 교사), ‘초·중등학교 학생과 교사들의 통일인식’(김봉제 반원초 교사), ‘지역사회통일교육 진단과 발전방향’(이범용 공주교육대 교수),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조홍제 국방대 교수)의 4개 세부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

“교사에게 흔들리지 않는 기준점 심어줘야”

‘학교통일교육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1세션에서 김택신 송파초 교사가 주제 발표를 통해 “초등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은 미래 통일역량의 바탕이 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통일교육의 목표와 방향이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에 일관성을 유지하고 논리적·체계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봉제 반원초 교사는 “통일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도와 활용수준은 관련성이 있다.”면서 “교사들의 통일교육에 관심도를 높이는 것이 결국 통일교육과 관련된 수업이 잘 진행될 수 있는 변화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사회통일교육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2세션에서는 이범용 공주교육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행해지는 통일교육이 제대로 정립돼야 한다.”면서 “정부마다 변하는 통일정책 때문에 일선 교사들은 혼란을 겪고 있고, 통일관련 교과가 주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저조하여 교사들의 교육 의지가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교수는 “통일교육에 전반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며 먼저 “정부는 일관성 있는 통일정책을 정립해 교사에게 흔들리지 않는 기준점을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 다음으로 “통일교육 내용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관심과 흥미를 느낄 수 있어야 하고, 통일에 대한 필요성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통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인 헌법, 국가보안법, 통일교육지원법 등 해석상 오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한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통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지난 5월 31일 서울교육대에서 열린 통일교육 발전 전문가 포럼

과 비전을 형성해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보강해야 한다.”며 “통일의 필요성을 보다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차원에서 구성해 알려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완된 통일교육이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통일동아리 활동이나 토론회 수업(통일콘서트) 같은 학습자 중심의 방법이 이루어져, 현장체험 같이 현실감 있고 생동감 있는 학습이 행해진다면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홍제 국방대 교수는 “통일교육이 잘 이루어져 올바른 통일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적 측면이 제대로 정립돼야 한다.”면서 “명확하지 않은 법은 많은 방향성을 제시하여 오히려 제약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통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인 헌법, 국가보안법, 통일교육지원법 등 해석상 오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한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통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통일교육주간 행사는 통일교육의 중요성과 발전방향을 논의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다. ‘통일’이라고 하면 어렵고 무거운 주제로 인식하기 쉬우나, 이번을 계기로 이러한 편견을 불식시켰으면 한다.

‘통일은 우리의 미래, 우리의 희망’

워크숍에서는 통일교육원 이미경 교수가 ‘미래지향적 학교통일교육의 방향’이란 주제로 특강을 했으며, ‘초등학교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최경자 공덕초 교장), ‘통일교육의 교수학습 방법론(전승환 서서울생활과학고 교감)’ 등의 내용에 대한 주제발제가 있었다.

지정토론에서는 김창기(구일초), 박정미(삼각산중), 김재수(중산고) 등 통일교육 담당교사들이 창의적 체험활동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통일교육 사례를 발표했다. 특히 윤도화 한겨레중고등학교 교감은 탈북 청소년들의 사례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단 1시간이라도 신명나게 통일교육 한다면”

최경자 공덕초 교장은 “우리 교사들이 단 1시간만이라도 통일교육을 신명나게 한다면 그것이 학생들의 가슴 속에 자리잡게 되고 곧 성공적인 통일교육의 길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환 서서울생활과학고 교감은 “통일교육의 성과는 역량있는 교사의 질에 달려 있다.”며 “통일교육을 담당할 모든 교사는 무엇보다 통일문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열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수 중산고 교사는 “최근 학교 현장에서 창의적인 교수학습 방법들이 주목받고 있는데 이러한 분위기에 발맞춰 교사들과 교육기관 및 교육주체들이 더 발 빠르게 적응해 나가야 한다.”면서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유비쿼터스시대가 열린 환경을 감안, 통일교육과 관련한 스마트폰용 학습도구 및 애플리케이션의 개발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통일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통일교육주간 행사는 통일교육의 중요성과 발전방향을 논의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다. ‘통일’이라고 하면 어렵고 무거운 주제로 인식하기 쉬우나, 이번을 계기로 이러한 편견을 불식시켰으면 한다.

통일부는 평화통일의 기반 구축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지난 5월 27일부터 31일까지를 ‘제1회 통일교육 주간’으로 정했다. 당장 통일의 길이 가까워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한 발 한 발 가야 할 길이기 때문이다. ‘통일은 우리의 미래, 우리의 희망’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열린 이번 교육주간 동안 국민들에게 통일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워크숍과 포럼, 강연 행사 등이 전국에서 열렸다.

이번 통일교육 주간 행사는 특히 미래의 통일주역인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에 역점을 두었다. 류길재 장관을 비롯한 통일부 간부들이 자신의 모교 등 일선 학교에 일일통일교사로 찾아가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비전을 심어주고, 미래 통일의 주역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전국의 초·중·고교에서는 통일교육원이 제작·배포한 수업자료를 바탕으로 1시간 이상 ‘계기수업’이 진행됐으며, 통일교육 시범학교로 지정된 전국 64개 학교에서는 문예활동, 현장체험 등 통일관련 특별행사가 마련됐다.

다음에서는 5월 30일과 31일에 열렸던 ‘2013 학교통일교육발전 워크숍’과 ‘통일교육발전 전문가 포럼’을 소개한다. 학교통일교육 행사로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 강당에서는 ‘새롭고 능동적인 통일교육’을 주제로 서울지역 초·중·고교 도덕·사회과 교사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 학교통일교육발전 워크숍’이 열렸다.

자료출처:

http://www.ipa.re.kr/unitykorea/contents.asp?exec=view&strBoardID=UnityKorea_09&intSeq=17903&searchYear=2013&searchMonth=7

6 한국정책방송 <KTV> 보도(2013. 5. 27)

The screenshot shows the KTV website interface. At the top, there's a search bar and navigation links like '정책뉴스', '정책/공공', '문화/교양', etc. The main content area features a video player for the article '제1회 통일교육주간... "통일은 미래이자 희망"'. The article text is as follows:

통일교육시범학교로 지정된 서울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인기가수 허각의 통일노래와 북한 야시장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며 꼼꼼하게 메모합니다.

지난 2000년 통일교육시범학교가 된 이후 학생들은 일주일에 한시간씩 통일 관련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대학원에서 통일정책을 전공하고 있는 선생님은 통일에 대해 막연해 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 왜 통일을 해야 하는지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 설명합니다.

조효연, 서서울생활과학고

"우리나라와 북한의 지금 상황이나 북한의 언어 그런것도 배우고 북한의 현재 주민들이 살고 있는 모습(도 배웠습니다.)"

제1회 통일교육주간... "통일은 미래이자 희망"

통일교육시범학교로 지정된 서울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인기가수 허각의 통일노래와 북한 야시장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며 꼼꼼하게 메모합니다. 지난 2000년 통일교육시범학교가 된 이후 학생들은 일주일에 한시간씩 통일 관련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대학원에서 통일정책을 전공하고 있는 선생님은 통일에 대해 막연해 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 왜 통일을 해야 하는지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 설명합니다.

“우리나라와 북한의 지금 상황이나 북한의 언어 그런것도 배우고 북한의 현재 주민들이 살고 있는 모습(도 배웠습니다.)” (조효연, 서서울생활과학고)

교내에 마련된 통일전시관에선 휴전선 너머 가 볼 수 없는 북한 주민들의 실생활이 어떤지 살펴봅니다. 북한 어린이들이 입는 옷부터 과자, 담배, 북한의 신권 지폐가 전시돼 학생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왜 통일이 필요한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할지 알게 됐지만 통일을 향한 학생들의 관심이 계속되려면 보다 다양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통일교육이 지속되는데 가장 큰 걸림들은 역시 대학입시입니다.(윤동엽, 서서울생활과

학교)

“근데 우리 학생들이나 애들은 지금 현재 수학능력 시험이나 그런거에서 통일이란 게 겹쳐지지 않아서...수학능력시험에서는 통일에 대한 문제가 전혀 안 나오잖아요. 문제랑 문제랑 연관이 없잖아요.”

현장 교사들 역시 자칫 일회성 교육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생활에서 활용하고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전승환 교감/서서울 생활과학고 서울통일관)

"수능에 얽매이고 점수화되는 사회체제 속에서 수능에 조그마한 문제 하나라도 포함시킨다면 아이들의 관심도는 배가 될 거고요. 그것이 국력향상에 이바지가 되고 통일에 큰 밑거름이 되지 않나..."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통일부는 오는 30일과 31일 이틀동안 통일교육발전 워크숍과 전문가 포럼을 통해 통일교육 성공을 위한 지도 방법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KTV 김형규입니다.

(자료 출처)

<http://www.ktv.go.kr/program/contents.jsp?cid=464065>

7 미래한국 월간지 보도자료(2013. 9월호)



사단법인 세이브엔케이(이하 SNK)와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서울교총)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통일부와 본지 미래한국이 후원한 ‘북한 교사양성과정과 남북한 교육계 통합방안’ 포럼이 지난 9월 2일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SNK가 금년 연말까지 의료계, 과학기술계, 교육계, 언론·작가분야 등 4개 분야에서 통일 이후 남북통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획의 일환으로 지난 6월 대한의사협회와 공동으로 진행한 ‘남북한 의료계 통합방안’ 포럼과 7월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공동 개최한 ‘남북 과학계 통합방안’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된 것이다.

광화문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룸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축사를 맡은 이준순 서울교총 회장은 “북한 교육체계가 어떻게 이뤄지고 뭘 가르치며, 남한과 뭐가 다른지 모든 점을 정확히 모르고는 남북한 교육 통일을 논할 수 없다”며 “오늘 도출될 많은 대안들이 교육정책 수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믿으며, 우리 교육자들이 이 중심에 서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교육체제를 모색하면 남북한 교육통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교육의 사명은 공산혁명이 양성

1·4 후퇴 당시 평안북도에서 남쪽으로 피난을 온 김명수 한국교육학회 회장은 축사에서 “부모님은 결국 돌아가시고 후퇴 당시 3살이었던 나는 지금 65살이지만, 언제나 제 마음속에는 내 고향 평안북도 정주가 지워지지 않는다”며 “그래서인지 통일교육에 대해서는 남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은퇴한 나이지만 통일이 되면 고향땅에 가서 초등학교 교사든 중학교 교사든 꼭 해보고 싶다”고 언급했다.

포럼은 북한 출신 교사 2명과 국내 교사 2명의 발제로 진행됐다. 북한에서 국어교사를 지내고 현재 거원초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이성희 교사는 북한의 교사양성과 교육 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 교사는 “북한에서의 사범교육 목적과 사명은 후대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로 육성할 혁명화된 교육자를 양성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고 규정한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실과 교구비품, 교과서와 학용품, 실험실습기구 등 교육에 필요한 국가적 투자를 증대시키기도 했으며 교사양성교육의 중시 방침에 따라 학생을 선발 및 모집하여 사범대와 교원대에서 교육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 발제자는 북한에서 수학 교수를 지내고 현재 탈북민 대안학교인 삼흥학교를 이끌고 있는 채경희 교장이었다. 채 교장은 “북한에도 20여만명의 교사가 있고 800만명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있는데 지역적 감정을 무시하고 남한 교육체제를 일방적으로 이식할 것인지 현지 시스템을 놔둘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에 입국한 아동 청소년들과 탈북자들이 그 리트머스 시험지이며 170여명의 탈북 교사들과 수천명의 아동 청소년들이 연구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에는 교육 일선에서 교사들에게 자율권이 사실상 없다는 점도 확인됐다. 채 교장은 “교육위원회에서 제1주 1단원에 뭘 가르치라고 지시하는데 교사들은 그걸 어길 수 없다. 그만큼 자율성이 없다는 것이며 이런 시스템과 남한의 자유로운 시스템을 무분별하게 섞으면 엄청난 혼란이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북한 교사들 중에는 대한민국에 없는 김일성, 김정일 혁명사 등을 전공한 교사들도 많고 국어도 영어도 지리도 가르치는 내용이 다르다. 심지어 6.25를 남침이라고 가르치지 않는데 이런 걸 설득하고 가르치는 과정에서 신중하고 인내심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원통합 컨트롤타워 필요”

다음 발제에서 송두록 남북교육개발원 사무국장은 통일 후 남북한 교원통합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송 국장은 과거 독일 통일의 사례를 검토하면서 남북통일 시 간과하지 말아야 할 내용들을 설명했다.

송 국장은 “교원통합을 이뤄낼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야 제대로 된 화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적으로는 남북한 간 협약을 맺고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타워에는 인사제청권, 교육과정 등 조정권, 긴급명령권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통일 직후엔 전시에 준하는 긴급명령권도 필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제도적 조치와 관련해 그는 “북한 교원양성과정 개론을 남한에 만들어서 필수과목으로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며 “교수가 부족할 수도 있는데 탈북 교원들에게 맡기고, 양성과정부터 관련 전공을 하는 학생들에게 복수전공을 의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전승환 서서울생활과학고 교감은 다음 발제에서 “남북교육통합을 위한 단계적 고려가

절실하며 통일까지 이어지는 정치적 통합 상황을 고려해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 교감은 “개성공단 발전을 위해 위원회를 만들듯 교육 통합을 위해서 교육과정연구회 같은 것을 남북이 함께 토의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통일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도 교육통합이 달라야 한다. 우리는 평화통일과 점진적 통일을 바라지만 무력-흡수-급진-점진적 통일 등 여러 시나리오에 맞는 제도와 방안이 필요하다”며 “향후 교육통합 과정에서 고려할 기본적인 요소로서 다양성과 이질성을 인정해야지, 우리 체제만이 옳다고 하면 남북갈등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SNK의 다음 포럼은 통일 이후 언론·작가계 통합을 주제로 10월초에 열릴 예정이다. 이어 10월말에는 의료계, 과학계, 교육계, 언론계를 총망라한 종합보고회가 개최된다.

김주년 기자 anubis00@naver.com

8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 블로그-I

서울통일관을 가다!!

- 열정적인 통일의 열기를 느낄 수 있는 서울통일관과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 -
통일 미래 길잡이/현장과 사람(2013/09/07)



8월 19일 월요일 김익희, 조현기 기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위치한 서울통일관에 다녀왔습니다. 저희는 취재를 하기 전, 사전조사 기간에 서울통일관이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이하 서서울고) 교내에 위치하고 있어 솔직히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서울통일관을 학교의 부속시설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직접 취재를 하며 저희 예상이 빗나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서울통일관은 시민과 청소년의 통일의식 함양을 위한 체험학습의 현장으로서, 통일부에서 공식지원하고 서서울고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통일관의 역사는 서서울고의 통일교육 연혁과 같다고 말할 정도로, 서서울고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서울고는 1996년 교내에 통일교육을 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1997년 통일관을 개관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는 기존의 통일관을 확대 개편하여 통일안보교육전시관을 개관하였습니다. 2008년 8월 6일에 통일부로부터 공식적으로 통일관 시설로 인정을 받았고, 동시에 서서울고 도서관은 특수자료 취급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 해 10월

29일 정식으로 ‘서울통일관’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개관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통일관과 서서울고는 그 동안의 노력과 통일교육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2009년 12월 22일에는 대통령 단체표창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1996년부터 2013년 7월 31일까지 서울통일관을 방문한 누적인원은 79,270명입니다. 올해 상반기 누적인원(7월 31일 기준)은 5,037명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서울통일관 방문 인원은 작년(2012년, 7,605명)보다 더 많은 인원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인원 증가의 대표적인 원인은 남·북 관계 변화에 따른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 증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더 좋아질 경우, 올해 연말까지 약 1만여 명이 이곳 서울통일관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서울통일관은 서서울고 본관 맞은편 3층짜리 건물 청파관 지하 1층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시관은 아홉 부분(영상홍보관, 북한가정체험관, 북한관, 안보관, 북한교실, 북한물품관, 북한지도 디오라마, 통일로가는길목, 진로체험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북한가정체험관과 북한교실은 북한의 실제 모습 그대로 옮겨놓아 생동감을 주며,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북한관, 통일로가는길목 등의 안내 자료들은 최신 자료로 비치되어 있으며, 전시물의 보존상태는 양호하였습니다. 그리고 안보관에는 서서울고와 자매부대이며 경의선 복원공사에 투입되었던 자갈 대대가 발견한 한국전쟁관련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모형이 아닌 실제 발굴되었던 물품이 전시된 안보관은 DMZ 내의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으며, 동시에 안보 의식을 고취시키기에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물품관에 전시된 물품들 역시 북한에서 실제로 사용되었던 물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곳에 전시된 생활필수품들을 통해, 북한에 가기 어려운 남한 사람들이 북한의 실상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통일로가는길목 코너에는 다양한 통일 비전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철의 실�크로드’라는 표현을 쓴 한반도중단철도(TKR) 사업은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 상세하게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둘러볼 수 있는 곳은 진로체험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통일관에 진로체험관이 있지?’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서서울고에서 진로체험관을 이곳에 설치한 이유에 대해 학교관계자는 입학설명회 때부터 서서울고의 통일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게 하며, 외부인들이 자연스럽게 통일에 대해 접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서울통일관 내부를 둘러보고, 현재 서울통일관의 담당자인 심유민 선생님(이하 심선생님, 서서울고 수학선생님, 현재 동국대학교 통일정책학 과정)과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선 왜 서서울고에 서울통일관이 위치하게 되었는지, 어떤 사람들이 주로 방문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심 선생님은 학교 설립자인 조동래 이사장이 평소 통일에 관심이 많았고, 학교 부지의 일부에 통일 관련 시설을 짓기 시작하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주로 방문하는 사람들은 통일관련 인사들, 정계인사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특히, 통일부 관련 시설에서는 통일교육원에서 이곳을 많이 방문한다고 했습니다. 10대 학생들은 주로 학교에서 단체로 견학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0대는 거의 이곳을 방문하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 서울통일관 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는 조현기 기자



▲ 북한가정체험관에서 직접 체험하는 김익희 기자



▲ 통일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많은 학교 정원

시간표 5학년 2반

	1	2	3	4	5	6
월	진혁	수학	물리	음악	공산주의도덕	체육
화	위협	국어	생물	세사	미술	조사
수	덕성	화학	영어	수학	체육	영어
목	로작	생물	조사	천문학	수학	화학
금	진혁	물리	덕성	영어	공덕	음악
토	위협	생물	로작	국어	생화	체육

* 진혁: 정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장군의 혁명사상
위협: 위대한 수령 김정일장군의 혁명활동

▲ 북한교실 체험관의 북한학교 시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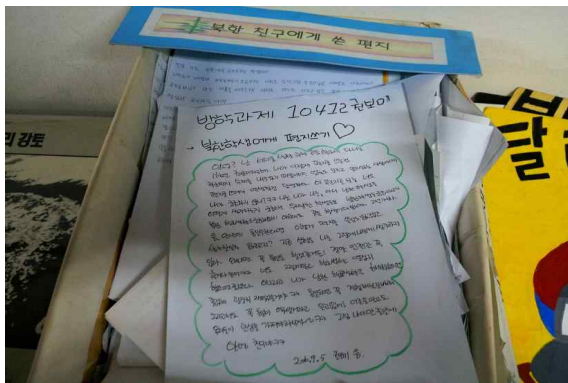
현재 서울통일관의 애로사항에 대해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에 심선생님은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하였습니다. 현재 서울통일관은 통일관 시설을 지을 때 국가의 예산 지원을 받았던 것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운영과 유지에 학교 자체 예산이 투입된다고 했습니다. 저희 기자들은 이에 대해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서울통일관은 지하에 있어 곰팡이를 막기 위한 송풍시설이 철저히 준비되어 있었고 내부의 수많은 테마 시설물들과 장비들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전시용 판넬같은 것은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류길재 통일부장관에 관한 내용도 최신화 되어있었고 이런 물품들은 모두 학교 자체 예산으로 구비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판넬을 비롯한 교보재들이 질적으로도 우수해, 일부 판넬의 내용과 교보재는 통일교육원에서도 이곳 자료를 활용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서울통일관은 많은 물품들을 전시하고 싶지만, 전시할 공간과 전시할 공간이 있다

고 해도 관리할 인원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전시관인 지하 1층을 나와 지상 1층으로 올라왔는데, 미처 전시되지 못한 물품들과 판넬들이 복도에 특별전 형식으로 간소하게 전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심선생님을 비롯한 서서울고 관계자들은 통일부 및 정부에서 학교에서 통일 관련 행사를 진행할 때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도 심선생님과 함께 서울통일관 및 서서울고의 통일교육에 대해서 심층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서울고는 다른 고등학교와 다르게 통일교육부라는 부서를 교내 부서에 설치하고, 총 7명의 선생님이 부서에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록 북한학과 혹은 정치외교학과 출신 선생님들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통일교육원의 교육과 북한 관련 기관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학교 수업 중에도 창재(창의재량)시간에 통일 수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특히, 서서울고의 수업자료들이 인상 깊었습니다. 보통 통일교육은 통일부 혹은 통일교육원의 자료를 토대로 교육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서서울고의 통일교육은 자체 교재를 만들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교내 도서관에 자체 교재를 구비해 놓았으며, 북한 관련 서적들도 학교 도서관에 별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서서울고는 입학과 동시에 필수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이곳 서울통일관에서 통일 교육을 받으며, 학교 행사에서도 통일 관련 행사가 연중 있습니다. 마침 취재를 갔던 날이 개학날이라 저희 역시 학교의 통일 행사를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1층 이사장실 앞에 '북한친구들에게편지쓰기'라는 방학 숙제를 제출하는 공간이 있어 편지도 읽어 볼 수 있었습니다.) 서서울고는 이외에도 북한학생사랑나누기 성금모금행사, 통일4행시 짓기 행사, 통일우체통 등 다양한 행사와 통일 관련 시설물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 통일의 열기를 느낄 수 있는 학교 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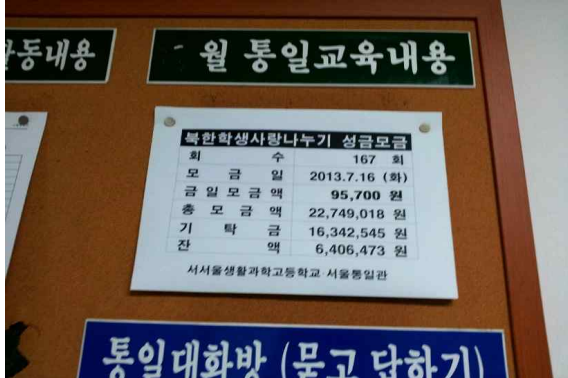


▲ 통일 관련 방학 숙제

서서울고의 통일 열정은 서울통일관 시설뿐만 아니라, 교내 곳곳에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각각 국회의원과 서울특별시 시장 시절 방문하여 직접 제작에 참여한 통일타임캡슐, 얼마 전 5월에 방문한 류길재 장관의 기념식수와 기념시계, 평화통일의 종, 학교 정문에 들어서면 볼 수 있는 '우리는 하루 3번 통일을 생각한다'라는 문구 등을 통해 학교 곳곳에 통일에 관한 염원이 담겨져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학교의 노력에 대해 통일교육의 모범사례로 많은 언론들이 취재를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수도이자,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된 도시인 서울에 현재 통일관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서울보다 인구 수가 적은 강원도는 2개, 경기도 역시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를 비롯한 많은 통일 정책 기관들은 국민

들의 통일 의식 제고가 필요하고,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 인식을 시켜야 되며, 통일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번 취재를 통해, **현실과 이상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 십수년 동안 이어져온 학교 자체 성금모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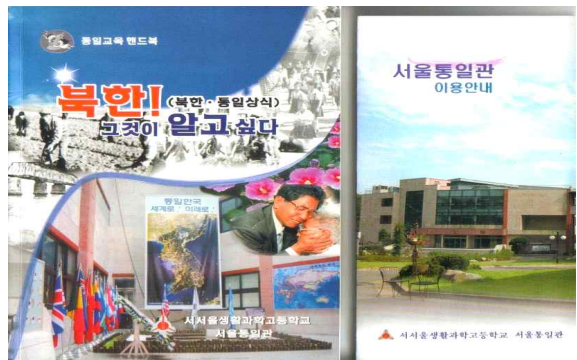
▲ 학교 도서관 내의 북한 도서들

현재 서서울고는 서남부권 시민을 제외하고 접근이 불편한 위치에 있습니다. 서울 동부권과 북부권의 시민들이 서서울고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2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앞으로 서울 지역에 더 많은 통일관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일관 홈페이지가 통합되어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저희 6기 대학생기자단은 전국에 있는 통일관을 기획취재 중에 있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제기하는 문제 중에 하나는 통일관 간의 연계성이나, 커뮤니티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번 기회에 통일부를 중심으로 통일관 홈페이지의 통합 및 연계 필요성**에 제기되어 인터넷 상에 통일관이 활발히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통일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다수의 시민들은 통일관이 어떤 시설인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지역 통일 교육에 중심이 되며 일반 국민들이 통일에 대해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인 통일관에 대해, 국민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통일이 되는 날 개봉할 평화통일염원 타임캡슐



▲ 서서울고 자체 제작한 통일교육교재

서서울고를 취재하면서 열정적인 통일의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열정에 대해 정부의 반응은 차갑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통일 관련 단체들은 통일이라는 염원을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한정된 예산으로 모든 단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박근혜 정부가 '평화통일기반구축'이라는 4대 국정기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일관 및 통일 관련 단체들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지원 및 관심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대학생

기자단 김익희, 조현기 기자입니다!!

※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는 어떤 학교인가요??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궁동에 있는 사립 고등학교입니다. 1972년 3월 5일 동광실업전수학교로 개교하였습니다. 1982년 11월 30일 동광상업고등학교로 설립 인가를 받았고, 1995년 9월 22일 서서울정보산업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습니다. 2001년 3월 1일 정보처리과, 관광과, 조리과학과, 만화영상과, 생활체육과, 시각디자인과, 이미용과, 실용음악과로 학과 개편을 하였습니다. 2004년 2월 27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고, 2005년 10월 18일에 학교 기업 '서서울베이커리'를 설립하였습니다. 2006년 2월 14일 설립자 겸 제1대 조동래 교장은 이사장으로 취임하였으며, 제2대 황정숙 교장이 부임하였습니다. 2013년 현재까지 39회 졸업을 했고, 총 18,720명이 이 학교를 거쳐 갔습니다.



▲ 서울통일관 내부 기념 공간, 통일희망엽서 (김익희, 조현기 기자)


통일부
MINISTRY OF UNIFICATION

제6기 통일부
대학생기자단

서강대
사학과 | 조현기

✉ chohk0207@hanmir.com




통일부
MINISTRY OF UNIFICATION

제6기 통일부
대학생기자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 김익희

✉ s2fly2@naver.com



고등학교에 통일관이? : 청소년의 통일의식을 고취하는 서울통일관
 통일 미래 길잡이/현장과 사람 2012/09/02

통일 올림피아드, 들어보셨나요?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 내에 위치한 서울 통일관에서 열리는 대회로, 통일과 북한에 관심있고 열정있는 고등학생들이 모여 통일퀴즈를 풀며 지식을 겨루는 대회입니다. 저는 이 대회를 준비하고 참여하면서 북한에 대해 더 넓고 깊게 배울 수 있었으며, 통일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지지하는 입장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그런 경험과 기억을 더듬어서 다시 한번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와 서울통일관을 방문 하였습니다.



서울통일관(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의 통일교육

서울통일관을 보기에 앞서,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에서 통일 관련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통일교육, 체험활동, 행사

먼저 학생과 시민 한마음통일박람회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통일만화그리기, 전국청소년 통일 퀴즈왕 선발대회, 탈북연예인과 함께하는 통일 음악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 학습장 자체 제작 보급 활동과 1박 2일로 신입생 대상으로 진행되는 청소년 통일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997년 5월 이후 매월 1회 실시하는 통일 기금 조성 활동과 통일도서관 운영 등이 있습니다.

◆ 6.25 전쟁에 대한 교육활동 추진

6.25 전쟁 계기 통일안보 학예행사가 있는데요, 기간은 6.25 전쟁 전후로 5월 21일부터 약 한 달 간 진행되며, 글짓기나 포스터 그리기 등과 같은 행사가 있습니다. 또한 통일안보 강연회 및 계기교육도 실시합니다.

◆ 통일 현장체험활동 강화

안보현장, 향토문화유적지, 북한관 등을 연계한 코스를 만들어서 위문행사 등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사이버시대에 부응하는 교육활동의 전개

통일교육 홈페이지, "인터넷 통일학교"를 적극 활용하며, 통일 관련 정보 사냥 대회, 북한 문화재 탐방, 북한의 세시풍속 연구 등 네트워크를 이용한 통일 교육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몇 가지 교육 사업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다양하고 활동적인 프로그램들이 많았고, 이 외에도 교내에서 하는 통일 관련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서울통일관이 다른 통일관과 달리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에 위치한 덕분인지 청소년들과 시민들의 통일교육을 위해 잘 쓰이고 있는 모습으로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 서울통일관 들여다보기

서울통일관, 고등학교에 위치한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사실, 학교에 실내 운동장, 박물관 등의 건물은 생각 할 수 있지만 서울 통일관이 자리한 것은 이색적인 풍경입니다.

통일관을 들어서자 제일 먼저 눈에 띄는 통일의 탑입니다. 통일관련 그림들을 보아 탑을 만들었는데요, 아름다운 색채와 통일관련 그림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남북한 분단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북한의 생활상과 예술, 문화, 경제, 권력구조 등 뿐만 아니라 인권 실태, 문화유산 그리고 교육체계와 학교 교실을 실제 크기로 만들어서 상세하게 전시해놓은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북한에 대해 지식이 전혀 없는 분이 방문 하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재미있었던 전시관이었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어린 시절 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행적을 따라 붉은기 사상, 고난의 행군과 같은 북한의 역사를 알기 쉽게 설명해 놓은 곳이었습니다. 처음 보았던 그들의 사진도 많았기에 보는 재미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중앙에는 이렇게 북한 사람들이 쓰는 옷이나 일반용과 간부용으로 나눈 배지, 북한 술, 군인 옷들과 고급식기류등과 같은 것을 전시해 놓았습니다.



북한이탈학생 장길수의 그림일기입니다. 북한에서 겪었던 일들을 정말 생생하게 표현해 놓았는데요, 그 어떤 설명보다도 마음으로 와 닿는 전시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한 쪽에는 이렇게 북한의 일반가정집 모습으로 꾸며 놓은 공간이 있습니다. 북한이 어떻게 김일성, 김정일 부자를 우상화 했는지를 설명해 놓았으며, 방 뿐 만 아니라 부뚜막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통일의 필요성을 조목조목 나열하여 전시하고 유럽으로 이어지는 시베리아 횡단 철도 등과 같은 이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한국의 비전의 제시하면서 통일에 대한 기대감과 염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4년 만에 다시 방문한 것이었는데, 두 번째 방문에서 더 많은 이해와 지식을 얻고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나,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해 자세하게 전시해 놓은 모습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오렌지족에 대한 뉴스 기사를 인용한 설명과 근대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존재 하였던 분단 국가들의 통일비교와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설명 또한 흥미로웠습니다.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 전승환 교감선생님과의 간단한 인터뷰

Q. 고등학교 내에 통일관이 있다는 것이 이색적입니다. 어떤 배경으로 통일관이 세워지게 되었습니까?

A. 학교 통일교육을 꾸준히 진행 하던 중에 통일부에서 방문하여 학생 대상의 통일교육이 아닌 범(汎) 시민적인 통일교육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통일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 되었으며, 통일교육관은 21세기 통일한국을 이룩하는데 초석을 다지는데 목표를 두면서 학생, 시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통일교육 실시와 전시관 견학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기본 이념 확립, 민족 공동체의식 함양,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 의지와 통일 역량을 배양시키며, 통일 분위기 조성을 확산하며 나아가 통일을 준비, 대비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기 위해 2008년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Q. 통일관이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A. 학생들에게 자부심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학교 내에 통일관이 있어서 창제 수업은 물론 각종 통일 관련 행사를 추진하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Q. 통일이나 북한관련 교과목이 있습니까?

A. 별도의 교과목은 없고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통일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Q. 통일관을 관람하면서 자료 내용이나 구성이 정말 잘 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관람한 외부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A. 외부인들은 관람 후 모두 감탄하곤 합니다. 특히, 맞춤형 교육으로 하는 강의와 실제 체험 위주의 통일교육은 저희의 자랑거리이자 외부인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일 정도입니다.

학창시절 통일이나 북한에 관심 가졌던 주위 친구들은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은 말이죠. 저 또한 마찬가지로였지만 정말 운이 좋게 통일 퀴즈대회를 두 차례 나가게 되면서 통일의 필요성을 간절히 느꼈습니다. 그 중심에는 서울통일관이 있었습니다. 서울통일관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는 통일관이 있습니다. 보다 다양한 통일관련 사업들과 홍보를 통해서 다양한 연령층, 특히나 미래 통일 세대가 될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북한에 대한 이해와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고 미래 통일한국을 위한 인재가 늘어나기를 소망합니다.



■ 2013년 사진 모음

북한학생 사랑나누기 성금모금

매월 1회 실시



문용린 서울특별시교육감 방문

2013년 2월 27일



서울고원초등학교 아하구로체험단 견학

2013년 3월 28일



전국 통일교육시범학교 교장·교감단 방문

2013년 4월 16일



전국 중등학교 교장·교감단 견학

2013년 4월 18일



주엽고등학교 교직원 견학

2013년 5월 2일



제18회 서울학생 통일글짓기 대회

2013년 5월 28일



제18회 서울학생 통일글짓기 대회

2013년 5월 28일



류길재 통일부장관 방문

2013년 5월 30일



서울지역 학교 통일교육발전 워크숍

2013년 5월 30일



서귀포 교육지원청 관내 학생회장단 견학

2013년 6월 5일



구로경찰서 주최 천안함 견학

2013년 6월 11일



제17회 평화통일염원 청소년 야영수련회

2013년 6월 20일 ~ 21일 (1박2일)



제17회 평화통일염원 청소년 야영수련회

2013년 6월 20일 ~ 21일 (1박2일)



제17회 평화통일염원 청소년 야영수련회

2013년 6월 20일 ~ 21일 (1박2일)



제17회 평화통일염원 청소년 야영수련회

2013년 6월 20일 ~ 21일 (1박2일)



6.25 음식체험

2013년 6월 25일



군포유치원 서울통일관 견학

2013년 6월 27일



봉림중학교 서울통일관 견학

2013년 7월 16일



을지연습 구간 구로구민 및 공무원 서울통일관 견학

2013년 8월 20일



태랑초등학교 서울통일관 견학

2013년 9월 12일



제7회 전국 청소년 통일퀴즈왕 선발대회

2013년 10월 24일(행사전이므로 전년도 사진을 수록합니다)



2013 서울통일관 통일보물찾기

2013년 10월 25일(행사전이므로 전년도 사진을 수록합니다)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서울통일관 통일교육 17년 (1996~ 현재)

1. 서울통일관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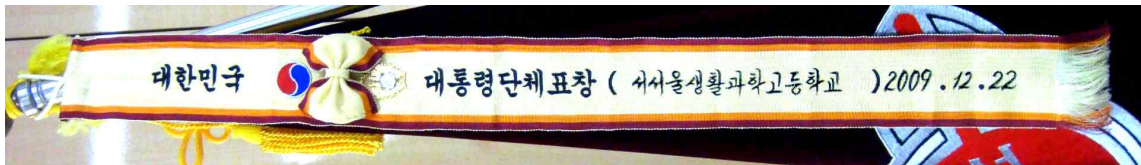
- 1997년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내 통일안보교육관 개관
- 2003년 9월 18일 특수자료 취급인가
- 2008년 10월 29일 서울통일관 개관(8월5일 인가)

2. 서서울생활과학고 통일교육 약력

- 1996년 통일교육 주요지표 설정
- 1997년 통일연구실 개설. 통일교육연구위원회 조직 운영
- 2000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정 통일교육시범학교 운영
- 2001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정 통일교육연구학교 운영
- 2003년 ~ 2004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정 통일교육시범학교 운영
- 2003년 3월 31일 ~ 2004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정 통일교육시범학교 운영
- 2007년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북한이탈주민학생 교육프로그램 운영
- 2008년 ~ 2009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정 통일교육시범학교 운영
- 2000~2012 현재 : 전교생 "통일 학습장(통일로 가는 길목)"작성 배부
- 2003~2012 현재 : 1학년대상 통일 재량 수업 실시
- 2010~2011 : 통일교육시범학교(서울특별시교육청지정) 운영
- 2013~2014 : 통일교육시범학교(서울특별시교육청지정) 운영 중

3. 대한민국 대통령 단체표창(2009년 12월 22일)

-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 통일교육 우수학교 대한민국 대통령 단체표창



4. 서울통일관 개관 기념 학술세미나(2009년 5월 8일)

- 주제 : 남북한 통일교육의 과제와 전망, 장소 : 프레스센터
- 참가자

• 류길재(북한대학원)	• 김동규(고려대)	• 김형찬(미국, 서부워싱턴대)
• 오일환(한양대)	• 강철환(조선일보사)	• 김성민(자유북한방송)
• 김온호(서울시교육청)	• 김상무(고려대)	• 이동일(충남통일관)
• 안찬일(서강대)	• 오충석(통일부)	• 조희재(서울통일관)
• 박찬석(공주교대)	• 최옥(한민족대안학교)	• 박광일(북한민주화위원회)

5. 평화통일염원 청소년 야영수련회 (1997~2013년까지 17회 실시)

- | | |
|---------------------------|---------------------------|
| ○ 제01회 : 1997년 05월 16-17일 | ○ 제04회 : 2000년 05월 09-10일 |
| ○ 제02회 : 1998년 05월 17-18일 | ○ 제05회 : 2001년 10월 18일 |
| ○ 제03회 : 1999년 05월 29-30일 | ○ 제06회 : 2002년 05월 17-18일 |

- 제07회 : 2003년 06월 25-26일
- 제08회 : 2004년 06월 17-18일
- 제09회 : 2005년 05월 26-27일
- 제10회 : 2006년 05월 25-26일
- 제11회 : 2007년 05월 22-23일
- 제12회 : 2008년 05월 30-31일
- 제13회 : 2009년 10월 22-23일
- 제14회 : 2010년 06월 04-05일
- 제15회 : 2011년 06월 09-11일
- 제16회 : 2012년 05월 24-25일
- 제17회 : 2013년 06월 20-21일

6. 전국청소년 통일퀴즈왕 선발대회 (2006~2013년까지 7회 실시)

통일부장관상, 통일교육원장상 등 10개 부문 시상

- 제1회 : 2006. 10. 26.
- 제2회 : 2007. 10. 18.
- 제3회 : 2008. 10. 30.
- 제4회 : 2010. 10. 28.
- 제5회 : 2011. 10. 21.
- 제6회 : 2012. 10. 24.
- 제7회 : 2013. 10. 24

7. 북한학생 사랑나누기 성금 모금 169회(1997~2013.9 현재)

- 매달 1회, 아침 등교시 교문앞에서 실시
- 총모금액 : 23,004,648원
 - 북한관련(용천폭파사고, 북한수해성금, 새터민 장학금 등) 성금 기탁 후
- 현재잔액 : 6,162,108원

8. 학생·시민 한마음 통일박람회(2001~2013년까지 10회)

- 제01회(2001.06.12) : 한반도평화정착 기원 행사, 61.5m 김밥 만들기
- 제02회(2003.06.25) : 평화통일염원 대형 한반도 통일 케익 만들기
- 제03회(2004.10.06) : 615명 "통일 대 합창" 및 "통일 염원 마스게임"
- 제04회(2006.10.26~27) : 평화통일염원 타임캡슐 매설행사, 북한음식체험, 통일음악회
- 제05회(2007.10.17~19) : 통일음악회, 북한음식체험
- 제06회(2008.10.29~31) : 서울통일관 개관기념 경축행사, 북한음식체험
- 제07회(2010.10.29~30) : 전국 청소년 통일퀴즈왕 선발대회, 북한음식 체험
- 제08회(2011.10.21~22) : 전국 청소년 통일퀴즈왕 선발대회, 서울통일관 관람
- 제09회(2012.10.23~24) : 전국 청소년 통일퀴즈왕 선발대회, 북한음식 체험
- 제10회(2013.10.24~25) : 전국 청소년 통일퀴즈왕 선발대회, 통일보물찾기

9. 통일교육교재 개발

- 통일로 가는 길목(통일학습장) : 2000년 이후 매년 자체 제작 전교생에게 교육 실시
- 통일상식(북한! 그것이 알고 싶다) : 2012년 개발
- 남북한 언어비교 : 2012년 개발
- 통일용어사전 : 2013년 개발

10. 통일안보교육 특강 (1996~2013.10 현재까지 84회 실시)

황장엽선생, 류길재 통일부장관, 김동규 박사 등

- 1996. 05. 17 : 송한호 전 통일부 국토통일원 차관 특강
- 2003. 03. 15 : 김순권 박사 특강(국제육수재단 이사장)
- 2006. 06. 09 : 황장엽 선생 특강(전 북한 노동당 비서, 탈북자 동지회 회장)
- 2007. 08. 02 : 김동규 박사 특강(전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 2008. 11. 24 : 황장엽 선생 특강(전 북한 노동당 비서, 탈북자 동지회 회장)
- 2010. 10. 22 : 홍양호 전 통일부 차관 특강
- 2013. 05. 30 : 류길재 통일부장관 특강 등

11. 1996년 이후 통일교육 관련 방문·견학 79,530명

- 학생, 일반, 단체, 군경 등 "79,530"명 방문 (1996~2013년 9월 현재)

12. 서울특별시교육청 주관 서울학생 통일안보체험 행사

- 2009년 : 서울특별시 초중고 학생 4,552명
- 2010년 : 서울특별시 초중고 학생 4,310명
- 2012년 : 서울특별시 초중고 학생 310명
- 2013년 : 실시중

13. 하나원 탈북청소년 남한학교체험지정 본교 탐방 행사 본교 학생 가정 홈스테이 등 7회 실시

- 제1회 : 2005.04.06~07(1박2일)
- 제2회 : 2005.12.19 (1일)
- 제3회 : 2006.04.05~06(1박2일)
- 제4회 : 2007.03.28~29(1박2일)
- 제5회 : 2009.05.27(1일)
- 제6회 : 2009.06.18(1일)
- 제7회 : 2009.07.17일(1일)

14. 통일음악회(2005~2008년까지 4회 실시)

- 제1회 : 2005.10.06
- 제2회 : 2006.10.26
- 제3회 : 2007.10.18
- 제4회 : 2008.10.31

15. 북한 및 6.25 음식체험(2006~2012년까지 5회 실시)

- 제1회 : 2006년 10월 26일
- 제2회 : 2007년 10월 18일
- 제3회 : 2008년 10월 29일
- 제4회 : 2010년 10월 29일
- 제5회 : 2012년 10월 24일
- 제6회 : 2013년 6월 25일

16. 평화통일 염원 전국 청소년 통일 대 토론회

- 2005년 5월 20일(평화통일염원 전국청소년 통일 대토론회)

17. 본교 통일교육 170여회 보도

- 국내언론 및 BBC, NHK, CNN 등

■ 서울통일관 소개

서울 통일관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 서울통일관

(우/152-881)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 1355-10
Tel 02-2688-5591, 02-2613-5556 Fax 02-2615-1245

서울통일관

● 서울통일관 운영취지

서울통일관은 21세기 통일한국을 이룩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데 목표를 두면서 학생·시민·북한이탈주민 및 학생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통일교육 실시와 전시관 견학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이념확립, 민족공동체의식함양,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의지와 통일역량을 배양시키며, 통일 분위기 조성을 확산하며 나아가 통일을 준비, 대비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서울통일관 연혁

- ▷ 1997년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內 통일관 개관
- ▷ 2003년 6월 25일 통일관을 통일안보교육전시관으로 확대 개관
- ▷ 2008년 8월 6일 서울통일관 통일부 공식 승인
- ▷ 2008년 10월 29일 서울통일관 개관식

● 통일교육프로그램

제목	시간	내용
통일관 소개	10분	인사말, 운영취지, 연혁, 전시관 현황 등
통일교육 특강	30~60분	북한의 이해, 국가관, 안보관 등 통일교육
통일교육 영상	20~30분	북한주민의 생활, 북한학생의 학교생활 등 다수
북한영화 감상	90~120분	“홍길동”, “도시처녀시집와요” 외 다수
전시관 관람	30~60분	360평 전시관, 3천여점 전시물 관람
시간과 내용은 단체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시 내용

- 남북한 통일방안 : 남북한 통일방안의 변천, 통일한국의 미래상, 남북한 비교 등 설명
- 북한의 이해 : 북한의 체제, 의식주 등 주민생활, 문화예술, 북한의 실상, 북한의 지리지역 등 소개
- 남북정상회담 등 통일을 위한 만남 : 남북정상회담, 이산가족 상봉 등 소개
- 안보관 : 6.25 전쟁의 실상, 전후 대남도발사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안보의식 함양
- 북한물품관 : 북한주민들이 사용하는 각종 생활용품, 북한교과서 등
- 새터민 장길수의 북한생활 그림일기 : 본교 졸업생 새터민 장길수가 북한에서 생활했던 기억을 되살려 그린 그림 일기전
- 통일로 가는 길목 : 해방과 6.25전쟁을 기점으로 지난 반세기 동안 통일노력의 발자취를 사진을 통해 설명
- 통일교육 영상실 : 청소년들의 통일교육에 도움이 되는 각종 영상자료를 감상할 수 있는 공간
- 북한가정 체험실 : 북한의 중산층 가정을 재현, 북한주민의 가정생활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공간
- 북한교실 체험실 : 북한의 시골 중학교 교실을 축소 재현. 북한의 교육현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
- 북한의 주요지역(북한지도 디오라마) : 요덕정치범수용소, 영변원자력연구소, 평양직할시, 나선특별시, 신의주, 개성, 청진, 금강산, 백두산 및 판문점 등 위치 안내 및 설명
- 통일희망엽서전 : 서울통일관 견학자들을 대상으로 통일희망엽서를 작성 전시
- 북한방송시청 : 특수자료 취급허가에 따른 북한방송 시설 설치. 오후 5~13시 방송.

- 홈페이지 <http://www.seoultongil.com>

전시관 갤러리



현관 전경



360평 전시관 입구 전경



북한지도 디오라마(북한의 주요지역)



북한가정체험실



북한관



정상회담, 이산가족상봉

전시관 갤러리



안보관



북한교실 체험실



북한물품관



통일희망엽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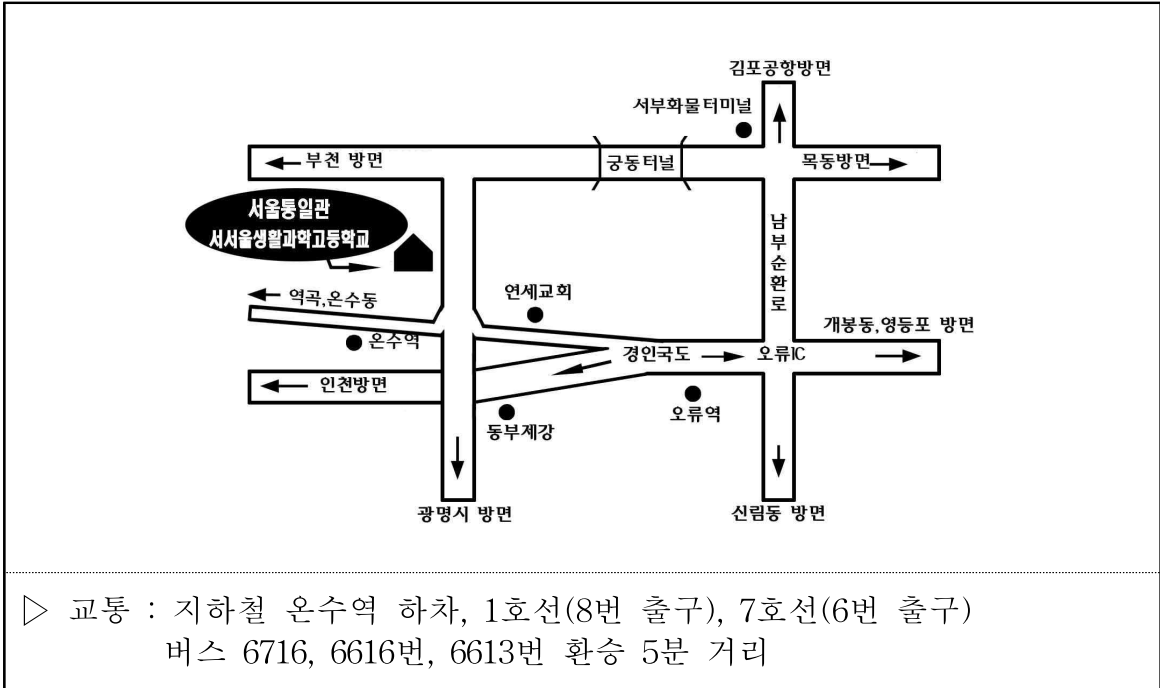


북한이탈학생 장길수 그림일기



통일로 가는 길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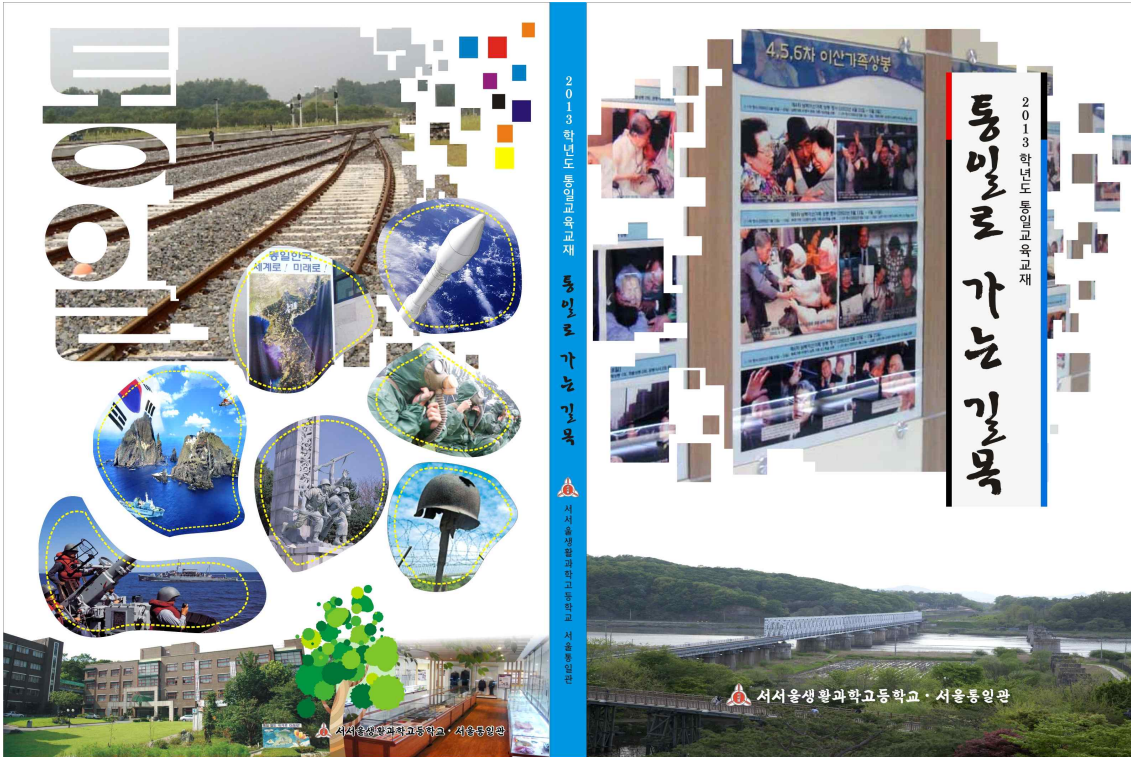
찾아 오시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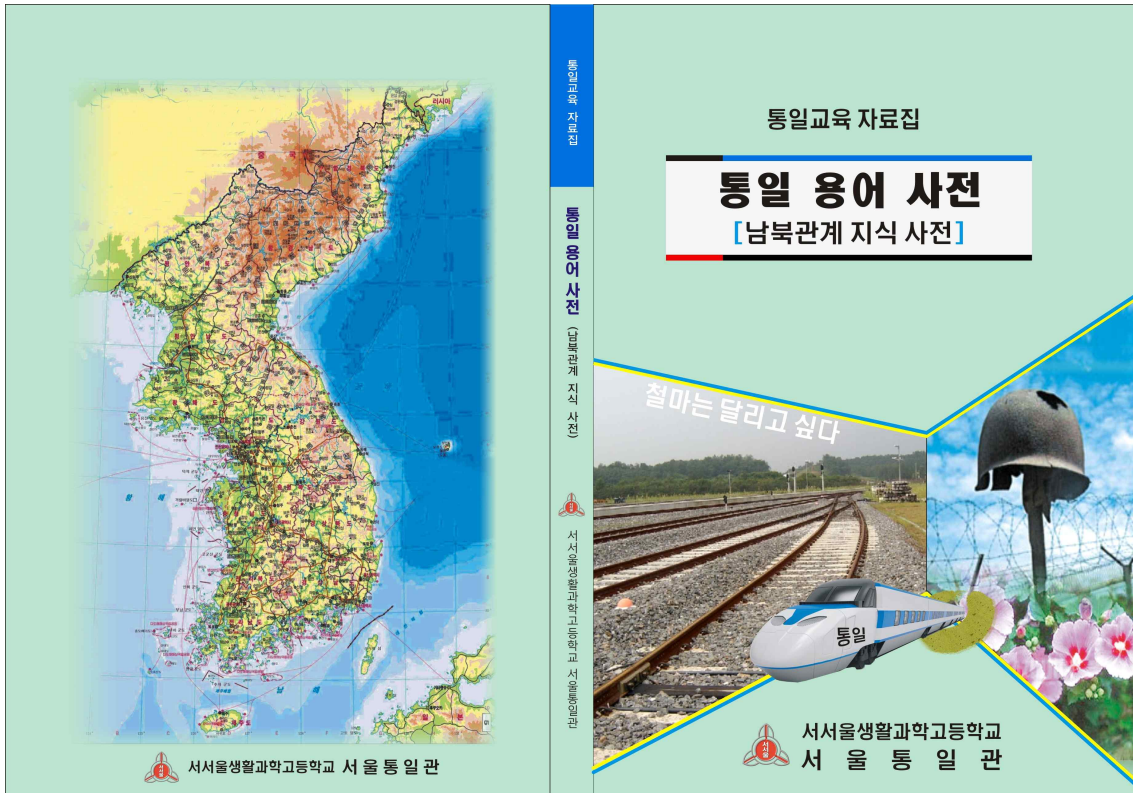
관람 안내

관람 안내	평일 09:00-16:00 (일요일, 공휴일 제외)
	관람료 및 통일교육프로그램 참가비 : 무료
	전시관람 : 관람시간 내 수시 자유 관람 가능
	통일교육프로그램 참가(단체만 가능) : 담당자에게 사전 문의 기타 안내 : 서울통일관 홈페이지 참고 홈페이지 : http://www.seoultongil.com
연락처	02-2688-5591, 02-2613-5556, 02-2613-5273, FAX :02-2615-1245
주 소	(152-881)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1355-10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內

서서울이 개발한 통일교육 교재 4종 (표지)



서서울이 개발한 통일교육 교재 4종 (표지)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
2013학년도 통일교육시범학교 운영보고서

인 쇄 : 2013년 10월 일
발 행 일 : 2013년 10월 일
발 행 인 : 황정숙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장)
조동래 (서울통일관장)
편집위원 : 이진동, 최규선, 안휘, 조은주, 김진숙,
박경준, 심유민
감 수 : 전승환, 신승철
발 행 처 :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서울통일관
통일교육부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 1355-10 <152-881>
* 연락처 : (02)2613-5273
<http://ssls.hs.kr>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 1355-10 <152-881>

(02)2613-5273

<http://ssls.hs.kr>